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일념으로 화두 들어
참 성품 찾아야"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2월 24일) · 주간

제1031호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행실이 옳지 못한 것은 마음의 때요
물건을 탐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한 행동은 이생과 내생의 때이다.

쉬고, 희망세우고 설 연휴 사찰로 가자

불교문화사업단 설맞이 템플스테이

2015년 첫 연휴는 주말을 포함한 황금연휴로 시작한다. 들뜬 마음으로 한해 세운 계획도 '작심삼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해 계획을 다잡을 시기다. 이번 설 연휴는 천년고찰에서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015년 을미년 설 명절을 맞아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설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합동차례와 전통놀이, 명상, 사찰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골고루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더해준다.

명상으로 맞는 새해

강원 오대산 월정사는 명상을 통한 새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는 템플스테이 '오롯이 바라보기'를 진행한다. 2월 14~21일 이뤄지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108염주 만들기, 전나무 숲길 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참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단 중학생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

순천 선암사 역시 편백나무 숲길 걷기 명상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2월 18~21일 '나에게 특별한 설날을 선물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걷기 명상과 만다라 치유명상, 좌선,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문화체험 · 소원을 동시에

가족, 연인과 함께 한다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곳을 추천한다. 양평 용문사는 2월 18~21일 설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윷놀이, 제기차기 대회, 아침 떡국공양, 은행나무에 소원지 달기 등이 진행된다.

계룡산 갑사는 계룡산 산행과 함께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2월 18~21일 열리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윷놀이, 범종체험,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체험형 템플스테이에서 선무도 본찰인 경주 골굴사를 빼놓을 수 없다. 2월 18~22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선무도, 국궁 체험을 비롯해 만두 빚기와 민속놀이 체험, 합동 차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사중 전통 통알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수덕사의 '날마다 되소서' 템플스테이는 설 음식 장만, 합동차례, 암자순례, 숲길 걷기, 소원초 밝히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2월 17~22일 진행된다.

오로지 쉬고 싶다면

삶에 지쳐 오로지 산사에 기대어 쉬고 싶다면 휴식형 템플스테이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겨 볼 일이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축서사는 2월 18~20일 '쉬고, 쉬고 또 쉬고', '쉬고 쉬고 설도 쉬고'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각각 운영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설날 템플스테이는 명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합동차례,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면서 "사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우의를 다지는 새로운 설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5년 설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

사찰	날짜	프로그램	내 용
백담사	2/18~19	제8회 우리설 희망 템플스테이	도량안내, 맥놀이, 스님과의 차담, 숲명상
백련사 (가평)	2/18~20	우리절, 우리설	소망등 만들기, 잣숲길 명상, 설 합동차례, 반야심경 사경, 염주 만들기, 부처님께 세배하기 / 선착순 20명
월정사	2/14~21	오롯이, 바라보기	108 염주 만들기, 전나무숲길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참선 / 중학생 이상
용문사 (남해)	2/18~20	설 템플스테이	새해 타종, 108참회발원, 자아명상, 소원등 만들기, 산내암자순례
선암사	2/18~21	나에게 특별한 설날을 선물하자!	스님과의 차담, 편백나무숲길 걷기명상, 좌선, 만다라치유명상, 소원등 만들기, 염주 만들기
국제선센터	2/19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템플스테이	합동차례, 소원지쓰기, 차담, 윷놀이/ 북한이탈주민/ 무료
용문사 (양평)	2/18~20	설 템플스테이	윷놀이, 제기차기 대회, 아침 떡국공양, 해맞이, 소원지 작성, 은행나무에 소원지 달기
갑사	2/18~20	설맞이 템플스테이	갑사이야기, 범종체험, 108 여의주 만들기, 내 마음을 찾는 참선, 윷놀이, 계룡산 산행,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미황사	2/19~20	설날 템플스테이	고요한 소리 프로그램, 윷놀이 / 내외국인
영평사	2/18~20	맛드림 설날맞이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연꽃n 만들기, 차담, 장군산 걷기 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떡국먹기, 지족명상, 소원지 쓰기, 합동차례
골굴사	2/18~22	설날 템플스테이	만두 빚기, 차담, 합동차례, 민속놀이, 선무도, 국궁, 산행/ 내외국인
법륜사	2/18~20	까치까치! 설날	만두 빚기, 민속놀이, 통합세배, 나를 깨우는 108배, 떡국공양, 꿈연꽃등만들기, 복의 씨앗심기, 맑은 물 붓기, 차담
수덕사	2/17~22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설음식 장만, 합동차례, 수덕사 전통 통알의식 참여, 설날 나들이(암자순례, 숲길 걷기), 행복염원 108염주 만들기, 소원초 밝히기 2월 17일 ~ 22일 자유선택
내소사	2/18~20	청양아 놀자!	사물 관람, 타종체험, 윷놀이, 예불, 법문, 행복을 찾는 108배, 전나무 숲길 산책 및 소원탑 쌓기, 오세암 상영
백양사	2/18~20	참사랑 마음세우기	선석원 관람, 소원 탑돌이, 사찰음식만들기 외
금선사	2/18~22	설연휴 자율체험형	스님과의 다담, 염주 만들기, 연등 만들기, 소원지 쓰기, 타종 체험, 108배, 명상
신흥사 (완도)	2/18~22	장보고 '설날' 템플스테이	새해 장보고 타종, 108 행복염주 만들기, 반야심경 사경, 스님과의 차담
용화사	2/18~20	도망가자! 절로~	떡국공양, 미륵산 포행, 스님과의 차담, 한지연꽃 만들기
보경사	2/18~20	희망의 설날 템플스테이	산수진경 내연산의 설날 희망 걷기, 떡국 공양, 차담, 새해소원세우기, 희망탑돌이
축서사	2/18~20	쉬고 쉬고 설도 쉬고	설 특별식 만들기, 통알세배, 윷놀이, 성불도놀이
범어사	2/18~20	쉬고, 쉬고 또 쉬고	스님과의 차담(휴식형)



"화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사진은 마곡사 걷기명상 모습. 〈관련 기사 5면〉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캠프-화 어쩌란 말이냐'가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월 30일~2월 1일 진행됐다. 41명의 참가자들은 화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글 · 사진=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성보관리 지원 나섰다

항온항습 경비 지원 및 전문가 교육…총 예산 5억 6000만원

지난해 문화재청의 전수조사에서 문화재 소장처의 관리부실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불교중앙박물관이 불교문화재 관리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문화재 소장처의 애로점이던 항온항습 비용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진행되며, 총예산 5억 60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이 항온항습 경비 지원에 사용된다.

2014년 문화재청 전수조사에서는 불교계 문화재 다량소장처(성보박물관) 35곳 중 21곳이 관리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대부분이 항온항습 환경 부실을 지적받았다. 당시 본지 조사 결과 평창 월정사 연 3억여원, 고성 옥천사 연 4천만원 등 소장처의 항온항습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본지 2014년 9월 18일자 1010호 1면 보도)

불교중앙박물관은 "사찰을 비롯한 소장처의 재정부담으로 성보관리에 있어 필수조건인 항온항습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곳이 많았다"며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경비 지원에 앞서 먼저 연 2회 소장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정비 대상 4곳을 선정해 손상 유물 응급포장 등 환경개선도 실시한다. 항온항습 가동 비용 지원은 성보박물관협회 운영위 추천 하에 3단계로 등급을 나눠 차등지급된다. 방식은 대상선정기간인 1,2월을 제외한 10개월 분의 전기료 지급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박물관 학예사 및 사찰 스님 등 소장처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전문관리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교육은 서울경기권과 충청권 등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연 2회 실시된다. 교육실시 후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재교육이 실시된다. 또 성보박물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1회 실시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인총림 방장 선출 준비 본격화

해인사, 선관위에 '3월 7일 산중총회 개최' 보고

조계종 前 종정인 법전 대종사의 입적으로 방장을 잃은 해인총림 해인사가 최고 어른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월 30일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선해)측으로부터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7일 열기로 했다"는 요지를 보고 받고 요청한대로 산중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제24교구 선운사도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7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선운사는 2월 11~17일 거주승 신고를 거쳐 23~25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운사 차기 주지 후보로는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 前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총장 법경 스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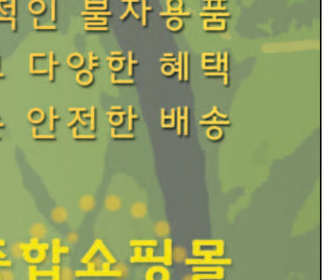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보궐선거와 비구니 대표 재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탄원 스님과 지현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능직 2석과 후보자 사퇴로 선출하지 못한 비구니 대표 1석은 3월 9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입후보자 등록은 2월 16~18일에 이뤄진다.

1031호 INDEX

연중기획 12·13
광복70년 불교 70년
② 고승

화엄만다라 16·17
강원선우회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www.withbuddha.co.kr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태고종, 법원 판결에도 장기화 조짐

집행부 "승소, 즉각 퇴거" vs 비대위 "다시 종회 열어 불신임"

선암사 소유권 두고 조계종과 갈등 재점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태고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서 승소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즉각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재가결하는 등 태고종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월 2일 도산 스님이 신청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에 대해 "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지난해 10월 7일 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의결 후 10월 2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서 중앙종회법 상 소집절차 위배 및 보궐선거 생략에 따른 결원상태에서의 불신임 결의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임시중앙종회가 종연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하기로 결의한 것도 무효이며 이에 따라 도산 스님의 총무원장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태고종 집행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대위 측이 즉각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청사 점거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만일 물러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2월 5일 신촌 봉원사서 제118회 중앙종회를 소집해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의원 57명 중 비대위측 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회서 총무원측 종회의원 16명에 대한 제명 안건도 상정 처리했다. 또한 비대위측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재추인했다. 태고종 집행부 측은 "불법으로 열린 종회는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태고종 비대위는 2월 3일 성명서를 통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므로 항소 하겠다"며 "종단은 사회법보다 종헌종법이 우선하므로 청사 안에 있는 스님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직전인 2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한국불교전승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동반 퇴진을 제안했으나 비대위측에 의해 거절당했다.

한편 태고종의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태고종 총본산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태고종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선암사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로 등기된 데 대해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1월 29일 직지사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37회 회의에 참석해 태고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2월 5일 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회장 도광)는 선암사서 종단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비대위가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고종 집행부도 선암사서 '선암사 수호 결의대회' 를 개최한데 이어 비대위도 선암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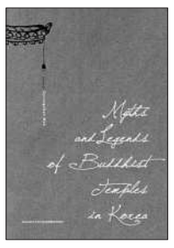
영어로 만나는 한국 사찰 설화와 전설

종단협, 한국불교 소개 영문 책자 발간

한국불교 사찰에 담긴 설화와 전설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영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은 한국불교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책자인 〈Myths and Legends of Buddhist Temples in Korea(한국 사찰의 신화와 전설)〉을 최근 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한국불교 소개 책자 발간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종단협은 7회 사업의 주제로 전통사찰의 설화를 선정해 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가 저술한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조계종출판사)〉를 원본으로 번역과 감수를 거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책은 크게 4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국 전통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문화 에피소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슬기롭게 가꾼 절집, 감응으로 나투신 불보살과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의 역사를 영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종단협은 영문판 〈한국 사찰의 신화와 전설〉을 2000부 발간했으며 협회 회원 종단을 비롯해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해외 한국사찰, 종립대 도서관, 주한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 출토 문화재, 사찰 소유권 인정 받나

문화재청, 개정 매장문화재법 시행… 소유권 분쟁 실마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매장문화재법이 1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발굴문화재 소유권 분쟁 해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출토유물 판정 과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신 문화재 · 법률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시행은 불교계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불교계는 2006년 양주 회암사, 2013년 평창 월정사 출토 문화재를 두고 문화재청과 소유권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진관사에서 출토된 272점의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 귀속을 결정하며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진관사가 국가관리 사찰이었으며, 1908년 이후 대중

문화재청장이 유물 소유권 결정
법률 · 역사 등 종합 검토 가능해
발굴조사 활성화 대비 주문도

사찰이 된 점을 들어 국가소유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와 진관사는 판단 근거가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문화재위원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원소장처 역사와 법률 등 종합적인 소유권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은 당사자들과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진관사 출토 유물관련 의견 요청서를, 진관사에는 출토 유물 보완자료를 각각 요청했으며, 총무원과 진관사는 9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총무원 문화부는 사찰 승탑이나 부도 등에서 나온 문화재와 역사적 연속성이 명백한 사찰 내 출토문화재에 대해 사찰 소유를 명시하는 조항 추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과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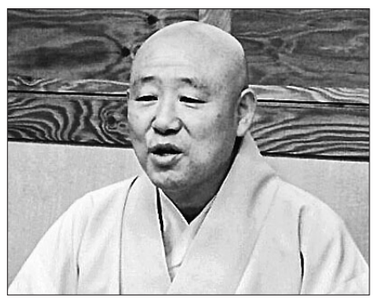
안재호 동국대 교수는 "개정안 시행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매장문화재 전문 발굴조사연구기관은 83곳에 이르는데 13곳의 국가유관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이 운영한다. 발굴조사기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요건"이라고 말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앞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불교계의 관리 능력 배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계는 불교문화재 소유권 주장과 함께 그 가치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나선다

주지 원명 스님 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총본산 성역화위한 복장불사
스토리가 있는 국화축제 추진
연꽃축제 · 신도 포살법회 신설



조계종 총본산인 종로 조계사가 생전예수재를 문화재 등록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관련 학술대회를 5월 중 개최한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성역화 사업 중심에 있는 만큼 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은 2월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찰 운영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사는 올해 사업 기조로 '친절하고 행복한 조계사!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로 정했으며, 종단의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의 5대 결사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 기금 조성이다. 지난해 조계사는 성역화 사업 출범 당시 불사 기금 100억 원을 약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대웅전 삼존불 금강경 복장불사를 1차로 시작한다. 현재까지 63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안에 40억 원을 모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 1차 복장불사 마감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이와 함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들어간다. 선행 사업으로 오는 5월 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정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성운 동국대 외래교수가 '의례 예문에서 본 생전 예수재' 를,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의례연구소장 혜일스님이 '무형문화로서의 생전예수재' 를, 구미래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민속학적 측면에서 본 생전예수재' 를, 성청환 동국대 불교대학 연구교수가 '조계사의 생전예수재' 를 주제로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前 조계종 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서정매 부산대 교수, 이재수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여한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가장 불교적 의례"라면서 "스스로 닦아내는 신행적 불교의례로서 의미가 크며 조계사의 생전예수재는 그 형태가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전예수재에 대한 경전적 근거와 조계사 생전예수재에 대한 근대 역사적 사료도 이미 확보했다"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월 23~30일에는 스리랑카 마하보리수 묘목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기증받기 위한 불교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수행결사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입재한 금강경 일만독송 법회와 12월 시작한 초하루 포살법회를 이어가며 △불교대학 학생 대상으로 봉사학점제 운영 △지역염불 봉사 △권역별 걷기명상 △생명살림 법회 등을 통해 신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계사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은 가을 국화축제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주제는 '금강경' 으로 조계산을 상징하는 육조혜능 선사 등으로 장엄한다. 또한 오는 7~8월에는 연꽃축제로 더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이제는 문화포교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불교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계사도 한국불교와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문화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광 스님 문제 논문 표절 · 중복게재 판정

동국대 5일 본조사 결과 발표
일각 윤리위 공정성 의혹제기

동국대 연구윤리위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표절의혹 논문 30편 중 2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동국대는 2월 5일 연구윤리위(위원장 박정극) 본조사 회의 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30편 중 2편은 표절, 28편은 중복게재 판정을 받았다.

연구윤리위는 "전반적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 혐의가 큰 편"이라며 "국내외 판례와 사례 연구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그 혐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의 핵심논지 구성과 흐름, 각주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방식이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타인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 검증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동국대 연구윤리위의 절차 위반 등을 들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동국대 학부 · 대학원 총학생회는 2월 3일 토론회를 열고 총장 선거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총장 선출이 강행된다면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총장명의 불교학전공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과정	교육기간	수업시간	동국대학교 총장학위명	비고
불교학전공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문학사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주중(학년제)과정	3년	주 2회 (월,화) 10:00~17:00		
	타전공학위과정	1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48학점 이상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모집일정
- 원서접수 마감일 : 2015.2.27.(금)
-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 접속 → 학점은행제 클릭 → 해당전공명 클릭 → 입학지원 클릭 → 입학원서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 입학원서 출력
방 문 접 수 •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방문 후, 원서접수 평일 10:00~16:00 / 토요일 10:00~16:00 (방문 시 사전 연락)

■ 문의 및 상담 : 02-2260-3730

총장명의 경영학, 아동학, 체육학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학위수여 명의	과정	교육기간	개강일자	문의	비고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2260-8801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아동학전공	문학사	주말특별과정				
체육학전공	체육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3729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음악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	음악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8802	교육부 장관명의

※아동학전공 :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시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가능한자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월 2일부터 마감 시 까지
- 원서접수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독학사학위과정

모집전공	모집구분	개강일자	입학문의처	비 고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컴퓨터과학 • 법학과 1단계 교양과정	주중반	2015. 3.2(월)	02)2260-8842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 및 학사편입 가능

평생교육과정

모집구분	과정구분
특별교육	현대인상학최고위과정, SNPE 바른자세3P최고위과정, PIA(탐정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PSA(상조마케터) 최고전문가과정, APP(에스테틱)최고위과정, 노후설계 전문가강사양성과정, 동국학부모대학, TESOL과정
역량개발	스포츠레저, 골프지도사, 비만체형관리사, 실용무용, 스포츠방송CF모델, 스포츠패션모델, 스포츠무용, 스포츠지도사, 요가필라테스, 유아아동체육, 트레이너운동처방사, 생활체육
민간자격증	가요전문지도사, 명상심리지도사, 풍수인테리어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 차명상지도사, 마인드케어지도사, 예술심리상담사, 인성교육지도사, 웃음행복코치
음악교육	음악실기(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플루토,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가요강좌, 찬불가 힐링스쿨
마인드힐링지도사	마인드힐링지도사 통합과정(6기, 7기 신입생), 방과후차명상지도사, 위빠사나 마음관찰
동양철학	김동완사주명리학, 인상과 개운, 육임, 성명학(감정 및 작명), 미래예측사주명리학, 미래힐링사주명리학, 역리한자 한문
불교문화	명상지도전문강사과정, 선무도&선요가, 불교무용, 불교의식실용반, 불교미술, 기본한문, 불교한문

원서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

현대인 마음치유 미술 만다라가 뜬다

템플스테이, 동국대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요즘 색칠하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대형 서점에는 컬러링북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카페나 도서관에서는 컬러링북에 색칠하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직장인 최수진(33 · 여)씨는 컬러링북을 서점에서 구입해 잠자리모양의 그림에 색연필 하나하나 바꿔가며 색을 칠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색칠하기에 몰두한다.

최 씨는 "컬러링북을 구입해 시간 날 때 색칠하고 있다"며 "색칠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날 힘들었던 일도 잊게 되는 것 같아 자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줘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링북 색칠하기는 불교의 '만다라'에서 유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다라'는 고대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원(圓)'을 뜻하며 예로부터 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그림으로 여겨졌다. 현대에 와서 정신의학자인 '칼 융'에 의해 만다라를 통한 치유의 힘이 재발견돼 심리치료에 적용됐다. 현대에서도 만다라를 색칠하거나 그리는 등의 미술치료는 이미 명상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만다라를 비롯한 단청 채색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컬러링 메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라믹으로 만든 사찰모형과 동자승, 탑 색칠하기를 비롯해 단청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하다. 최근 컬러링이 마음치유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템플스테이 채색체험을 담당하는 태허스님은 "컬러링 메디테이션은 참가자들이 세라믹 토이와 단청이 그려진 손수건에 색칠을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마음이 들뜨거나 번뇌가 생길 때 색칠을 하면 기분이 전환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컬러링…만다라에서 유래
칼 융이 심리치료에 적용
스트레스완화 · 정신안정 도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컬러링 메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라믹으로 만든 사찰모형과 동자승, 탑 색칠하기를 비롯해 단청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하다.

한국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원장 김영옥)은 산하에 마음자리 그림숲 센터와 마음자리 미술관 등을 운영한다. 마음자리 그림숲 센터에서는 '마그마힐링'이라는 만다라 미술심리치료에 기반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마음자리 미술관은 예약방문으로 작품관람을 하고 만다라 일일체험 및 만다라 워크북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김영옥 원장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지쳤을 때 만다라를 감상하며 직접 그려보고 색칠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 원장은 "만다라를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밝아진다. 보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며 "만다라를 그리며 강한 에너지를 집중할 때 마음의 갈등과 분열된 정신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서울시내 초중고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도 '만다라색채심리상담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3월부터 15주간 만다라심리상담 이론 ·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 동아대 평생교육원도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을 열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해피만다라를 통해 대중들에게 행복한 만다라를 알려온 동휘 스님(홍천 여래자 주지)은 종로구 인사동에 해피만다라 문화원을 운영 중이다. 해피만다라문화원은 만다라법륜대학과 금강대법연무관 등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특히, 만다라법륜대학은 동휘 스님의 해피만다라이야기 법문강의와 지도, 만다라 수행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반야심경 등 불교경전 강의도 진행된다.

이밖에 주요 사찰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소금만다라, 만다라 그리기, 단청 칠하기 등 다양한 색칠활동이 마련돼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사회역할 키워 종단 발전방안 강구할 것"

조계종 불교사회硏, 여론조사 · 이슈보고서 발간 등 신년 계획 발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립 근거가 될 일련의 주요 사업들을 전개, 내년 연구소 설립 5주년을 앞두고 관련 연구를 갈무리 한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과 사회윤리교재 〈불교사회〉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이슈 보고서도 3번에 걸쳐 발표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2월 5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불교와 사회현실 진단을 통해 종단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1년과 2014년 실시했던 '한국의 사회 · 정치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 분석해 종교계 여론 변화 흐름을 짚고 이어 7월에는 타종교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모두 불교계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쓰인다.

법안 스님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조사결과를 축적, 올해 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 환경 등 사회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 담긴 사회윤리교재 〈불교사회〉도 올해 말 초안이 완료된다. 〈불교사회〉는 동국대, 승가대, 강원 등에서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재로 활용가능하다.

사회현안에 대해 종교계 참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현상 보고서(가칭)'도 간이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종단 핵심 사업인 사부대중 100인공사에서 다뤄지는 의제와 종책등도 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찰예결산서 제출 실태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찰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한 관련제도 정착 방향을 모색한다.

연구소가 얼마 전 사찰 양극화 해소법으로 제시한 교구 중심제에 대한 연구도 계속돼 11월에는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승가 간화선 수행체계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며 불광연구원과 함께 초중고 사회교과서 불교 오류 검토 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한다.

종단 행사에서의 일관된 의전 기준을 담은 보고서는 11월 공개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진행중인 호국불교 연구사업도 지속된다. 북한 보현사에서의 서산대사 남북합동 제향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자료집과 논문집 역시 계속 발간된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호국불교연구 사업 결과물인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3〉과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밀양 표충사表忠寺 표충사表忠祠〉를 같은 날 공개했다. 표충사는 사명유정, 청허휴정, 기허영규 스님을 배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갑사 표충원 편을 간행한다.

조선시대 여러 승장을 배출한 옥천사가 소장하고 있던 문서를 집중 발굴, 정리한 호국불교 자료집에서는 조선후기 승려는 역(役)의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군역(軍役), 역역(力役), 잡역(雜役) 등에 동원되며 국역(國役)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렸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개신교의 종교배타성 갈수록 '심각'

한국갤럽, '2014년 한국인의 종교의식' 2차 자료서 드러나

개신교인들의 다른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은 2월 4일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 종교의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종교인 중 불자와 천주교 신자들은 각각 79%가 '다른 종교의 교리도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개신교인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9%만이 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신교의 경우 1984년부터 매년 배타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개신교인의 이웃종교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1997년 62%에서 2004년 53%, 2014년 49%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이웃종교 폄훼 행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개신교인은 비종교인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교인, 천주교, 비종교인의 70%대에 비해 모자란 3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불자들은 종교별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긍정률 답변에서 절대자(44%), 극락(51%), 영혼(55%), 기적(57%), 귀신(48%)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 기복적 요소에 대한 긍정률 답변 중 절대자(84년 57% · 97년 45% · 2004년 37%, 극락(84년 44% · 97년 43% · 2004년 36%) 등은 감소추세였지만 2014년 대폭 늘었으며, 귀신(84년 38% · 97년 55% · 2004년 44%), 영혼(84년 53% · 97년 54% · 2004년 51%) 등은 2014년 IMF 당시인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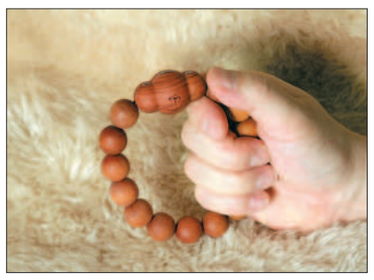
감성 IT기술, 찬불가 · 독경 재생 염주 출시

감성과 IT기술이 접목된 디지로그형 '염불단주'가 개발됐다.

경희대 관광대학원 안경모 교수가 제작한 '염불단주'는 모주(母珠)를 누르면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찬불가와 화암 스님의 독경이 나오도록 제작된 염주다.

'염불단주'는 기혈을 소통시켜 심신안정과 정신집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침향목으로 제작됐다. 화암 스님(경기도 포천시 동화사 주지)의 '천수경, 관음정근, 반야심경' 등과 불교음악 작곡가 박범훈(중앙대 명예교수)의 '찬미의 나라, 탑돌이' 음원이 내장돼 있다.

안 교수는 "염주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님의 독경소리와 찬불가를 듣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개발 이유를 설명하며 "생각하는 구슬로 번뇌를 소멸한다는 의미를 지닌 염주를 통해 사회 갈등과 반목, 불신도 털어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경희대 안경모 교수가 제작한 염불단주. 모주를 누르면 찬불가와 독경이 재생된다.

배현진 기자

불교인권위 사형제 폐지 촉구 발벗고 나서

2월 5일 신년 계획… 국회의장, 각 당대표 면담 추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올해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선다.

인권위는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인권을 살리는 데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정무정이 행복의 동반자라는 것을 통해 평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은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개인적 아상이 확대되면 독재가 되고 이는 곧 무자비한 폭력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 인권 존중에 활동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우선 사형제 폐지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심수에 편지, 그림, 경전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교도소 교화활동을 전개하며 제2차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일 주 문



설맞이 떡국 대중공양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19일 도선사 후원으로 2500명 제소자 전체에게 을미년 설날 떡국 대중공양을 한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6기 졸업식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2월 11일 서울 법련사에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 6기 졸업식을 진행한다.



2015 파라미타 정기총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2월 7일 동국대 상록원 교수식당에서 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흥사 화재예방 캠페인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월 29~30일 화재예방 켐피인 일환으로 지역 내 노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 '순간 순간 불조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7회 불교문화상품전 전시회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은 2월 28일까지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제7회 불교문화상품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02)2031-2000



제5회 리틀붓다 합창단 정기공연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2월 7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제5회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ARS 후원전화 개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2월 5일 복지재단 ARS후원전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ARS 후원은 1666-5401이다.



장학금 2억 4천만원 기부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1월 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 2억 4천만원을 기부했다.

BBS 불교방송 전진수 PD 별세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라디오편성부 전진수 PD가 2월 3일 오전 9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남궁미영(인천 안남고등학교 교사) 씨와 아들 전재성, 전재원씨가 있다.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모친상

이동격 현대불교신문사 부장의 모친 빈영순 씨가 2월 5일 새벽 별세했다. 발인은 2월 7일 엄수됐다.

"대장경 대중화 원년으로 삼을 터"

대장경 각 학교에 보급하는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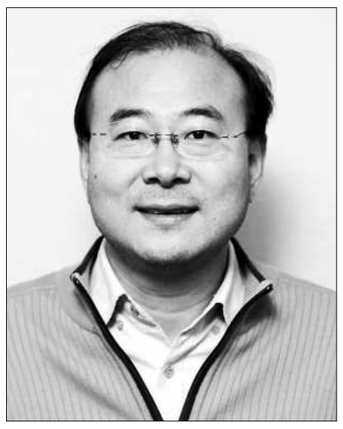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은 문화재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지식의 정수로서 의미도 큽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대장경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보급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창립 이후 대장경 연구에 매진해 온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가 체험학습용 목판 학교 보급 등 대장경 대중화에 나선다.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은 2월 5일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국공립 · 사립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의 효사상 고취와 함양을 위해 목판 〈부모은중경〉과 〈삼강행실도〉 각 1판을 목판으로 복제해 일선 학교에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범 소장은 "이제는 고려대장경이 어떻게 활용돼 왔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대장경 대중화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원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 前소장 종림 스님에 이어 고려대장경연구소를 맡은 이지범 소장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산 증인이다. 이 소장은 1984년 대학 입학 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1993년 종림 스님을 은사로 출가, 그 때부터 고려대장경 전산화에 뛰어 들었다. 환속 후에도 조계종 사회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에서 실무를 보며 불법홍포에 앞장섰다. 2009년 12월부터 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부모은중경〉 등 학교 30곳 전달

전문강사 파견 후 체험학습도 진행

대장경 기록관 등 상반기 추진 예정

이번 학교 보급 목판은 GKL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지만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 불교계의 후원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연구소는 참여 신청을 받은 후 30개 학교를 엄선해 목판 보급과 함께 전문강사 파견 후 체험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퇴색된 우리의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핵가족화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 돼있는 아이들의 심성치유 차원에서도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학교에서는 종교색이 드러나면 안되기에 〈부모은중경〉 등 효사상과 관련된 경전을 채택했다. 많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불교를 비롯한 우리전통문화를 배우고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대장경연구소 사업계획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대장경 기록관 건립 등 연구소 자료의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기반이 될 회원 모집 등도 계획 중이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2차는 추후 공지한다. 문의 및 신청은 고려대장경연구소(www.sutra.re.kr)로 하면 되며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estjeon@sutra.re.kr)로 보내면 된다. (02)926 - 8144

노덕현 기자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언론 만들겠다"

미디어 붓다 신임 대표 법타 스님

"불교 언론은 신문, 라디오에서 TV, 인터넷 언론으로 시대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불교 언론이 잘 돼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이번이 불교를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 〈미디어 붓다〉의 새 대표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그간 〈미디어 붓다〉는 동출 스님을 위원장으로 30여 스님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정 등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안정적 재정 지원과 회사 발전을 위해 법타 스님에게 대표직을 제안했고, 스님은 이를 수락했다.

법타 스님은 2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소회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스님이 운영의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포교 · 신행 · 문화 언론이다.

"불교계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둠을 거두기 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야무진 비판은 하겠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과 대안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밝은 면인 신행과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타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미디어 발전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불교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21세기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발전해야 불교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반자고 도반입니다. 함께 정진합시다."

신성민 기자

팔만대장경 지켜낸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영결식 공군장으로 엄수, 국립현충원 안장

6.25 때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폭격으로부터 지켜낸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사진〉이 2월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의 영결식은 공군장으로 엄수됐으며, 지난 4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에는 제1전투비행단 등을 맡아 미군의 해인사 일대 폭격명령에 "1400년 된 문화재를 한 줌 재로 만들 수 없다"며 출격을 거부했다. 예편 후 에티오피아 대사,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지냈고, 1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남 2녀가 있다.



노덕현 기자

수불 스님 부산BBS 사장 취임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부산BBS불교방송 신임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BBS불교방송은 2월 1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관에서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고 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수불 스님은 이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인류 공영의 새로운 언론 문화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경주캠, 라오스서 해외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김의창)은 1월 10~15일, 24~29일 2차에 걸쳐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라오스 비엔티엔 근교의 캉카이 초등학교와 나 초등학교에서 학교 울타리 설치, 배수로 공사, 교사 지붕교체, 실내외 페인트 작업 등의 활동을 비롯해 초등학생들과 문화, 예술, 과학 등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김의창 동국대 경주캠 참사람봉사단장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봉사단에 참여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동국의 진면목을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故백남준 9주기 추모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29일 법왕루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불교신자였던 故백남준 선생의 9주기 추모재를 개최했다.

추모재는 불교식 천도재 형식으로 봉은사 신도, 백남준 선생 한국측 대리인 도로시남(백스튜디오 대표) 비롯한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3월 5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5 마음챙김캠프-화 어쩌란 말이냐' 가 1월 30일~2월 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에 화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화의 성질을 알고 화를 털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구름이 흩어지듯'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마가 스님. 유서를 작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을 가졌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스스로 존귀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마가 스님이 개발한 '스마일 밴드'를 붙인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 알아차린 순간 저절로 사라집니다"

자비명상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 캠프'

1월 31일 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2015 마음챙김 캠프' 에 참가한 40여 사부대중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구름이 흩어지듯' 이라는 과정을 진행하는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의 지도에 따라 참가자들은 죽기 직전 10분을 상상하며 유서를 작성했다. 미워한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며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유서를 다 작성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한듯 허공을 향해 눕고 눈을 감았다. 자신의 삶이 10분 남았다고 생각하니, 욕심 내고 화 내고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 참가자들은 앞으로 웃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스마일 밴드' 를 얼굴에 붙였다. 그리고 억눌렸던 분노를 다 쏟아내듯 찬불가수 김무한 씨의 라이브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다. 화는 그저 머물다 사라지는 것. 찌들었던 몸도 마음도 신나게 춤추며 모두 털어내고 나니 화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가슴에 맺힌 스트레스도 날아가 버렸다. 새롭게 태어난 듯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그들의 표정은 어느새 활짝 갠 날씨처럼 밝아졌다.

1월 30일~2월 1일 '2015 마음챙김캠프-화 어쩌란 말이냐' 에 참가한 41명은 2박 3일간 화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화의 성질을 알고 그것을 털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 설정까지 그야말로 화의 총체적 관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한 마가 스님은 "우리는 화에 사로잡혀 그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은 '화' 라는 감정이 결국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과정이다. 화라는 것은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후회하고 알아차리면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갇혀 있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고자 한다" 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째 날인 1월 30일에는 자기긍정명상과 타인긍정명상, 춤 테라피 '활화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튿날인 1월 31일 오전에는 108배 · 걷기명상, 현명호 건강심리학회장(중앙대 교수)의 '분노조절' 강의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문진건 동서양심리학 박사의 '화 테스트' 강의도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분노 자가진단테스트' 와 '자존감 테스트' 등을 통해 분노 지수를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 박사는 강의를 통해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는 사람이고,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 라며 자기애와 자존감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어 문 박사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낮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되고 타인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남의 칭찬과 자신의 비판을 무서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할 줄 안다" 고 전했다.

40여 사부대중 모여 '화' 의 원리 배워
춤 · 명상 · 유서 작성 등 마음 치유 체험
"자존감 높고 자기애 낮아야 타인 존중"
2~12월, 월1회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

문 박사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분노조절이 어렵고 한번 꺾이면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버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 회복을 연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박사는 "매사에 자신의 일과 역할에 감사해야 하며 일에 대한 재미와 기쁨을 느껴야한다" 며 자존감 회복의 방법을 설명했다.

한성일(49) 씨는 25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해 이번 캠프에 참여했다고 말한다. "직장 상사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내 아집과 고집을 보았고 내 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내 일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며 소감을 전했다.

2월 1일 마지막날 오전에는 '화' 다스림 명상이 진행되었다. 마가 스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 즉 카르마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는 정견을 가져야 된다. 이를 통해 화를 바라보면 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며 화의 원리를 설명했다.

스님은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는 "자신의 화를 잘 바라보고 상대방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며 "또한 그만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이 곧 미래가 된다고 말하는 스님은 현재의 나의 행동, 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스스로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포항에서 온 박창언(62) · 서휘경(53) 부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한다. 박 씨는 "화를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습해 나가겠다.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 며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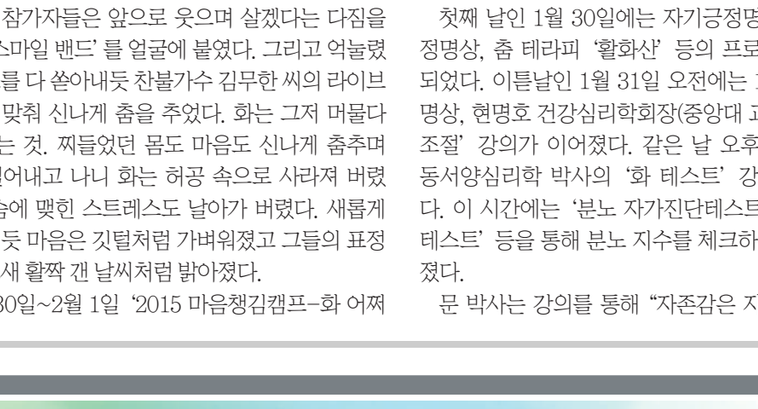
이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진행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6명 씩 나뉘어 무대 위로 올라가 합장하면 마가 스님이 발원문을 읽어주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원문에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이며 상대의 슬픔과 아픔 외로움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기' 를 발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혜옥(56) 씨는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 잣대로 이해하려하는 습관이 강했다. 앞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연습해 나갈 것" 이라며 화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강영애(62) 씨는 "그동안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상대를 탓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기준대로 남의 말을 듣고 또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속적으로 화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 했다.

앞으로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캠프' 는 △2월 불안(24일~26일 확정) △3월 갈등 △4월 돈 △5월 상처 △6월 다이어트 △7월 죽음 △8월 자녀 △9월 부부 △10월 퇴직 △11월 사랑 △12월 꿈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 참가비는 50만원이며 선착순 100명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3666-0260

공주=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기적의 파스요법 저자
파스 한장으로 만인을 구제하는
남산큰스님



판매가 : 1팩 10,000원
※ 3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아픈 부위에 책자를 보고 붙이시면 됩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상담 잠 못 이루는 분 ·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분
백방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는 분 · 무기력한 분
우울증이나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

개인상담 자식 · 부부 · 사업 · 조상 · 부동산
창업 · 취직 · 승진

대구일정 일시 : 2015. 2. 12(목) ※매주 목요일
장소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37-4 (지하철 만촌역 지하1층)

부산일정 일시 : 2015. 2. 13(금) ※매주 금요일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29 (장전지하철역 3번출구안)

예약전화 080-300-9928 ※사전예약 하신분만 친견이 가능합니다.



저 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 기혈수비법 / 기적의 파스요법 / 수족온욕법 / 대변이경 外 다수

약 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몽골 정기스칸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강해시 안만 치료재활 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 연구소 소장 / 現 몽골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밀양 천태산 천태선원 선원장 / 現 아치의과대학교 의학부사

주문전화 080-300-9928

방영 : MBC 화재집중 / 놀라운 세상 / SBS 호기심천국 / 모닝와이드 / KBS 건강365일

혜안 스님,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 개설

3월 19일 개강…초기불교 명상법 체계적으로 배워

초기불교명상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새로 생긴다.

신불사 불교명상센터(주지 혜안)는 부처님 당시 행해지던 초기불교명상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2기 불교 명상 입문 과정-혜안 스님의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개설한다.

오는 3월 19일 개강하는 이번 과정은 매주 목 ·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강의 과정은 △불교명상이란?-불교명상의 이론과 원리 및 실습 △호흡명상의 기초- 호흡명상의 이론과 방법 및 실습 △호흡명상 심화-명상 장애와 극복방법 및 질의응답 △일상생활에서의 명상-일상에서 알아차림, 원리와 방법 △걷기명상이란? △자애명상이란? △명상의 태도와 유의점 등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세계적인 명상지도자인 아잔 브람의 저서 〈놓아버리기〉를 번역한 혜안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혜안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청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태국과 미얀마, 스리랑카 등에서 수행했다.



이번 강좌는 세계적인 명상지도자인 아잔 브람의 저서 〈놓아버리기〉를 번역한 혜안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혜안 스님은 "불교명상은 스트레스나 우울, 무력감, 불안감 등 많은 고통을 제거하고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며 "불교명상의 이런 효과는 과학 · 의학적으로 검증돼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현장에서도 심신을 치유하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 불교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배워 삶속에 실천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231-4494

이나은 기자

"덕 · 지혜갖춰 바른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공불련,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 내원정사서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월 31일~2월 1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2015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 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불련 임원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불자회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원들은 입재법회와 특강, 임원회의, 절수행 및 자비명상 시간을 가졌다.

첫날 입재식에서 김상인 회장은 "이곳에 모인 공불련 임원들이 회원들을 챙기느라 바쁘겠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불자로서 스스로 신행활동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며 "하루 30분이라도 고요히 정진해 나를 살피고 이번 임원연수를 통해 기도 정진해 덕과 지혜를 갖춰 바른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지산 스님의 '붓다의 행복론'을 주제로한 강의를 들었다. 스님은 "자기를 바로 보는 자가 세상을 바로 본다. 자기를 바로 보고 나의 가치를 눈뜨는 시간이 되어 세상의 주인이 돼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임원회의를 통해 공불련의 발전방향과 2015년 일정에 관해 논의했으며, 내원정사 지일 스님과 수안 스님의 지도에 따라 1080배 절수행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회원들은 자비명상시간을 가진 뒤 모범 불자공무원으로 함께 수행정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발원하며 회향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월 31일~2월 1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2015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 를 열었다.

'청춘' 은 아픈걸까… 우리에겐 불교가 있다

우리는선우 청년회 1월 31일 발족… 2월 14일 첫 법회

'아픈 청춘' 에 대한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요즘이다. 서울시 청년 10명 중 1명이 '백수' 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소위 고스펙으로 불리는 학생이 서류 문턱에서 21번이나 탈락한다는 기사가 톱기사를 차지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높은 등록금, 학력 인플레이션 등이 청춘의 청춘스러움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삼포세대란 말도 이제는 지겹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불교를 통해 행복을 찾고자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선우 청년회다.

우리는선우 이사장 유필화 교수와 한성대 불교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이기향 교수는 1월 31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창립식에서 유필화 교수는 "청년들이 행복해져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진다. 석굴암, 한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들은 모두 불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우리가 불자임에 자부심을 갖고 불교중흥을 위해 열심히 활동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는선우 청년회는 유필화 교수의 제자들과 한성대 불교동아리에 몸담았던 청년 20여명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초대회장은 김민지(마인드디자인 대표)씨가 맡았으며, 매월 1회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사실 우리는선우 청년회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가신행 공동체로 모범을 보여 온 우리는선우는 지난 1994년 청년회를 창립해 기도와 교리공부 위주의 단순한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사회봉사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우리는선우 청년회는 불자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들의 불교 관심 부재로 잠시 침체기를 맞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우리는선우 이사장 유필화 교수와 한성대 불교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이기향 교수 부부는 1월 31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1994년 창립후 침체기 거치며 중단
청년불자 인재육성위해 재 창립
청년 20여 명 참여… 월1회 모임

지난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필화 교수는 취임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기법회와 군포교, 상조회, 청년회, 영어경전공부,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년회 발족도 유 교수와 제자들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25세부터 40세까지 대학생, 미술학도, 뮤지션, 보석디자이너, 광고기획자, 회사원 등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불교가 좋지만 불교를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또래가 없거나, 혹은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신행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로 이번 청년회 발족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민지 회장은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신행단체가 부족해 아쉬웠던 찰나에 우리는선우 청년회 모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며 "조금은 무거운 불교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한나 씨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 불교가 익숙하긴 하다"며 "어른이 되고 여러 일을 겪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이런 청년회 모임을 통해 같은 또래가 편안하고 쉬운 불교이야기를 하면 도반으로서 격려가 되고 도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은 간단한 먹을거리와 와인 등이 마련돼 가볍게 저녁만찬을 즐기는 파티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모임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 보다는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는 이기향 교수의 생각에서다. 회원들은 각자 불교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 모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눴다. 우리는선우 청년회가 청년신행 모임이기도 하지만, 서로 친목을 다지고 불교에 대한 재미를 찾아가는 모임으로 꾸려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년회는 우선 2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에 있는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첫 청년회 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때 임원들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3월 21에는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해 근교로 엠티를 갈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회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와 같은 SNS 연락망을 통해 소통하며 '하루에 한 시간은 스마트폰 멀리하기' '하루에 두 명이상에게 행복 빌어주기' 등 일상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수행을 함께 실천하고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민지 회장은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설법을 통해 가르치셨다"며 "우울과 불안이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는선우 청년회를 통해 마음도 쉬고 도반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 고시 시행

3월 14일 서울 · 부산서… 2월 27일 접수마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불교어린이 · 청소년지도자 발굴을 위해 '제9회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제7회 불교청소년지도사 고시' 를 시행한다.

시험은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부산은 금정중학교에서 진행된다. 전형방법은 자격고시는 서류전형, 필기고시, 면접 및 실기고시로 진행되며,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실기고시로 진행된다.

응시자격 기준은 어린이지도사는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 졸업자 등이며, 청소년지도사는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종립대학 불교대학원 교과과정 이수 취득자 등이다. 특별전형을 응시할 경우 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 종단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교원자격 취득 등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자격요건은 홈페이지 참조)

필기고시는 불교상식과 어린이청소년 포교일반 범위에서 다뤄진다. 면접은 인성 및 기본예절, 사회 · 신행활동, 어린이 · 청소년포교활동 위주로 본다. 실기부분은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진행, 동화구연, 찬불동요(손유희) 중 한 가지를 택해 보게 되며 목탁습의는 필수다.

접수마감은 2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은 3월 20일 발표된다. (02)2011-1903

이나은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회

2월 5일 전국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70여명 참여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임원 및 전국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앙신도회장의 주요 참가자 소개를 비롯해 중앙신도회의 사업영상 상영 등 사업보고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전국 불자들이 힘을 모아 한국사회에 기여해 불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각성 큰스님 "대승기신론" 특강

1 일 시 : 2015년 3월 9일(월) ~ 13일(금) 오후 2시
2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3 특강비 : 일십만원정 (₩100,000원)
4 "승려연수교육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 부과



고운사 템플스테이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일상을 떠나, 건강챙김에 대한 욕구로 자연과 어우러진 템플스테이 참여와, 자연식 절밥을 체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고운사에서는 속세에서 지친 심신의 재충전과 우리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어 행복한 힐링의 도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 가족 및 개인 휴식형 템플 - 상시운영
2 사찰음식체험형
3 단체 맞춤형 템플

의상대사의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로 가는 길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 지원자격 :
◇ 본방생(2년) :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비구 (201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포함)
◇ 청강생(2년) : 통학이 가능한 비구 · 비구니, 신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 모집인원 : 본방생 ○○명, 청강생 ○○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3월 2일(월)까지 〈직접 또는 우편접 수가능〉
■ 면 접 일 : 2015년 3월 2일(월), 오후 2시
■ 면접장소 :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 입 학 식 : 2015년 3월 9일(월) 예정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3×4) 5매
■ 강 사 진 : 각성큰스님, 화랑스님, 지광스님 (상주강사)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강 의 료 : 청강생 1학기 사십만원 (₩400,000원) 교제비 별도
■ 문 의 처 : 054)833-2324(고운사 종무소) WWW.GOUNSA.NET (고운사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다운로드 가능)

고 운 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번지) ☎ 054)833-2324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 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천도재. 49재 의식 등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염불과 조가집전… 상주 혼자일때 큰 도움

염불자원봉사단 활성화 필요성 높아져

살아서는 불자, 죽어서는 가톨릭?

왜 하필 장례염불봉사일까. 상갓집에 가면 액운이 묻는다고 꺼려하는 마당에 몇몇 불자들은 장례식장만 찾아다니며 염불 봉사를 고집한다. 많으면 한 달에 5~6차례나 영안실을 찾는다.

"가톨릭에서 하는 장례미사는 차분하고도 격조있게 거행되더라구요.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그들의 장엄한 의식이 부럽다고 개종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이나,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이나 그들 모두 불교 장례의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단 생각을 늘 했습니다."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유심화 보살은 불교도로서 이웃종교의 장례의식을 부러워하던 중 염불봉사단이 있단 이야기를 듣고 봉사단에 가입하게 됐다. 불법의 수승함을 평생 신실하게 따르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인연이 다하면 고이 반야용선을 탈 수 있도록 축원해 주고도 싶었다.

유 보살은 3년 전부터 활동해왔지만 조계종 염불봉사단이 생겨난 것은 지난 2009년. 벌써 300여명이 단원으로 등록했고 실제 활동인원은 50여명 정도다. 이들은 요일별로 6~10명씩 나뉘어 활동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 팀별로 움직인다. 보통 장례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영결식장을 찾아 장엄염불과 조가 등을 집전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빈다. '고운님 잘가소서',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의 추모곡을 부를 때는 유족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마련이다. 30여분에 불과하지만 고인을 추도하는 의식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인다.

조성희(38)씨는 장례식장을 찾아와 준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덕에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지인만 참석한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혹시나 쓸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봉사단원분들이 좋은 곳 가시라고 염불과 노래로 영가길을 꾸며드리는 걸 보고 뿌듯했다"며 "평소 집과 절 밖에 모를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지녔던 어머니께서도 도반들이 정토왕생을 빌어줘 흡족하셨을 것"이라고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염불자원봉사단의 역할은 망자축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09년 3백여 회원으로 출발
요청시 요일별 6~10명씩 팀별활동
네트워크 절실…상장례 표준화 과제

신도들 중에서 상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꼭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을 찾는다는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은 "염불봉사단을 통해 위로받는다고 말하는 유가족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상주가 혼자인 경우는 의미가 더 각별하다. 유족들에게 집단애도의식은 슬픔 · 미련 등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별의식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봉사단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현재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 일부로만 한정 돼 있다. 때문에 지방에서 염불봉사단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돌려보내야만 하는 처지다.


불자 탤런트 선우용녀씨가 지난해 6월 부군상을 당했을 때도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이 현장을 찾아 애도했다.

햇수로 7년째 접어든 봉사단이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아직 전국단위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홍보는 아무래도 사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님들이 염불봉사단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 아직 관심을 덜 기울이는 탓이다. 재가자가 염불의식을 집전하는데 대한 거부감 역시 스님들 사이에서 높다는 것도 염불봉사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봉사단 지도법사 무관 스님은 "염불봉사단의 역할은 오로지 장례식장에서만 염불과 조가로 애도하는데 그칠뿐 일부 스님들이 염려하듯 입관, 발인, 화장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며 "결코 시다림하는 스님의 역할을 잠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의식을 집전한다면 염불봉사단은 보조를 맞춰 장엄염불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올해 적극 홍보활동에 나설 생각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해 전법단 등 각 조직 단위마다 봉사단을 알리고 각 지역에서 단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염불봉사가 신행문화로 정착돼 종래는 각 지역 사찰 염불봉사단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장례 의식 표준화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다. 정해진 의식과 절차가 없다보니 사찰마다, 의식을 집전하는 이들마다 순서도 인사법도 다르다.

봉사단의 또 다른 지도법사 도영 스님은 "장례식장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독경할 수 있는 염불 모형, 예법 등이 있어야 한다"며 "불교 장례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보편화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례 의식 표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조계종 의례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작업을 올해 안에 이뤄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부산 남구 불교, 소외이웃에 쌀·기금 전달

2월 2일, 1천3백만원치 부산 남구청에 기탁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500만원 상당의 쌀 100포대와 성금 800만원을 2월 2일 부산 남구청에 전달했다.

기금은 지난해 12월 2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소외 이웃 돕기 하루찻집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는 하루찻집에서 모금된 기금으로 설날을 앞두고 소외이웃에 뜻깊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 수석부회장 화랑스님(동명불원주지), 사무총장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감사 능후 스님(공덕원 주지)을 비롯해 각 사찰 신도 임원들과 부산 남구청 이종철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는 부산시 남 · 수영구 불교연합회에서 분구해 2013년 10월 재창립했다. 이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하루찻집을 개최해왔으며, 소외 이웃돕기를 위한 연탄 나눔 등의 자비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배현진 기자



2월 2일 부산 남구 불교연합회가 남구청에 소외이웃 돕기 쌀 100포와 성금 8백만원을 전달했다.

역삼수련관, '달달한' 행복 음악회

2월 13일 수련관서…16일에는 서울대 견학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제가 열린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가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과 구민을 위한 행복한 수련관 음악축제'를 2월 13일 오후 3시 역삼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진행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소프라노 벨라 정, 테너 김현호 씨 등이 참석해 발렌타인 데이를 주제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

수련관 측은 "발렌타인 데이라는 기념일을 테마로 마련된 무대인만큼 초콜릿 같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남녀 듀엣곡과 피아노 3중주곡을 지역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지역사회 소회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모금,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지난 1월에는 영화 OST를 테마로 음악회를 열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도 매월 1회 다양한 테마로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로 견학을 떠날 예정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역삼청소년수련관 음악회.

학교캠퍼스와 교내 학과를 둘러본 다음 학교 역사와 학과 종류,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재학생과의 만남도 준비돼 있어 진학과 대학생활에 관한 전반적 궁금증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다.

2월 1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중 · 고등학생 40명을 모집한다.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나래꿈터 홈페이지(http://www.ysnarae.or.kr)에서 받는다.

센터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목표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02)550-3625

배현진 기자



막바지 겨울…그래도 따뜻하게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등유, 쌀 등을 전달했다. 지난 1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봉사자 34명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39곳에 총 3백만원 가량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2가구에는 연탄 5백장이, 4가구에는 가정용 등유가 각 20만원치 지급됐으며 35가구에는 쌀 20kg 한 포대씩이 전달됐다. 재단측은 "겨울 난방비 부담을 가진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진복지관, 사회적 기업 참가자 모집

카페 사랑의 와플하우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광진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에서는 카페 '사랑의 와플하우스'에서 일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카페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카페 근무자를 우대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개점했다. 음료와 와플 등을 파는 소규모 카페로 전문 커피 로스팅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제공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 (02)466-6242


사랑의 와플하우스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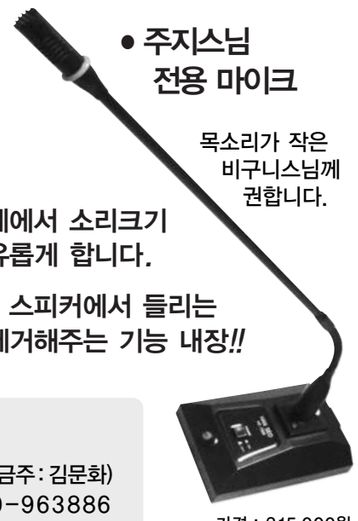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설정 이사장 설진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덕
종회의장 혜명
종회부의장 해조
경기북부의원 자운.자명
경기남부의원 도선
경남동부의원 설봉
경남서부의원 정각
전북남부의원 혜원
강원동부의원 선주
충남북부의원 설해
인천남동의원 혜림
인천남부의원 보경
총무부장 도선
규정부장 도의
문화부장 해성
포교원장 해조
이사 설정 혜명 해조 도선 지산
감사 자명

종도 입종을 환영 합니다
◆구비서류 : 등본 2통
◆사진 : 3장 ◆이력서 : 1통

종 도 일 동

한국불교정토종이 새롭게 태어 납니다

총무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95번길10-1(계산동) 덕수사 / 전화 032)543-2693

“일념으로 화두 들어 참 성품 찾아야”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월 2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화두 참선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조계종은 간화선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가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 수행을 하다 헤매기도 한다. 25년간 승속의 수행자에게 간화선을 체험시킨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간화선은 뼈저리게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누구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눈 밝은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끝까지 일념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수불스님은 …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노스님 시봉 및 제방선원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부산과 서울에서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 서왔다. 현재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다. 저서로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선해(禪解)〉 등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날을 기념해, 오늘 우리 함께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재일 전날로 여러분께서 화두를 들고 철야 용맹정진을 하시기 때문에, 비록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심스럽지만 한 번 마음을 내어서 ‘화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으로, 우선 화두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철이면 한 철, 일 년이면 일 년, 길어야 삼년 안에 결판을 봐야 하고, ‘그 이상 화두 들고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화두는 금생에도 들고, 금생에 깨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까지 화두를 놓지 말고 의심해야 한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제가 한 말과 상충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두는 죽어서도 들어야 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각인시킨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화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화두를 드는 시절인연이 열리면, 그때 결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의 지도하에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혼자 화두를 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화두에 대한 공부인연을 제대로 맺는 것이 화두를 올바르게 드는 것입니다.

보통 화두를 강조하기 위해 “평소에 늘 화두를 챙겨라.”, “화두를 늘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까닭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인이 화두만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다보면, 화두에 매몰되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에게 화두 받아야

제가 알고 있는 간화선은 뼈저리게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화두를 간택해서 참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선지식과 함께 하면 더욱 좋고,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화두를 드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 선지식한테 화두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화두를 잘 들고 있는지를 점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점검을 받아서 시간낭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혼쭐이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화두를 3년, 5년, 10년 들었습니다.”라는 소리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화두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는 말 그대로 ‘의심’ 입니다. 조사선에서는 화두라는 개념을 정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정형화되면서, 공안에 인연되어 일어난 의심이 곧 ‘화두’ 입니다. 그러므로 ‘화두’는 말 그대로 의심이어야 합니다.

화두 의심은 성품을 자각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근원을 살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입에 사탕만 물고 있는 것처럼 화두를 물고서 계속해서 굴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화두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잘 안 되면, 다른 화두를 받아서 또 입에 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화두는 활구(活句) 화두가 들려져야 하고, 사구(死句)를 들고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활구’는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의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구’는 죽은 화두로서, 억지로 붙들어서 살려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공부입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숨이 다 끊어진 것은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백날 천날 붙들고 있어봐야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그런 실질적인 의심을 해야 ‘참의심’에서 나아가 활구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두가 들려지면 동중일여, 몽중일여가 되고, 그 단계에서 화두일념이 됐을 때를 보임(保任)이라고 합니다. 즉 화두 의심에서 보임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나름대로 세속과 연을 끊고 공부에 진력하는 것을 보임이라 하지만, 그것은 참다운 보임이 아닙니다. 보임은 화두 의심 속에서 이어져야 보임입니다. 화두가 맹렬하게 들려져서,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올 때까지 화두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조계종 수행의 근간인 간화선
생사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행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누구에게나 큰 힘 가져다 줘

눈 밝은 선지식에 화두 받아
기간 정해놓고 참구하며 점검받아야

화두는 성품 자각 위한 의심으로
생명 실상이 무엇인지 눈뜨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구해야

화두는 짧게 들수록 좋습니다. 또 화두를 들기 위해 ‘면벽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면벽이란 눈앞에 보이는 벽이 아닙니다. 진정한 면벽은 정신적인 벽으로, 눈앞에 가로놓여서 꽉 막는 ‘의심덩어리’ 입니다. 화두가 들려지면 그 의심을 따라서 앞을 꽉 가로막는 벽이 나타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 지속적으로 의심하면 할수록 은산철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든, 화장실 갈 때든, 화두 의심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벽이 눈앞에 가로놓아져 있어서, 공부가 될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심’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 벽을 마주하고 공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의심을 들고 의심하게 되면, 그런 벽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100°C로 끓을 때까지 하라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큰 가마솥에 물을 넣고, 100°가 될 때까지 장작불에 풀무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이 50°, 60°,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면 풀무질 하는데 힘이 듭니다. 90°에서 100°로 올릴 때, 말도 못하게 힘이 듭니다. 그때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0°가 지나면 비등(沸騰)이 되어서, 물이 튀기도 하고 막 끓는 모습이 제법 100°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100°를 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100°가 끓어 넘치게 되면, 언제 끓었나 할 정도로 물의 비등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는 끓는 모습이 없어지고 고요해서, 이게 100°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비등점을 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비등점을 넘어 물이 거울같이 평평해졌을 때는, 자기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시절인연이 다가옵니다. 아주 명징해지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할 적에는 방해도 받고 도움도 받고 온갖 변화가 화두 드는 속에 있지만, 화두에 의지해 끝까지 방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의심해 나가면, 결국에는 맑고 고요한 상태에 들게 됩니다. 시절인연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100° 끓어 넘치게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까 70°, 80°쯤 가서 힘이 드니 좀 쉬었다 하자 하고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심나면 다시 애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환자는 의사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화두를 들 때는 곁에 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 없이 낫겠다고 몸부림 쳐봤자,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요행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명의를 만나게 되면 그 분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처럼, 눈 밝은 선지식을 가까이 했을 때 화두 의심도 제대로 들 수 있고, 나아가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참선다운 참선을 해본 적이 없게 됩니다. 이름하여 참선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두참선이 어렵다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냥 쉽게 호흡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내려놓고 생각 끊고 고요하게 있으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힘든 화두 참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화선 공부를 제대로 알고 공부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나 큰 변화와 힘을 가져다주는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두를 든 사람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의심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의심인가?” 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 가운데, 경계는 고요하고 바깥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안에서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화두가 들려지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 이게 화두가 들려지고 있구나 하면서 혼자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두를 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화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 나도 모르게 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여기에 속으면 공부는 끝입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두는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두가 맹렬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선지식이 호법을 서줘야 합니다. 본인이 그 화두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화두가 활발발해지는 그런 현상을 직접 체험하도록, 선지식이 강하게 화두를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화두를 한 번 물면 끝까지 늘어져서, 이가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화두 의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말고,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을 만난 것이 굉장한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의 정법을 믿고, 생사를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재일을 맞아 여러분도 심기일전 용맹정진 하셔서, 활구참선의 일미(一味)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CHANNEL 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매주 화요일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접수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템플스테이 이제는 고객만족도 신경 쓸 때"

외국인 비율 정체에 재참가 의사 10%대 사실 드러나

2002년 월드컵 당시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 문화자원화를 위해 도입된 템플스테이가 정체 현상에 직면한 가운데, 재참가율이 매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익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2월 6일 한국관광학회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국대에서 공동주최한 '韓스테이와 한류 식문화의 가치 조명' 세미나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 정체 및 외국인 비율 하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템플스테이의 지난 1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김창익 상무는 "이미 국내 대표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불교문화체험을 통한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2004년 4만명에서 2013년 19만명으로 지속 성장했으며, 2014년 누적인원이 12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하지만 2011년 이후 참가자가 정체되고 있으며, 외국인 참가자의 비중도 2010년 12%에서 매년 같은 수준으로 역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는 낮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장에서는 10% 정도를 재참가하는 이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참가한 이들을 관리하는 기반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김창익 삼일회계법인 상무 분석 공개

실무자 근속년수 낮아 전문성 떨어져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하락

김 상무는 이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상위사찰과 하위사찰 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상위 20개 사찰에 51% 인원이 몰리고, 역시 재참가 또한 이들 사찰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사찰 고유의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활용한 개성있는 특화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해 사찰별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 현황 (출처:삼익회계법인)



김 상무는 "현행 템플스테이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기본형과 불교문화체험형, 휴식형이 63.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다각화를 주문했다.

김상무는 이어 템플스테이의 운영인력의 낮은 근속기간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김 상무의 자료에 따르면 운영인력 중 지도법사 중 71%가 2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상 대부분이 일반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실무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년 이하 근속기간이 76%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상무는 "보통 주지스님 변경시 지도법사와 실무자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며, 역량에 대한 대우나 역량계발 기회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재 "템플스테이의 재원은 대부분 국고로 충당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참가자들의 재참가율 향상이 필요하다"며 "템플스테이는 2008년 서울관광대상 '최우수여행상품상', 2009년 OECD 선정 세계 5대 문화관광상품, 2010년 국가브랜드위 선정 '한국대표 10대 아이콘'으로 꼽혔지만,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학전공 첫 모집

동국대 평생교육원(원장 박경준)은 2월 27일까지 2015학년도 불교학 전공 학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학 전공과정은 주말특별과정(2년 15주, 주1회 토요일 진행), 주중 학년제 과정(3년, 주3회), 타전공학위과정(1년 15주, 주1회 토요일 진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와 연구경력 5년 이상 박사진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초기불교, 한국불교사 등 전공필수 7과목과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빨리어기초, 중국불교사 등 전공선택 25과목 등 33개 과목이 개설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기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자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02)2260-3730

노덕현 기자

고려고찰 '사뇌사' 연대 1035년으로 올라가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중인 '사뇌사' 연대가 적힌 청동 그릇

국립청주박물관은 1월 29일 1993년 청주시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을 재조사해 사뇌사 연대가 1035년이라고 밝혔다. 1993년 청주시 사직동 용화사 앞 무심천 주변에서는 480여점에 달하는 고려 시대 불교 관련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학계는 이 유물 가운데 124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청동금고에서 '사뇌사(思惱寺)'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고 1226년 사뇌사 하안거에서 설법을 한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행적이 기록된 문헌을 통해 '사뇌사' 터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학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물의 정확한 제작년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청주박물관은 2013년부터 재조사에 착수해 당시 발견됐던 유물 중 명문이 새겨진 16점에 대한 판독작업을 벌여 청동접시 1점에서 '太平十五年乙亥四月日造思內寺彌勒호(심방변+古)子入卜四兩一目'(태평 15년인 을해 4월일에 사내사 미륵전 호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 무게가 4량짜리 한 벌이다)라는 내용을 판독했다. 태평 15년은 1035년으로 연대가 더욱 올라간다.

국립청주박물관 측은 "'사뇌사'가 이전에는 '사내사'로 불렸으며 미륵전(또는 미륵불)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명희 학예연구사는 "앞으로 지역 불교사찰과 출토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수륙재 간소화로 전통성 상실된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 원장 미등 스님, 고려대 논문에서 밝혀

진관사와 삼화사 수륙재 지정 후 세월호 수륙재 등 수륙재가 불교계 사회행사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전통성 보존에 대한 입장이 제기됐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미등 스님〈사진〉은 최근 고려대 박사논문으로 '한국수륙재의 의례와 설행양상'을 발표했다. 2월 6일 논문공개를 겸한 자리에서 미등스님은 "한국 수륙재의 경우 의례문의 계통분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단형태와 설행절차를 다루다 보니 의례 설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선시대 간행된 수륙의례문의 계통을 규명하는 한편, 한국 수륙재의 형태와 특징 등 정체성을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 스님에 따르면 한국 수륙재는 의례와 절차, 설단의 과정에서 중국 등의 수륙재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독특한 의식으로 가치가 높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퇴색되고 있다.

미등 스님은 "오늘날 수륙재에서는 풍백우사단이 설단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으며, 의례의 절차에서도 '시련'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설행시간도 근현대까지 밤 시간에 설행되던 수륙재가 오늘날에는 낮 시간에 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이어 조계종 출범 이후 60여 년 동안 의례의 전승에서 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륙재의 의식이 간소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등 스님은 이어 현대에 설행되는 수륙재의 분류를 △사찰 주관의 정기설행 수륙재 △불교종단 주관의 특수목적 비정기 수륙재 △특정 단체의 문화행사 일환 수륙재로 분류했다. 정기설행 수륙재로는 동해 삼화사, 서울 진관사, 마산 백운사의 수륙재가 꼽혔으며 비정기 수륙재로는 2013년 단양 방곡사와 대구 도림사에서 설행된 수륙재,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서울 조계사에서 설행된 수륙재를 예로 들었다.

이어 문화행사로의 수륙재는 전남 여수 진남제와 전남 영광 법성포단오제, 충남 부여 백제문화제 수륙재 등을 예로 들었다.

미등 스님은 "최근에는 수륙재가 문화콘텐츠로 자리하며 이면에 의례의 훼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철저한 의례의식에 대한 점검 만이 수륙재의 본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차별, 정화운동 이전엔 없었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 일본의 비구니 종제 비교 분석해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위상을 비교해 비구니 권익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사진〉은 〈대각사상〉 22집에 실린 '근 · 현대기 한 · 일 비구니의 존재양상에 대한 시론적 고찰'에서 비구니계의 결집과 종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스님은 먼저 "해방 이후 정화운동 후 종헌 개정 과정에서 법계 승서에 단계별 고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승려법은 승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차별없는 법계제도였다"며 "하지만 통합종단이 형성되고 법계법이 들어서며 '비구니법계는 별정급이며 비구와의 서열은 율장에 의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승니의 법계와 칭호가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심지어 종단 원로 및 각 원장 자격은 '비구'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조선불교 종헌에는 볼 수 없는 승려차별이다"라며 "정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구니 측에 본사격인 동화사, 선암사, 개운사 주지를 발령했지만, 이는 잠시였다. 이후 94년 개혁 당시 비구니들이 불평등한 종단 제도 개선도 요구했지만 이유없이 외면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혜원 스님은 일본불교의 비구니 차별 철폐의 사례를 들었다. 스님에 따르면 일본불교계는 근대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자체 개혁을 단행한다. 1946년 종교법인령이 공포돼 승니 평등제도가 완전히 인정되고 차별이 철폐됐다. 이는 근대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확립요구와 지위향상을 위해 3회 열린 '전국니승대회'가 발단이었다.

혜원 스님은 "종령변화과정에서 한일 양국 비구니계는 불균등함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차이는 결속력과 공유된 각성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결과 율의에 의거한다는 팔경계가 보편의식으로 고착되고 구습의 차별의식이 잠재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혜원 스님은 끝으로 "비구니들은 종령에 대한 자각과 이를 개선시키는 결집력, 그리고 청원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비구니의 종단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질 수록 비구중심주의로 인한 문제점은 심각해지며, 이로인한 결과 또한 비구니계의 책임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 MOU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1월 21일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浙江省 社會科學院)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교류협정에서 절강성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향후 5년간 천태법화사상의 중심지인 중국 절강성 지역 불교의 과거와 현재 및 한중불교교류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우선은 양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며, 양 연구소와 절강성 불교협회 등이 협력하여 절강성 불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제40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학회장 신규탁)는 4월 30일 출간 예정인 〈한국선학〉 제40호 원고를 모집한다.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까지다. 초과시 초과게재료가 부과되며 150매 이상시 게재가 불가하다. 접수는 3월 15일까지며 게재요령은 한국선학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논문투고 시스템 JAMS를 통하면 된다.

논문심사 및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 30만원, 일반논문은 전임 20만원, 비전임 10만원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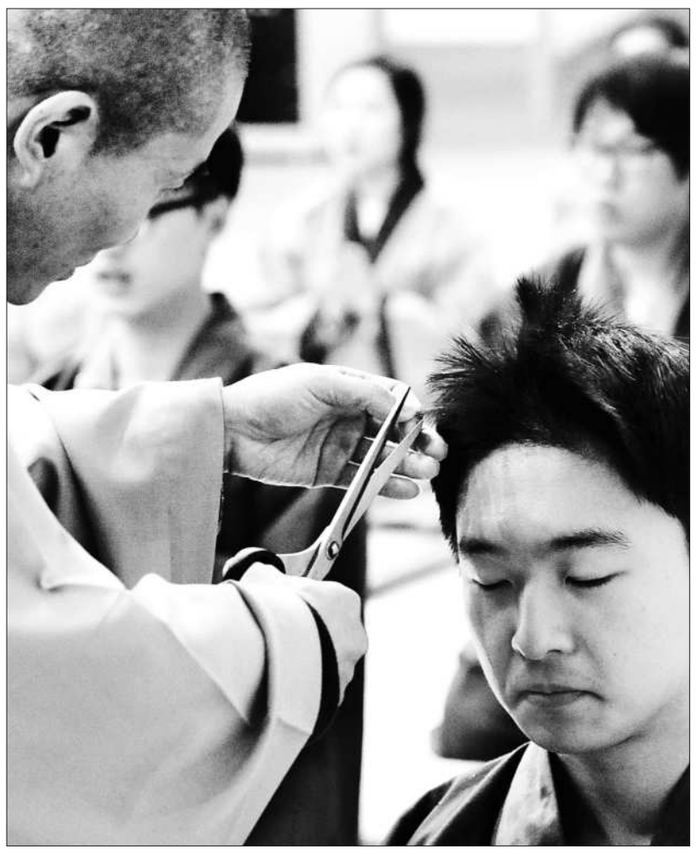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정식 삭발은 아니지만…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서 2월 4일 열린 청년 마음출가학교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 8박 9일의 기간을 감안해 삭발이 아닌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2일까지 예불, 참선, 발우공양 등 수행자로의 삶을 익히고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자현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의 지도 하에 다양한 불교교육을 받는다. **노덕현 기자**

성종사, 대만 최대 범종(33톤) 제작 화제

대만 명선사 범종, 2012년 대만 불광산사 범종 제작 이은 신기록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범종 제작업체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33톤 범종을 제작해 화제다. 2012년 대만 불광산사의 대만 최대 범종 수주에 이어 새로운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성종사 범종은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톤(8800관)으로 대만 타이중의 사찰 명선사(明善寺)로부터 2013년 주문받은 것이다.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불광산사 범종 25.5톤보다 7.5톤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명선사는 2012년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로 제작한 불광산사 범종을 보고 매료돼 성종사에 이번 범종을 주문했다.

명선사 범종 제작기간은 약 18개월로,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 역대 조사(祖師) 70명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낸다.

성종사 대표 원광식 종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은 "문양이 매우 섬세하고 글자가 많아 지금까지 만든 어떤 범종보다 난이도가 높았다"며 "성종사 전매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이 있었기에 제작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명선사 범종은 종의 주파수를 통한 음향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진행됐다. 감리를 담당한 김석현 강원대 교수는 "명선사 범종 소리는 33톤의 중량에서 나오는 장중함과 함께 잡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음향 강도를 결정하는 2차 진동음의 맥놀이가 매우 선명해 지금까지 제작된 30톤 이상의 초대형 범종 중 가장 소리가

대만 · 중국 · 베트남 등 해외진출
한국전통 밀랍주조기술 활용 쾌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56년에 설립된 성종사는 세계 최대 범종 제작업체로 국내 최대 범종인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의 '세계 평화의 종'(37.5톤)과 '보신각 종', 'LA우정과 평화의 종' 등 7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주요 사찰과 지자체의 범종을 만들었다. 경북대종(영덕군), 보신각종(서울 종로), 충북 천년대종(청주), 새천년 시민의 종(목포) 등이 성종사가 만든 범종이다.

성종사는 창사 초기 교회종과 학교종까지 제작했지만 2대 사장인 원광식 주철장이 3년간 수덕사에 머무르며 범종을 제작한 것을 계기로 범종 전문 제작사로 전환됐다. 1960년대 들어 사찰에서 종 주문이 늘며 사찰을 중심으로 범종을 제작해왔다.

성종사는 1999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2010년 태국 방콕 지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대만 등에도 진출했다.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불교권 국가가 주요 수출 국가다.

원광식 주철장은 2000년 대한민국 명장(名匠)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1년 주철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 범종 전문가다.

열일곱 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범종 제작을 전수 받은 원 주철장은 1973년 회사를 물려받아 범종 제작의 맥을 이어왔다.

1969년 작업 도중 쇳물이 튀어 한 쪽 시력을 잃기도 한 그는 1997년 전통범종 제작 기법인 밀랍주조법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고, 2005년에는 새 밀랍주조법을 개발해 특허까지 냈다. 자신이 만든 범종 150여점을 기증해 2005년 진천군이 국내 첫 종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종 박물관 옆에는 2012년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세우고, 주철장 기술을 전수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대만 명선사 범종을 끌어안고 있는 원광식 주철장과 아들 원청수 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립 금산중 축구부, 창단 2년만에 전국 재패



전북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 축구부가 창단 2년 만에 전국축구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4년도에 창단한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창단 1년만인 올해 첫 대회인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 37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대회 결승에서 거제 동부중학교와 연장 혈투 끝에 3:2 짜릿한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경남 김해의 장유지역과 진영지역의 2곳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금산중학교는 예선경기에서 결승까지 치른 6경기 동안 29골을 넣는 등 경기당 4.8골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3학년이 없는 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기에 임한 이날 결승전에서 금산중은 먼저 실점했지만 곧 바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며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 후 시상식에서는 금산중학교 이용국(2학년)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상, 라덕용(2학년)이 득점상, 그리고 이요셉(2학년)과 유찬형(2학년)이 각각 수비상과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강금철 감독은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영석 교장 선생님은 시상식 후 "축구부 학생들의 열의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함께 경기응원을 위해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국각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축구부원들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사찰 입춘 맞아 불교단체에 자비행



입춘을 맞은 광주지역 사찰들의 나눔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밭' 500만원을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증심사 주지)에 지정기탁을 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 백혈병 환우치료비에 사용된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밭 기금은 절 1회당 10원씩을 적립하여 500배, 1000배 기도로 모은 것이다. 자비의 밭 기금은 매년 1회씩 어려운 환우 치료비에 쓰인다.

전달식에서 보혜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전사는 4일 입춘기도에 올린 공양미 2000kg을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비전사는 2004년부터 '자비의 쌀' 이름으로 지금까지 총 19톤을 불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금선사(주지 일명)도 2월 4일 입춘기도에서 신도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광주지역 불교단체 6곳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신도들이 모은 치약, 수건 등 생필품과 동전 등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은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비의 쌀'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사 · 다산기념관 '체험 활성화' MOU



강진 백련사와 다산기념관은 2월 3일 양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측은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다산기념관과 백련사가 보유한 시설의 교차 사용, 체험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산기념관은 다산체험프로그램의 현장 체험 코스로 백련사를 방문해 다도, 대응보전그림찾기, 사찰음식체험 등을 진행해 왔다.

각 체험은 백련사 주지 일담 스님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체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다산공직관 교육에도 다도체험을 반영, 백련사와 연계한 체험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광주시민 위한 클래식 산사 음악회 '눈길'

지역주민을 위한 사찰 클래식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광제사(주지 광제)는 1월 30일 미타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씨를 초청해 독주회를 개최했다. 비엔나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한 임 씨는 이날 '이자이,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6개의 소나타'를 연주해 참석한 대중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광제 스님은 "봄을 맞은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제사는 창건 11주년을 맞은 도심사찰로 작은음악회, 전통등 제작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전통燈 만들며 불교 문화 지켜 나가요”

부산연등회 1월 29일~30일 전통등 강좌 개최

30여 참가자 이론과 실참 배워
마늘등 거북등 등 전통등 재현
5월 공모전 개최 수상작 전시도





부산불교연합회 ‘2015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의 ‘전통등 강습회’가 1월 29일~30일 부산불교회관 4층 전법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은 등 제작 실습 장면, 오른쪽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만든 연등을 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전통등(燈)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부산불교가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통등 강습회’가 1월 29일~30일 부산불교회관 4층 전법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습회는 부산연등축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전통등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옛 문헌을 바탕으로 전통등을 복원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마늘등, 거북등, 북 모양의 전통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해 눈길을 끌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범어사, 미타선원, 해광사, 여래사, 선암사 동명대 불교학과 등에서 제작실무자, 각 대학 미술전공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수업은 한국전통등연구원 부현도 작가 외 5명을 강사로 초빙 이론과 실참, 품평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작기법 시연 및 실습, 전통등 보수 및 제작실습, 전통등 골조 제작, 전통등 골조와 배접, 전통등 채색 등 실질적인 제작 과정에 관한 수업으로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켰다.

범어사 신도 박명숙(49) 씨는 “그동안 범어사에서 등 만들기 봉사를 해왔지만 문헌에 근거한 전통등 만들기는 처음 시도해봤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직접 도전해보니 매우 뿌듯하다. 앞으로 전통등 디자인을 등 만들기에 적용해 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그동안 ‘부산연등축제 제등행렬 문화재 지정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번 전통등 강습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개최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4년 동안 옛 문헌을 참고해 전통등을 복원해왔으며 2015년 현재 복원한 전통등의 수가 40여 개에 이른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그리고 강습회를 통해 전통등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문서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서보인 부장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고 양식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부산불교연합회에는 옛 문헌을 통해 복원한 40여개의 전통등을 마련했고 부산연등축제 기간에 전통등을 전시하고 보급해 그 중요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등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등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모두 노력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준비했던 봉축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준비한 많은 부분을 보완해 더욱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연합회는 전통등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부산연등축제 전통 · 창작 등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5월 7일까지이며 부산연등축제 홈페이지(www.bba48.or.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출품 부문은 ‘한국 전통등과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창작등’과 ‘한국전통등과 창작등으로 손잡이가 포함된 행렬 등’이다. 입상작들은 5월 13일~26일 용두산 공원 시립미술관 및 야외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051)867-0501~3 하성미 기자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에 도심 스님

2월 1일 양산 대인사서 취임식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은 2월 1일 총본산인 양산 대인사에서 제2대 총무원장 무불당 도심 스님의 취임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운허당 연화 대종사를 비롯해 정각 도행 스님(원로원장), 법운 스님(원로위원), 현준 스님(종회부의장), 혜담 스님(포교원장), 지성 스님(호법원장), 동송 스님(비구니회장), 혜월 스님(교육원장), 정인 스님(사무총장), 윤영선 울산국회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운 스님의 국운융창 기원과 원로원장 도행 스님의 개식사와 비구니회장 동성 스님의 고불문 등이 이어졌고 1대 총무원장 보월 스님이 신임 총무원장 도심 스님에게 직인을 인수인계했다.

2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도심스님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다.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모든 종도들이 갈등과 대립을 원융의 지혜를 통해 화해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널리 구할 것이니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종정 운허당 연화대종사는 연화장 세계를 이루어 나가자고 법문했다. 스님은 “스스로 참회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염된 환경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한 구절의 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의 불공보다 뛰어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모두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대중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원로원장, 종회부의장, 호법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비구니 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장, 국장스님들도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국불교연화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에 무불당 도심 스님이 취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제 51회 졸업식 개최

2월 1일 졸업생 32명 배출

비구니 승가 교육의 산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이 2월 1일 제 5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승가대 28명과 불전대학원 졸업생 4명까지 총 32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운문사 승가대 졸업식 장면

이 자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총무국장 지원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학감 운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증서 수여는 대표로 불전 대학원 동환 스님과 승가대학 경운 스님이 각각 수여했고 치사, 상장수여, 기념품 증정 등으로 식이 진행했다.

회주 명성스님은 “유서 깊은 도량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 것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은 내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신심을 가지고 책임과 성실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살아가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보살도를 실천하는 운문인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기둥이 되어 달라”고 인사했다.

한편, 운문승가대학은 이번 졸업식까지 19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는 현재 6천여 전국 비구니스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MBSR 명상 치유로 행복의 길 찾아요”

부산 해운대 명상수련 전문도량 시선원(원장 우현)은 MBSR 명상치유 프로그램 제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사로는 K-MBSR 개발자이며 前 한국명상학회 장현갑 회장, 명상센터 시선원 우현 원장, 고려대 심리학 및 뇌과학 윤병수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교육 일정은 3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로 8주간 동안 이어진다.

MBSR 이론 프로그램은 △K-MBSR 명상의 이해 △심신의학 기본원리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법 △명상치유의 과학적 원리 △지금 이순간과 함께하기 △명상실습과 심신이완법 △바디스캔(기본, 고급) △호흡명상(기본, 고급) △자애명상(기본, 고급) △마음챙김 명상요가(기본, 고급) 등으로 구성된다. 실습으로는 △바디스캔 △호흡명상 △정좌명상 △하타요가 △수련 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초읍 불광사 만다라 제작 봉안 법회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는 티베트 모래 만다라를 제작 봉안한다. 불광사는 2월 27일 불광사 신중당에서 ‘티베트 만다라 봉안 법회’를 개최하고 천일기도에 입재한다.

이 자리에는 나성린 국회의원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하며 법문은 통도사 박물관장 지준 스님이 맡는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가며, 라오스 계몽 사업을 위한 후원에도 참여한다. 또한 봉안될 만다라는 2월 21일~27일 불광사에서 제작하며 가로 2m x 세로 2m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설날, 나눔으로 福 짓고 새해 맞아요”

부산 복지관 소외이웃 위한 나눔 행사 풍성

부산 불교 복지단체들이 소외 이웃을 위한 ‘설맞이 나눔 행사’를 마련한다.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16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 장애인 세대를 위한 ‘福슬福슬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용호복지관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 400세대를 선정, 설날 떡국거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노래 자랑대회와 국악공연 등을 연다.



용호복지관의 지난해 설맞이 나눔행사 장면

이와 함께 용호복지관은 ‘사랑의 떡국떡 판매’도 진행한다. 떡국떡은 1kg에 5천원이며 수익금은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쌀, 가래떡, 과일, 김, 제수용품 등의 현물 후원도 받는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림)은 2월 13일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 이웃 200세대를 선정하고 ‘설 정(情)나눔’ 행사를 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례 준비가 힘든 가정을 선정 떡국떡, 과일, 대추, 간식 등 제수용품들을 직접 나눠줄 계획이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소외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눔에 동참하며 마음까지 훈훈한 명절을 보내자”며 나눔 후원의 동참을 독려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현)은 ‘월동물품 나누기 및 설날 선물 나누기’를 실시한다. 이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복, 난방유, 제수용품 등 물품 후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설날 선물 나누기 행사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가정 1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16일~17일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지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염
원로위원 석보행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 충남종무원장 석청화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승

한국불교 종단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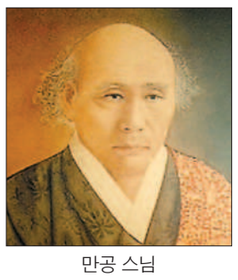
선불교 중흥… 세상의 정신적 스승

19세기 말 조선에는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물결은 일제 침탈이라는 격랑으로 바뀌었다. 당시 불교도 이런 시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허 스님은 정혜결사를 주창하며 선풍(禪風)을 진작시켜 일제 시기 불교의 정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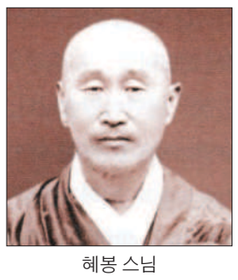
경허 스님을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꼽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경허 스님의 법은 제자 혜월 · 수월 · 월면(만공) 스님에게 이어졌고, 이 같은 명맥은 면면히 현대 한국불교로 계승됐다. 오늘의 한국불교를 만든 것은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가기 위한 스님들이 구도열과 정법 수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력과 열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간 정신적 스승인 고승들로 화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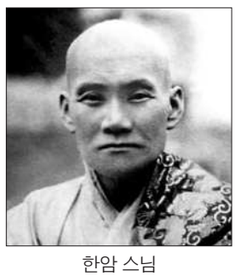
이에 본지는 해방 이후 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입적하신 고승들의 면면을 간략히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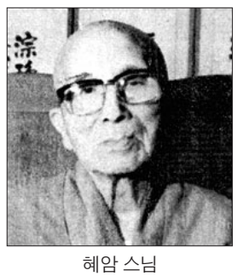
선사


만공 스님


구하 스님


혜봉 스님


한암 스님


혜암 스님


효봉 스님


동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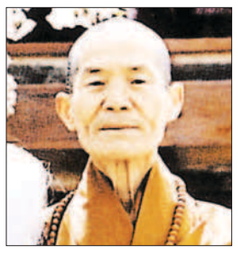

고봉 스님


춘성 스님


경봉 스님


금오 스님


전강 스님


고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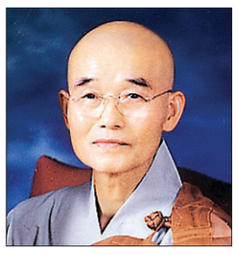

벽안 스님


구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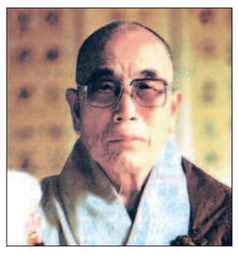

청담 스님


향곡 스님


성철 스님


혜암 스님


서옹 스님


월하 스님


원담 스님


법전 스님

선사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은 **만공 스님**(1871~1946)이다. 경허 스님에게 전법게를 받은 만공 스님은 수덕사를 중심으로 40여 년 간 선 수행을 지도하며 수좌들을 이끌었다. 또한 왜색불교로부터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학원 창립을 주도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하 스님 (1872~1965)은 질곡의 근현대사에서 변화하는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1911년 통도사 주지로 취임한 이래 통도사가 전통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출 수 있도록 건물들을 중창하고 옛 유물들을 수집해 보존하는데 앞장섰다.

근현대 선지식인 **혜봉 스님**(1874~1956)은 늦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제방 선원을 돌아다니면서 수행과 설법에 집중했고 이내 이름을 널리 알렸다. 남장사 조실로 있으면서 최초의 비구니 강원 '관음강원'을 열기도 했다.

한암 스님(1879~1951) 역시 경허 스님의 전법 제자로서 만공 스님과 함께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를 이끈 선지식이었다. 1941년 불교 총본산으로서의 조계종이 결성되자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특히 한암 스님은 6.25 한국전쟁 당시 공비 소탕을 위해 오대산에 불을 놓으려 할 때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로도 유명하다.

혜암 스님(1885~1985)은 100세가 넘도록 묵묵히 참선 정진에 몰두하면서 수행자로서 본모습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고 더욱이 덕숭총림의 초대 방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며 한국 선종의 법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선지식이었다.

효봉 스님(1888~1966)은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판사를 지내던 중 독립운동가들에게 중벌을 내리는 데 회의를 느껴 출가했다. 1954년 정화운동의 주역으로 불교 정화를 이끌었고, 1962년 통합종단 초대종정으로 추대됐다.

동산 스님(1890~1965)은 선 · 율을 겸전한 선지식이다. 용성 스님을 은사를 출가한 스님은 천불선원에서 3년 결사를 마쳤다.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에서 효봉 · 금오 · 청담 스님과 비구 대표로 이를 이끌었고 종정에도 선출됐다.

고봉 스님(1890~1961)은 현대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혜봉 스님과의 만남으로 출가한 스님은 파계사에 이르러 개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1919년 3월 8일 '대구 사건'을 일으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뤘다. 1950년 공주 마곡사 은적암, 아산 봉곡사, 대전 복전암, 서울 미타사 조실을 역임했다. 제자로는 한국불교 해외 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이 있다.

만해 스님의 유일한 제자로 알려진 **춘성 스님**(1891~1977)은 거침없는 언행과 행동,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했던 스님으로 세상에 더 회자됐던 선승이다.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본분은 무소유에 있음을 강조했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고 살았다.

경봉 스님(1892~1982)은 1925년부터 30년간 통도사 양로염불만일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53년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82세부터 시작한 극락암에서의 정기법회는 90세가 되는 노령에도 시자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법좌에 올랐으며, 매 회마다 1000여 명 이상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한시, 시조, 서예, 서화에도 조예가 깊어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금오 스님(1896~1968)은 경허 ·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어나간 고승이다. 경허의 선풍은 혜월 · 수월 · 만공 · 한암 스님에 의해 드날렸고, 보월 스님을 거쳐 금오 스님에 이르러 선림(禪林)을 이뤘다. 1954년에는 교단 정화의 선봉에 나서 비구대회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강 스님(1898~1975)은 치열한 구도행을 보여준 선사였다. 1914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전강 스님은 예산 보덕사 · 정혜사 등에서 피를 쏟고 머리가 터져가며 100일 동안 용맹정진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통도사 보광선원, 법주사 복천선원, 김천 수도선원, 광주 자운사 등의 조실을 역임했다.

고암 스님(1899~1988)은 철저한 수행자이면서 인욕과 자비행으로 평생을 살아간 고승이다. 1967년 고암 스님은 효봉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중인 조계종 종정에 추대됐지만 고사하다 수락했다. 상좌가 20살이 넘으면 존대말을 썼고, 공양주를 도맡아 하는 등 항상 하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벽안 스님(1901~1988)은 1935년 거사의 신분으로 금강산 마하연 석우 선사 회상에서 안거 후 여러 선원에서 정진하다 3년 뒤 경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경봉 스님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 그 뒤 종립학교의 육성과 후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동국학원 및 원효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구산 스님(1909~1983)은 출가 이후 송광사와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 금강산 등을 돌며 장좌불와 수행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이뭣꼬'를 의심했다. 스님은 '칠바라밀 요일'이라는 독특한 신행 체계를 만들어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 생활불교를 실천할 것을 불자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대부터 해외포교를 강조해 미국 등지에 송광사 분원을 설립하는가 하면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은 1947년 이뤄진 봉암사 결사이다. 봉암사 결사에는 성철, 향곡, 청담, 자운, 혜암, 법전 스님 등 훗날 수행으로 일가를 이루는 고승들이 대거 동참했다.

청담 스님(1902~1971)은 봉암사 결사를 비롯해 정화운동을 이끌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던 고승이다. 조계종 종정,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룸비니 한국협회 총재, 동국학원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아 한국불교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향곡 스님(1912~1979)은 경허 · 혜월 · 운봉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통을 이어 받았다. '납자를 제접하는 데에는 향곡만한 스님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키는 데 기울였던 스님의 노력은 대단했다. 법제자로는 현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있다.

성철 스님(1912~1993)은 한국 근현대사 있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고승이다. 동산 스님 문하에서 수학하며 득도한 성철 스님은 파계사에서 장좌불와 8년 정진을 하는 등 끊임없는 구도열을 보여줬다. 1967년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중들에게 100일 법문을 설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81년 조계종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되었으나 추대식에 참여하는 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발표했다.

성철 스님은 평소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잠을 적게 잘 것, 말하지 말 것, 책을 보지 말 것, 간식을 먹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 것 등을 권했다. 스님 자신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고 작은 암자에서 평생을 살았다.

봉암사 결사에 참가했던 **혜암 스님**(1920~2001)은 이판과 사판을 아우르는 선지식이었다. 1994년 종단 개혁에서 애종심의 사표가 됐고, 1998년 종단 사태와 관련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렸던 전국승려대회에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종도들의 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취임해 한국불교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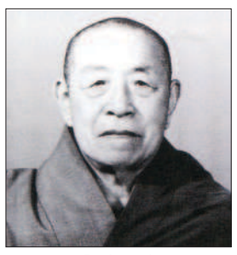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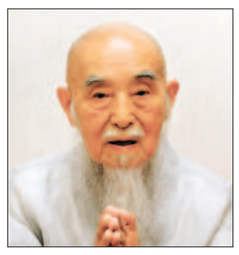
법문·문화·예술로 심성을 일깨우다

고승
한국불교
종단 70년

교육 · 역경


만암 스님


운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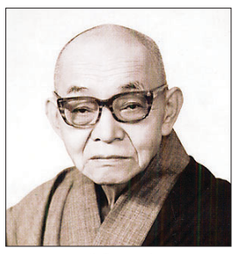

관응 스님


탄허 스님


지관 스님

포교


석주 스님


대은 스님


숭산 스님


광덕 스님


무진장 스님

율사


묵담 스님


자운 스님


일타 스님

문화 · 예술


만봉 스님


송암 스님


석정 스님


법정 스님

서옹 스님(1912~2003)은 백양사를 무대로 '참사람' 결사를 주창하며 임제정맥을 이어온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 고승이다. 1963년 동국대에 대학선원을 개원해 원장을 맡으며 참선의 대중화에 힘을 쏟았으며, 197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에 추대된다. 이후 스님은 백양사 조실(1981), 백양사 운문선원 조실(1990),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1996) 등으로 주석하면서 후학 제접과 한국불교 발전에 힘쓰다 2003년 마지막 날 백양사 설선당에서 좌탈입망했다.

월하 스님(1915~2003)은 1950년대 정화운동에 나선 이후 종앙종회 의원에서부터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종정에까지 오른 조계종 어른이었고 50안거를 기록한 이사(理事)를 겸한 선승이었다. 80세가 넘어서도 방청소와 빨래를 직접 했으며 자가용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녔다.

원담 스님(1933~2008)은 만공 스님으로부터 직접 탁마한 마지막 선승이었다. 어린 시절 절에 들어간 동진 출가자로서 천진무애한 모습을 보여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천진불' 로 꼽혔다. 또한 스님의 서예는 국내 최고의 선필로 알려지기도 했다. 제자로는 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입적한 **법전 스님**(1938~2014)은 현존하는 마지막 봉암사 수좌였다. 1956년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득력(得力)한 뒤, 1957년 33세의 나이에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제방 수행처의 정진대중들은 법전 스님에게 '절구통 수좌'라는 별호를 붙여 줬다. 2002년 조계종 11대 종정, 2007년 12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교육 · 역경

만암 스님(1875~1957)은 선과 교를 겸비하고 일찍이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해왔던 고승이다. 1929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후학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1947년 정광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또 1951년 한암 스님의 입적으로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의 새 교정에 오른 스님은 이후 종단의 분규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운허 스님(1892~1980)은 한국불교 역경사에 길이 남을 고승이다. 스님은 〈능엄경〉을 시작으로 〈무량수경〉〈범망경〉〈정토삼부경〉 등을 번역했고 1961년에는 한국불교에서 처음으로 〈불교사전〉을 펴내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1964년 역경원장과 역경위원장의 책임을 동시에 맡아 20세기 최대의 불사라 일컬어지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한글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관응 스님(1910~2004)은 선교를 겸수(兼修)하고 포교에도 남다른 원력을 가진 스님이었다. 1965년 천축사 무문관에 입방해 6년간 수행했으며, 만년에는 직지사 조실로서 후학을 이끌었다. 칠순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직지사에서 〈선문염송〉을 강의하여 후학들에게 조사어록을 해석하는 새 안목을 열어 주었다. 또 황악학림에서는 3년간 강석을 열어, 원산, 연관, 범하, 자일 등 10여명의 강백을 길러내기도 했다.

탄허 스님(1913~1983)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 도교 등 동양사상 전반, 특히 〈화엄경〉과 〈주역〉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았다. 탄허 스님은 15년 동안 한암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면서 불교내전(佛敎內典)과 선학(禪學)의 일체를 수학했다. 이후 1953년 강원도 종무원 원장과 월정사 조실을 맡은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 수도원을 세우고 동국대 대학선원, 대전 자광사 등을 오가면서 수행에 전념했다. 1972년에는 화엄학 연구소장을 맡았으며 1974년 평생을 바친 〈신화엄경합론〉을 간행했다.

지관 스님(1932~2012)은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최고의 학승이며, 교육자였으며, 총무원장을 역임한 교단지도자였다. 지관 스님은 생전에 〈치문경훈〉 〈대혜서장〉 〈도서〉 〈선요〉 〈절요〉 〈요경서설〉 〈남북전육부 율장비교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계율론〉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역대고승비문총서〉 〈가산불교대사림〉등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필생의 원력인 〈가산불교대사림〉은 현재 14권까지 발간됐으며, 스님의 입적이후에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유지를 이어 받아 편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율사

묵담 스님(1896~1982)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정을 두루 지낸 스님으로 청정 비구였다. 특히 해동칠불(海東七佛) 제9대 율사로서 한국불교 계율 수행사 자체이기도 하다. 1957년 조계종 중앙총무원 감찰원장, 1957년 조계종정(제 5 · 6 · 7세), 1975년 태고종정을 역임했다.

자운 스님(1911~1992)은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이 바탕에는 치열한 수행정진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 감로사에서 자료를 수집, 한글, 한문본 율서 4만 8000권을 간행해 현대 한국불교에서 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의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돼 1991년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계를 주기도 했다.

일타 스님(1929~1999)은 1976년 해인총림의 율주로 추대되면서 〈사미율의〉, 〈불교와 계율〉 등 계율 관련서를 발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 무너져 내린 지계정신을 다시 확립하는 데 매진했다.

포교

석주 스님(1890~2004)은 질곡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낸 고승이다. 1963년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1971년 제7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의 포교에 대한 남다른 활동은 어린이 포교로 이어졌다. 종단이 어린이 포교에 역량을 투입하지 못했던 1965년 스님은 칠보사에 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 포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은 스님(1894~1989)은 근대 포교의 기틀을 다진 선지식이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스님은 1929년 각황사(現 조계사)에서 '중앙포교사' 소임을 맡아 종단 공식 '조선불교 1호 포교사'가 됐다. 이때 가진 원력으로 〈불교시보〉를 10년간 발행하고 만주 열차에서 불교를 전하는 등 포교에 힘썼다. 해방 이후에도 알기 쉬운 경전 번역과 해설서로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했다.

숭산 스님(1927~2004)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평생의 원력을 바친 고승이다. 스님은 1966년 일본 신주쿠 홍법원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 32개국에 120여개의 선원을 개설,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으며 외국인 수행자들을 제자들로 속속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5만 여명이 넘는 외국인을 제자로 뒀다.

광덕 스님(1927~1999)은 철저한 지계를 바탕으로 평생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갈구했으며 반야바라밀 실천운동을 전개해 생활불교 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스님은 1954년 부산 좌천동 한 가정집에서 열었던 사랑방 법회를 시작으로 불광법회를 개설해 부처님 본연의 근본불교를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또 일생동안 30여 권의 불서를 번역하거나 저술하기도 했으며 각종 찬불가를 작사해 현대 불교 음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무진장 스님(1932~2013)은 포교에 평생의 원력을 바쳤다. 스님은 조계사에 머물며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불교발전과 대중포교를 위한 일에 매진했다. 조계종 제2 · 4대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뒤 대종사로 품수됐으며 2010년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평생 대중교화와 교육에 매진한 까닭에 조계종 포교대상을 비롯해 제3회 대원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화 · 예술

만봉 스님(1910~2006)은 단연 불교미술의 거장이며 당대 최고 금어(金魚)다. 스님의 기법은 색상이 유독 화려하다는 것과 초(草)가 다양하고 세밀하다는 뚜렷한 개성이 돋보인다. 스님의 손을 거친 사찰 단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특히 경복궁 경회루, 남한산성, 공주 마곡사 등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송암 스님(1914~20002)은 한국 불교 범음 범패를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월하 · 벽해 두 어장 스님으로부터 범음 범패를 전수받아 1973년 범음 범패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받는데 큰 공헌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었던 **석정 스님**(1924~2012)은 금강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스님은 서너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전국 각지의 고탱화를 돌아보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옛 탱화의 색감에 감춰진 비밀을 밝혔으며 손상된 불화들의 옛 불화들의 보존과 수리에 힘썼다. 주요작품으로는 송광사 대웅보전의 후불탱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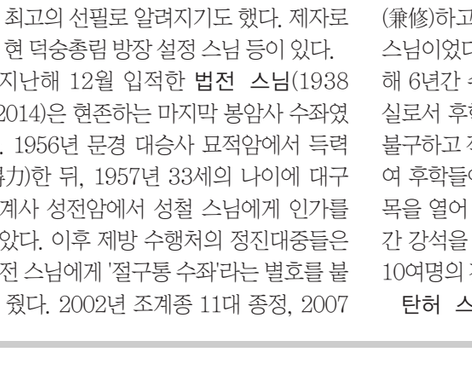
법정 스님(1932~2010)만큼 필묵 하나로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인물이 세간과 출세간을 통틀어 다시 존재할까. 스님은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을 홀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속세를 떠나 자연의 벗이 된 후,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곧고 정갈한 글을 통해 보여줬다. 스님의 저서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서 있는 사람들〉, 〈물소리 바람소리〉,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맑고 향기롭게〉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법구경)〉, 〈인연이야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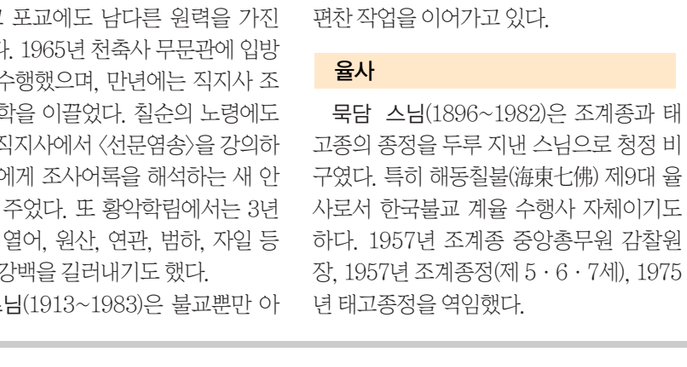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7〉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시대정신 담긴 인문주의 장엄

사도세자 능침사찰이자 승풍규정소

용주사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陵寢)인 현륭원(顯隆園;현재는 융릉)의 능침사찰이다. 왕과 왕비의 능(陵)을 '능침'이라 부른다. 능침의 가까이에서 능을 수호하고, 관리하며 제례와 명복을 두루 비는 사찰이 능침사찰이다. 왕릉주변에 입지하여 능을 수호하면서 두부(=조포)를 만들어 관에 공납하곤 해서 불교천대의 유가적 조롱으로 '조포사(造泡寺)'라 불리기도 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능침사찰이 봉은사, 봉선사, 여주 신륵사, 화성 용주사다.

정조는 정조 13년(1789년)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華山)의 현륭원으로 천장(遷葬)한 후, 그 이듬해에 갈양사의 옛터에다 능침사찰로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한다. 용주사 창건은 국왕인 정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건축 및 장엄역량이 결집된, 결과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실원당 건립이었던 까닭에 창건되자마자 전국사찰의 승풍과 규율을 감독하는 5대 승풍규정소(僧風糾正所)의 하나로 격상되었다. 정조 즉위 원년인 1776년에 전국에 걸쳐 원당사찰 철폐령을 내린 사실과는 전혀 다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다름아닌 28세 때 뒤주에 갇혀 8일만에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효성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륭원 공사시 산역(山役)을 왕이 친히 감독하고, 애절히 곡을 하였으며, 1790년 용주사 창건 이후 11년 동안 한 차례에 6,230명이 수행하는 행차에 13차례에 걸쳐 창덕궁에서 화성 현륭원까지 원행(遠幸)을 한 것만 보아도 정조의 절절한 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용주사는 부왕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孝) 실천이 집약되어 유불의 습합형태로 나타난 능사(陵寺)였던 것이다. 지금도 용주사 가람의 건축에 행랑채를 갖춘 삼문과 태극 소맷돌, 홍살문, 경희궁 화강암 석주를 연상케 하는 돌기둥, 대방(大房) 등 궁궐이나 관가적 건축요소가 곳곳에 남아있으며, 유교적 제사공간인 재각(齋閣:호성전)과 부모은중경판을 보장하고 있어 용주사 고유의 독특함을 드러낸다.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창건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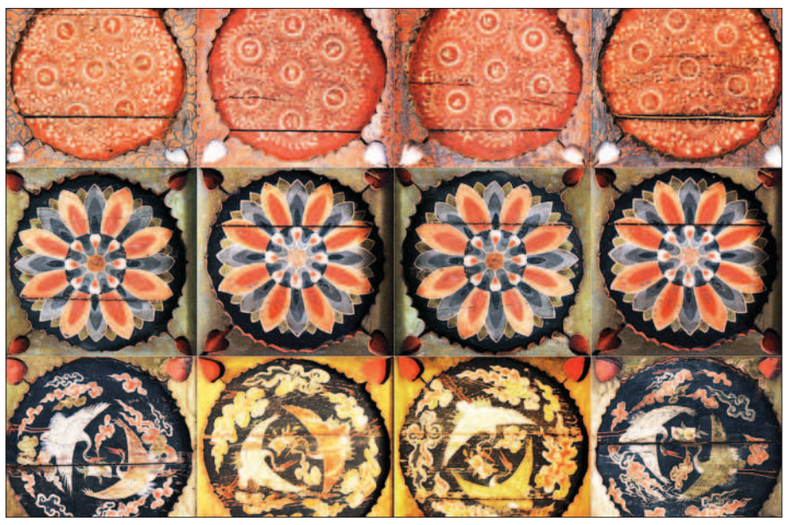
용주사 창건공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 재정은 궁궐과 관, 민에 이르는 전국적인 모금과 시주로 마련했다. 예조로부터 통팔도권선문(通八道勸善文) 등을 받아 불교승단에서 전국적으로 시주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서 8만7천냥을 모았고, 공사인력 역시 전국 각지에서 유능한 승인공장(僧人工匠)을 차출하여 관청 감독관의 파견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건축의 도편수를 비롯해 화원, 단청편수 등 장인 대부분이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특별히 차출된 승인공장, 곧 승장(僧匠)들이었다. 〈조선사찰사료〉에 실려있는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방함'에는 건축도편수를 비롯한 단청편수, 탱화화원의 역할과 이름을 밝히고 있다. 이 때, 대웅전 건축편수는 전라도 장흥 천관사에서 차출된 문언스님이었고, 단청도편수 및 삼장탱화원은 가선, 민관스님, 대웅보전 후불탱 삼세여래체탱화원은 김홍도로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조선팔도 전체에서 승속을 막론하고 유능한 건축가, 단청장, 화원, 조각승 등 불모(佛母)들을 차출해서 국가적인 역사로 용주사 가람을 경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차출한 승인공장
정조의 효행이 집약된 유불습합
힘과 구상적 아름다움 갖춘 비천
김홍도가 그렸다는 삼세불 후불탱

우주적 에너지를 표출한 용미

대웅보전은 내4출목을 갖추었다. 사찰건축의 공포구조는 가구식 역학구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체(體)는 건축에 흐르는 신령한 기운의 조형적 상징체계라 할 것이다. 내4출목의 첨차와 살미장치는 성리학적 질서만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며 단정하다. 힘보다는 반듯하며 절제된 격조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한 곳은 다른 기운을 베풀었다. 어칸 주심기둥에 표현된 용미(龍尾)에는 생동감과 힘을 실었다. 용의 몸통 가득 베푼 붉은 색채에서 핏줄이 흐르는 듯 더운 기운이 흐르고, 율동적인 용틀임엔 힘이 한껏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 극적인 대목은 용 몸통과 함께 S자로 뻗어나가는 생명력의 굵은 꽃가지다. 용 몸통 따라 뻗어나가는 넝쿨 갈래에서 붉은 연꽃 한 송이가 미어터지고 있다. 용과 꽃의 형상이 서로 닮았는데, 서로의 기운을 더욱 고양시키는 형세다. 용과 연꽃의 형상은 자연의 물상 소묘의 단계를 넘어 공간에 흐르는 내면적이며 우주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이형사신(以形寫神)에 다름 아니다. 형상의 상을 통해 정신의 체를 드러내는 사의적인 상징체계인 것이다.


대웅보전 어칸과 좌우협칸 천정에 장엄된 전체문양.


대웅보전 천정에 장엄된 세 가지 문양 세부.

대웅보전의 천정은 2단의 층급우물천정으로 경영했다. 천정에 베푼 문양은 좌우대칭이고 궁궐 박석 위의 품계석처럼 자기자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확고부동하다. 분할된 평면영역에 세 문양이 저마다 영역의 틀에 정확히 베풀어져 있다. 세 문양은 국화형식을 빌린 것과 쌍선학, 범자종자불의 세 문양이다. 쌍학은 문관 당상관의 공복에 수놓은 흉배(胸背)를 연상케 하는데 쌍학이 취한 색상과 구도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움과 기품도 두루 갖추었다. 신령한 오색구름이 흐르는 검은 천공에서 두 개의 천도(天桃)를 취하는 형상을 담고 있다. 천도는 여의보주의 알레고리다. 작은 우물반자 틀 안에 섬세한 붓질과 풍부한 색채를 베풀어 회화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의지가 뚜렷하다.

나무아미타불 새긴 범자종자불

문양의 핵심은 아무래도 닫집이 있는 중앙 칸의 범자종자불 문양이다. 붉은 소란반자의 표면에 먹선을 넣은 연꽃이 피어나 사방표면을 덮은 가운데 여섯자 범자종자불이 별처럼 돋아난다. 한가운데는 비로자나 법신불을 상징하는 '옴' 범자종자불이 있고 그 주위에 스스로 회전하는 여섯 넝쿨문을 그려 넣었다. 넝쿨에 신성한 생명력의 기운이 넘친다. 그 넝쿨문은 우주법계에 가득한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와 진리 그 자체다. 기운의 기세는 대소, 강약, 고저의 다양한 변주를 거듭한다. 고저장단의 리듬을 갖춰 뻗치는 넝쿨의 형세가 대단히 율동적이고 아름답다. 그 중 몇 곳의 반자에는 범자종자가 아니라 한자로 '나무아미타불'의 문자불을 모셔 조형의 궁극적 본질을 자내증으로 천명하고 있다. 문자불의 조형언어는 천정의 꽃은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라, 대단히 정신적이며,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이미지임을 거듭 환기시켜 준다.

용주사 대웅보전 장엄에서 단연 주목되는 곳은 닫집과 후불탱이다. 당대 최고의 승장 기능이 녹아 든 닫집은 웅장하고도 묵직하며 거룩함이 넘친다. 닫집조형에서 눈길을 먼저 끄는 것은 닫집 전면에 독립조형으로 매단 여의보주다. 닫집 외부의 영역에 독립된 형태로 보주를 장엄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갓 발현한 듯한 붉은 보주에선 신성의 주술적 기운이 보주를 한 바퀴 휘감아 돌며 약동하는 뜨거운 생명력을 토해내고 있는 듯 하다. 흡사 태양의 형국이지만, 본질은 진리 그 자체의 여래(如來)일 터이다. 붉은 보주는 붉은 기운이 주위를 감싼 구(球)의 형식을 갖추어 생명력과 자비가 흐르는 법계우주의 모티브를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불교장엄에서 보리수나무와 연꽃이 중의적(重義的)이듯이, 닫집의 보주 역시 대단히 중의적이며 고차적인 오브제임에 분명하다. 닫집 일곽의 부속조형에서 좌우 천계에서 환희의 표정을 지으며 천의를 휘날리며 하강해 내려오는 2구의 비천상 조형도 언급을 빠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조형이다. 비천조형은 수류부채(隨類賦彩)의 색채와 인물묘사 등에서 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비천조형과 닮은 인상을 풍겨 낯설지 않다. 한 분은 다소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남성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 비대칭의 대칭을 구현하고 있다. 펄럭이는 천의 자락은 대단히 리드미컬하며 힘이 넘친다. 주사와 녹색의 색채대비 역시 생동감을 고취시킨다. 비천의 손엔 모란 형태의 꽃가지와 용의 뿔, 불로초 영지 등 영험의 지물을 쥐었고, 천의의 끝자락엔 위봉사의 비천벽화처럼 복주머니를 매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풍부한 소재를 두루 갖춘 이 비천상은 힘과 구상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빼어난 아름다움의 수작이 아닐 수 없다.

명암법의 서양화풍 후불탱화

대웅보전의 후불탱화는 여러 가지로 문제작이다. 용주사 창건내용을 담고있는 '수원지령등록'에 김홍도와 이명기, 김득신 등 도화서 화원들의 감독 아래 25명의 화승이 후불탱화를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탱화 하단의 화기(畵記)에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시주질(施主秩), 녹화질(綠化秩) 기록이 결정적으로 없어 이 후불탱을 누가 그렸는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주사 후불탱에는 불보살을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손 등에 음영을 통한 명암법의 구사, 즉 서양화풍을 구사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의례적인 평면양식에서 벗어나 인물들의 얼굴에서 생동감과 입체감을 두루 살려내고 있다. 탱화 속에 시대의 변화 기류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용주사는 조선의 진경시대가 지닌 인문적 소양과, 예(禮)와 효(孝)라는 시대정신, 종교적 염원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한 시대의 마음과 숨결을 집약한 사찰이라 할 것이다. 용주사에 한 시대의 시대정신이 인문의 강물을 이루었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어칸 주심기둥의 용미장식(사진 왼쪽)과 닫집의 비천상


대웅보전에 모신 삼세불과 후불탱, 그리고 닫집


명암법이 적용된 대웅보전 후불탱의 세부 모습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佛法 앞에 자신을 던져볼 수 있겠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7. 불교의 종교성에 관해서



조계사 동자승 삭발 수계식에서 동자승들이 합장하며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실로 따를 때 불교는 종교로서 모습을 가진다.

불교의 종교성에 대한 의문

지금까지 나는 붓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밀한 인간음미에 관해서 말하였다. 또 인간의 의지처로서 법과 삼보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神)이니 기원(祈願)이니 기적(奇蹟)같은 것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설명한 일이 없다. 아니 결국 그러한 것은 언급할 겨를도 없이 이 한권의 책은 끝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가르침이 과연 종교일 수 있을까. 혹은, 그러한 가르침이 종교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가 있다 하여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유럽의 학자들이 전세기(前世紀)에서 금세기에 걸쳐 불교에 관해서 겨우 그 진상(眞想)을 알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도 또한 그와 같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후세의 불교에 관해서는 그 종교임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근본불교(根本佛敎=원시불교)에 관해서는 그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근본불교는 종교를 무시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어떤 학자는 "불교는 처음에 기도(祈禱)가 없는 도덕적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후에 종교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오늘날 이것을 뒤돌아 볼 때 퍽 흥미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들이 불교 특히 근본불교의 종교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종교관이 기독교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게는 그 껍질에 맞도록 구멍을 판다고 한다. 기독교의 강한 영향 밑에 있었던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영향 밑에서 그 종교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란 '신과 사람과의 관계' 라는 틀 안에서 모든 종교를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 전모(全貌)를 드러낸 동양의 위대한 가르침은 아무리 하여도, 그들의 종교관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흥미있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불교도 또한 성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에 관한 학(學)의 영역(領域)에 있어서는 사정은 크게 변화하였다. 기독교 이외에는 종교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적었던 유럽의 학자들 앞에 많은 종교에 관한 지식이 급속도로 모여졌다. 그들은 '신과 사람과의 관계' 와 같은 오래된 종교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교적 대상은 어떠한 뜻에 있어서 인격적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결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학자들은 또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낮은 것은 미개원시(未開原始)의 종교에서 높은 것은 기독교나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 관해서 무언가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있지 않은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학자들이 마침내 찾아낸 것은 소위 '성스러운 것(das Heilige)' 이라는 말로써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양의 위대한 가르침인 불교도 또한 분명하게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 사회학파의 뒤르껭이 '성스러운 것' 에 관한 신념과 행사(行事)와 공동사회가 종교의 본질적 요소임을 말한 후에 "불교가 어떤 연유로 종교인가 하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즉 그것은 신은 없지만 성스러운 것의 존재 네 가지의 성제와 거기에서 생겨나는 행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지적의 하나였다.

불교의 종교성의 문제는 '성스러운 것' 이라는 관념의 등장에 의해서 객관적인 학문의 문제로서는 일단 지금까지의 애매한 것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단순한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주관(主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심리(心理)를 분석하다

'나무삼보(南無三寶)' 라고 말한다. '나무(혹은 귀의)불 나무법 나무승(南無僧)' 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불교도가 성스러운 것에 대하는 태도는 오래전부터 '나무' 라는 한 말로써 표현되어 왔다. 그러면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남무(南無)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으로써 또는 어떤 태도로써 그것에 대한다는 뜻일까.

나무란 잘 알려져 있듯이 범어(梵語) 나마스(namas)의 음역(音譯)이며 의역(意譯)하여 '귀명(歸命)' 이라고 말한다. 그 원래의 뜻은 몸을 굽히며 머리를 숙인다는 정도의 뜻에 불과하지만 후대의 주석자(註釋者)들은 다시 이 굴신정례(屈身頂禮)의 외면적인 태도를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해석을 시도(試圖)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귀투신명(歸投身命, 신명을 귀투한다)' 이라는 해석일 것이다. 신명이란 온 인격을 다 한다는 뜻이며 귀투란 돌아가는 듯이 던지며 의지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전인격적(全人格的)으로 빙의(憑依)한다는 뜻이다. 무엇에 매력을 느낀 듯이, 혹은 끌려 들어가듯이, 온 인격을 털어서 삼보에 귀투한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삼보에 나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천태대사(天台大師)의 〈오계경(五戒經)〉에는 이런 주석이 붙어 있다.

"나무(南無)는 오계경에서는 '두려움' 이라 부른다. 두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생사험난(生死險難)의 두려움을 없애 주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성스러운 것에 대할 때 반드시 이러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법(敎法) 앞에 떨면서 서다

나무(南無)에 있어서의 경포(驚怖)의 의식, 이런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암시(暗示)해 준 것은 루돌프 옷토임 명저(名著) 〈성(聖)스러운 것(Das Heilige)〉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성스러운 것에 대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의식을 정밀하게 서술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정리(正理)에 합당하며 진실하며 허(虛)하지 않는 교법이었다. 그러한 교법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여 종교일 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붓다는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고(苦)' 라고 가르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진실로 이해되었을 때, 우리들은 여전히 천연스럽게 이 고(苦)의 진리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제까지 날마다 즐거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상식의 입장은 이제 가루처럼 깨어지고, 무서운 인생의 진상이 명백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그때 여전히 태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이 교법을 진실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무(南無)는 곧 경포(驚怖)'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움직임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움직임으로써 상대(相對)할 때 성스러운 교법이 비로소 우리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며 전인격(全人格)을 흔들어 일으키게 된다. 성스러운 교법이 정말로 성스러운 교법으로써 작용하며 성스러운 지혜가 정말로 성스러운 지혜로써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때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교법을 단순한 지식으로써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불교는 결코 종교가 되지 않는다.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진상을 단순한 말로 치부하는 자에게는 불교는 결코 종교로써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능히 일체개고의 가르침 앞에 떨면서 설 수 있는 사람, 제행무상의 도리 앞에 살을에는 듯한 생각으로서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불교는 비로소 진정한 종교로서 나타날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삼보의 앞에서 그 모든 인격을 다하여 귀투(歸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유교의 배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 부처님의 도가 몸을 닦는데 절실하고 정치에도 도움이 있음이 이와 같이 지극한데 요즈음의 유자(儒者)들은 뇌동(雷同)하여 부처님을 배척함으로써 능사(能事)를 삼는다. 원컨대 다하지 못한 말을 풀어서 시비의 문을 막는다면 또한 다행이 아니겠는가.

답 좋은 말이다. 삼교(三敎)의 성인이 각각 그 백성의 병통을 치료하는 자이지만 다만 그 순서가 같지 않을 뿐이다. 만일 그 선권공화(善權功化)의 극치에 있어서는 용(龍)이 아닌데 어찌 용이 하는 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허망한 뜻으로 말한다면 곧 유자(儒者)는 심(心)을 위주로 한 자이고 노자(老者)는 기(氣)를 위주로 한 자이고 불자(佛者)는 성(性)을 위주로 한 자라 하겠다. 하늘은 사시(四時)가 있어 각각 그 주체를 서로 받들어 그 명령을 선포하는데 어찌 이 셋인들 홀로 그 주체가 없겠는가.

더구나 공자는 부처님을 미루어 서방(西方)의 대성인(大聖人)이라 하시고 스스로는 여기에 위치하시지 않으시니 어찌 부질없이 그러했겠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자는 인의(仁義)를 따르나 인의를 극진히 하지는 못했고, 도덕을 행하나 도덕을 극진히 하지는 못한 자이다.

인의 · 도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극진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 · 순(堯 · 舜)도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함을 괴롭게 여겼고, 탕 · 무(蕩 · 武)도 부득이 전쟁을 해서 걸 · 주를 정벌해야 하는 부끄러운 덕이 있었으며, 주공(周公)은 비록 성인이지만 반란을 일으킨 동생을 정벌함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공자는 비록 어지나 고삭례(告朔禮)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양(羊)을 버리지 못했다.

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천하를 두렵게 하며, 그물을 만들어 사냥과 물고기 잡는 것을 일삼으며, 희생(犧牲)을 도륙(屠戮)하여 그 종묘(宗廟)에 제사지내며, 날짐승 · 들짐승을 사냥하며 그 음식 만드는 부엌에 공급한데 이르렀으니, 이로써 부처님의 도덕에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이 짝하지 못함과 같은 것이다.

불자(佛者)는 보시(布施)를 하면 대천세계(大千世界)에 널리 흡족하고 덕은 곧 사생(四生)을 두루 덮는다. 마군(魔軍)이 비록 포학하나 무기로써 조복받지 않으시며, 가왕(歌王)이 비록 원망해도 이내 원망으로써 갚지 않으시며, 앙굴라마가 죽이려 했으나 도리어 구제하고 제도하시며, 조달(調達)이 해치고자 했으나 수기(授記)하여 부처가 되리라 하시었으니 유 · 불(儒 · 佛)의 구별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세간의 법이라는 것은 각각 그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여기며, 각각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각각 그 몸만을 몸으로 여기며, 각각 그 아내만을 아내로 여긴다.

그 때문에 물 · 아(物 · 我)가 양립(兩立)하며, 자 · 타(自 · 他)가 대적함을 이루어 윤회의 일이 일어난다. 이른바 윤회의 일이라 하는 것은 생명으로써 생명을 바꾸며, 힘으로써 힘에 앙갚음하는 것이니, 세간의 만사가 다 그렇지 않음이 없어서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돌리어 서로서로 고하(高下)가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걸림이 없는 큰 자비로써 만행(萬行)을 쌓아 만덕(萬德)을 이루시고 삼계(三界)의 도사(道師) · 사생(四生) · 자부(慈父)가 되시어 대본(大本)으로 포괄하시고, 일성(一性)으로 평등히 하사 피차 · 물아(彼此 · 物我)가 모두 실제에 돌아가게 하시었다.

"금강경(金剛經)에 말씀하신 내가 다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滅度)하였다"함이 이것인데 어찌 다시 윤회의 일이 있겠는가.

온정을 배풀어(煦煦) 생육(生育)하고 처처(凄凄)히 성숙(成熟)시켜 한번 당기고 한번 느슨하게 함은 조화(造化)의 이치이니, 성인의 도를 말함이고, 양양(揚揚), 득의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히 뿌리고 흡흡(吸吸, 구름이 이어가는 모양)히 거두어 한번 거두고 한번 폄은 조화의 공이니, 성인의 가르침을 말함이다.

유교만 알고 불교가 있는 줄 알지 못한 자는 봄이 있음만 알고 가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데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어 순환하며 만물을 생성하듯, 성인이 가르침을 시설하여 교대로 일어나 교화를 천하에 이룩함도 또한 이를 따른 것일 뿐이다.

유교만 알고 불교를 모르는 자는 봄만 알고 가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 개설시기 : 2015년 3월. 첫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봉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불기’ 닦는 일은 울력이자 수행…

〈佛器〉

사찰 찾아 행보시 실천하는 강원선우회



강원선우회 회원들이 불기를 닦는 중간에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강원선우회는 2007년 7월 출범한 불자 봉사단체로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종단을 넘어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불기닦기를 비롯해 법당청소를 진행하며, 매월 1회 춘천교도소 수형자 법보시, 불우가정돕기 및 사랑의쌀나누기, 연탄나누기, 집수리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잘 닦인 촛대에서는 광채가 흘러나온다. 정성스럽게 닦은 불기를 영단에 세운다. 향로에 향을 사르며 다기에 청수와 마지를 올리면 어느새 마음은 정갈해진다.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내듯 불기(佛器)를 닦는 일은 울력이자 수행이 된다.

지난 2월 1일 춘천 구국사 대웅전 한 켠에는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 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불단 위의 불기를 조심스럽게 내린 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불단에서 하나씩 불기가 내려올 때마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약을 바르고 열심히 닦는다. 새까맣게 때가 타있던 놋으로 된 그릇들은 이내 번쩍번쩍 광을 내는 본 모습을 찾는다.

강원지역 80여 사찰 찾아 행보시

강원선우회는 어느 사찰에 소속된 신도회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 모임이다. 이들은 사찰을 찾아 행하는 봉사활동을 ‘행보시’라고 칭한다. 물질적인 재보시다,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찰을 찾아 울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이 이들의 활동 무대다. 2007년 설립 이후 8년 동안 이들의 도움을 받은 사찰은 100여 곳에 달한다.

강원선우회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석범준 회장이 불교와의 인연을 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불자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별다른 신행활동이 없었던 석범준 회장은 판촉물 도매업 등 사업이 부침을 겪으며 잠시 춘천의 한 작은 사찰에 머물게 된다. 이후 석 회장은 불심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 오래지 않아 그는 어려운 시절 몸을 의탁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다. 사찰을 찾은 석 회장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작은 사찰이었기에 노스님 한분만 있었기에 사찰의 모든 불기들이 녹슬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검게 때가 탄 불상과 불기들을 보며 석 회장은 발심했다.

“스님의 다비식 후 도량관리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닦고 광내는 것이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많아 정기적으로 불기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찰은 다르죠. 보통 노스님 홀로 계신 곳이 많습니다. 신도들도 적을뿐더러 처사들보다 나이 많은 보살님들 위주라 불상과 불기를 닦는 게 사실 힘들죠. 힘들 때 저를 보듬어 준 부처님께 더러운 불기로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출범, 80여 회원 활동

불기닦기 · 울력 · 소외계층 돕기 펼쳐

매주 2회, 춘천 열린법당서 신행활동

2014년 강원도 봉사대상 수상 영예

석 회장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 선우회를 조직하고 불기닦기 봉사를 나섰다. 처음 불기닦기 봉사에 동참한 이들은 12명, 현재는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됐다.

“이제는 회원들이 늘어나 조를 짜서 봉사를 나갑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기에 시간을 조율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루에 1~2개 사찰에서 울력을 진행합니다. 80여 회원 대부분이 불자이긴 하지만, 봉사하는 취지에 공감한 이웃종교인도 있어요.”

가족이 함께 해 의미 더해

선우회 회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일까. 추운 겨울임에도 행보시 현장인 대웅전 안은 이내 따듯해 졌다. 이들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모두가 열심인 가운데 가장 꼼꼼히 불기를 닦는 이가 있었다. 바로 부회장인 김정숙 보살(법명 여여성)이었다. 김정숙 보살은 선우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행보시를 해왔다.

김정숙 보살은 “불기를 닦아내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때가 말끔히 벗겨진 불기를 볼 때면 마치 업장이 녹은 듯 환희심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김정숙 보살은 건축 창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주말이면 오히려 더욱 바쁘지만 강원선우회 일이라면 열일을 마다 않고 참여하고 있다.

“아무래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서다보니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니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서 열심히 하라며 태워다 줄 정도에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마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김정숙 보살은 “겨울 비수기 때는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봉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사음악회도 다니고 스님들의 좋은 법문도 들을 수 있어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손때가 묻은 곳에 먼저 약품을 바르고 넘기고 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문지에 광약을 묻혀 옆 사람에게 넘기면 다른 쪽에서는 천으로 닦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색으로 검게 빛바랜 불기들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마무리의 깨끗한 천으로 닦는 순간 어느새 본래의 맑고 영롱한 색을 찾으며 광채를 발한다.

“잘 닦인 불기에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면 마치 내 마음을 닦은 것 같습니다. 힘은 들어도 깨끗하게 닦은 불기가 불단 위에 놓일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석범준 회장은 불기닦기의 노하우도 털어놨다. 촛대의 경우 촛농을 먼저 제거하고 솔로 털어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크기가 작고 무늬가 있는 불기의 경우 부드러운 칫솔 등을 활용해 약을 세밀하게 발라줘야 구석구석의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이다. 광 또한 한쪽 방향으로 닦아내야 보다 잘 난다고 말한다.

석 회장은 “지역 불교용품점에서 선우회로 인해



“내 마음도 절로 닦여요”


2월 1일 구국사 불기닦기 행보시에 참여한 강원선우회 회원들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 모습


2014년 11월 진행한 김장담그기 행사. 김치는 독거어르신 등 춘천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지난해 여름 강원지역 수해 이후 독거어르신의 집을 보수하는 선우회 회원들의 모습


춘천요양원 빨래봉사. 춘천교도소 법보시 후 진행돼 조끼에 교도소 마크가 선명하다.

광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요”라며 농담 섞인 말도 했다.

불기 닦기가 진행되는 구국사 대웅전에는 명부전, 산신각 등 4개 전각이 있었다. 각 전각에서 불기들이 속속들이 대웅전으로 들어오고 강원선우회 회원들은 누가 무엇을 해라 할 것 없이 알아서 각자의 맡은 일을 진행했다.

바깥으로 나가자 한 처사는 산신각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처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조용히 밖에서 향로의 재를 채에 거르고 있었다. 불순물을 없애 향로를 보다 오래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수행한다 생각하면 힘든 것 없어요”

이날 만난 선우회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힘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해 “비우면 채우고, 부처님 원력에 따를 뿐”이라며 “봉사하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기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는 총무 박현숙 보살(법명 무량수)은 선우회 활동에 동참한 3년 동안 가정의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박현숙 보살은 “남편과 같이 다니며 봉사를 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아이들과도 부모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불기를 닦으며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를 때의 기분은 무엇이라 표현 할 수 없다. 자기 자리에 놓으면 더욱 빛나는 것이 부처님의 광명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범준 회장은 오히려 “춘천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찰이 불기닦기 봉사를 신청해주었으면 한다. 아주 먼 곳은 힘들겠지만, 춘천의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2~3시간 거리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는 신도들이 고령화되다보니 사찰이 커도 일할 사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활동이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져 각 지역에서도 사찰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일어났으면 해요.”

하지만 선우회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약과 같은 불교용품을 취급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석범준 회장은 “유해물질이 없는 약품을 쓰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런 물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소액이기에 마진이 적다보니 점차 취급하는 용품점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 분들이 나이가 들어 점차 행보시에 애로점이 있다. 젊은 불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우회는 신행활동도 함께 해가며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월요일 오후 8시 춘천 동부시장에 위치한 열린법당에서는 강원선우회의 열린법회가 개최된다. 예불과 함께 〈천수경〉을 위주로 다양한 경전을 독경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 교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불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교도소 · 군법당 등에도 자비심 전해

선우회는 사찰 행보시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보듬기에도 나서고 있다. 매월 1회는 춘천교도소에 미결수를 대상으로 한 법보시를 진행하며,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는 춘천국군병원을 비롯한 지역 군부대를 찾아 떡볶이 보시를 하고 있다.

한 보살은 “군부대에 갈 때마다 군장병들을 보며 젊어지는 것 같다”며 “재가불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장철이면 사찰을 찾아 봉사하고 춘천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연탄나르기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13~14일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떡 400kg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가정 200곳에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춘천여고에서 단체 창설 이후 첫 자선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 여름에는 장마피해로 무너진 독거어르신 집을 회원들이 수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선우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강원도 봉사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서 춘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한 으뜸봉사단체로도 선정됐다.

석범준 회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특히 불치병이나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이 많아 다양한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자 종교단체로서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로 자리한 데는 여러 불자들의 십시일반의 도움과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을미년 새해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불기닦기를 마친 선우회 회원들의 얼굴과 옷 군데군데에는 얼룩덜룩 광약이 묻어있었다. 하지만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져 환하게 빛났다. 마치 이들이 닦은 불기처럼.

춘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음성포교, 쉬운 길은 없다

음반을 처음 기획했을 때 주변에서는 만류가 심했다. 음반은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하고, 무슨일이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도 음반을 만드는 것에는 회의적이었다. 심지어 중이 수행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과 호흡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음악법회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차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내 사진과 법명이 적혀있는 음반을 들고 먼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스님들을 만났다. 백양사 주지스님과 소임자 스님들께 선을 보이고 내 음반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던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들을수록 가사도 와닿고 멜로디도 편안해서 듣기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광주불교방송국을 비롯해 서울불교방송국과 부산, 대구불교방송국에서도 내 노래를 들려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사에서도 음반발매소식을 실어줬다.

그렇게 음반이 알려지면서 까페공연을 마치고 관객들과 더 큰 무대에서 공연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까페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했다. 연주자들도 음악감독의 소개로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섭외했다. 연주자들의 수고비는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기금으로 마련했다. 공연날짜를 10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한 달 전부터 맹연습에 들어갔다. 일렉트릭기타와 통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등 다양한 악기를 갖추고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은 단순히 반주를 들으며 노래를 녹음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관객들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정원이 70석인 공연장에 30개의 의자를 추가로 더 준비했다. 곳곳에서 공연을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기실에서 공연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무대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에 긴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100개의 의자는 남김없이 모두 앉아 있었고 뒤에는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해 서계신분도 있었다. 심지어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간 분도 있었다. 지난번 까페공연과는 달리 악기도 다양하고 조명과 음향시설도 완벽해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노래 사이사이에 이야기와 선물증정, 그리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과 내 음반 수록곡 ‘나는’ 의 노랫말을 써준 류근시인과 깜짝 전화연결 이벤트에 관객들은 모두가 환호했다. 특히 누구나 알만한 신나는 팝송을 율동까지 곁들여 부를 때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몸을 흔들었다.


그림 · 박구원

공연을 마치고 출구앞에서 내 음반에 사인을 해줬다. 내 음반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미 음반을 구입한 분들도 주변에 선물을 하겠다고 끝까지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아간 분들도 많았다. 사인을 받고 인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고 고마워했다. 그 인사를 받는 내가 더 행복하고 고마웠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다시 약속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포교의 영역에 쉬운 길은 없다. 이미 누군가 개척해 놓은 길도 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길도 있다. 어차피 어느 길이든 쉬운 길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길을 가고 싶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의 목표를 완성하고 다음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는 라디오 진행이었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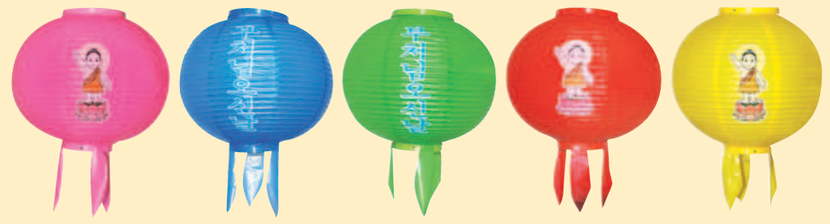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중국, 가정법회 여는 불자 늘고 있다

영국 BBC, 중국인 불교신행활동 소개

공산당과 종교는 흔히 병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공산주의 국가들도 없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 중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 불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지난달 1월 29일 공산당 고위직에서 은퇴한 후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샤오 우난(Xiao Wunan · 50)의 초청으로 그의 집을 방문, 당일 샤오의 저택에서 봉행된 가정 법회를 참관하고 보도해 주목된다.

〈BBC〉는 "샤오는 이날 젊은 사업가 순 케지아(Sun Kejia · 35)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했다"며 "이날 법회가 열린 방에는 달라이 라마 초상과 티베트 불교의 탕카가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로부터 '위험한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따라서 티베트 스님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티베트 사원 역시 그의 사진을 봉안하지 못한다.

〈BBC〉는 샤요의 말을 인용, "중국에는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엘리트 불자들이 많다"며 "그들 대부분 집에 개인 불단을 만들고 티베트 스님을 초청,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법회를 집전한 스님이 제적하고 있는 사원에 적잖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샤오 우난(Xiao Wunan · 50)과 순 케지아(Sun Kejia · 35) 등이 게쉐 소남(Geshe Sonam ·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순 케지아(Sun Kejia · 35)이 도반을 초청, 게쉐 소남(Geshe Sonam ·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자신의 집에서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 신흥갑부 등 중심으로
개인불단 조성 · 가정법회 열어
불교귀의 늘지만 기복성향 강해
중국정부의 이해 · 관용 담보될 때
중국불교 순기능 발휘될 수 있어

이런 모습은 최근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에 우호적인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비교해 대조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 지도자이든, 어떤 행태로든 달라이 라마와 만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한다는 소식을 전해진 직후 이 같은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엘리트들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봉안한 채 가정 법회를 봉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려다 보면, 중국 엘리트들의 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행과는 다르다.

"부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전제한 순 케지아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불교가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며 "내게 도움을 주는 종교라면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 소중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중국의 도덕적 완성을 꾀하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제한 〈BBC〉는 "그러나 중국이 종교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중국사회과학원 류펑(劉澎) 연구원의 말은 인용, "중국의 현 종교 정책이 신앙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지만, 종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종교 신자 수는 3억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샤오 우난과 션 케지아 등의 가정법회를 집전하고 있는 게쉐 소남(Geshe Sonam) 스님은 "중국의 엘리트 불교가 올바른 불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불교 등 종교에 대해서 관용과 이해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지금의 중국불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최대 불교축제 '메악보체' 열어

칸달(Kandal) 우동산 자락…4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

캄보디아 최대 불교 축제인 메악보체(Meak Bochea)가 2월 4일 캄보디아 우동(Oudong)산 자락에서 열렸다.

〈Cambodian Daily〉지는 2월 4일(현지시간) "메악보체 축제가 칸달(Kandal) 우동산 자락에서 임챨리(Yim Chhayly) 부총리를 비롯해 인도 · 태국 · 베트남 대사 등 4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보도했다.

메악보체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을 처음으로 설한 날'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공휴일로 재정했다.

이날 축제의 서막은 우동산 자락에 펼쳐진 넓은 평원에 비구 · 비구니 스님의 행렬이 도착할 때인 정오를 기점으로 열렸다.

우동산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40㎞ 남짓한 거리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우동은 산스크리트어로 '최고'를 뜻하는데, 고대 캄보디아의 수도였다. 우동산의 유일한 탑에는 부처님 치아사리와 진신사리 각 한 기씩 두 기가 봉안되어 있다. 이는 캄보디아 최대 불교명절인 메악보체 축제를 우동산 자락에서 여는 까닭이다.

우동산 스투파에 봉안된 치아사리와 진신사리는 2013년 도난당했다가 다시 되찾았다. 이후 사리는 프놈펜 국왕 관저에서 보관되어 있다.

캄보디아 지역문화 · 종교부 롱 페룸(Rong Phearum) 장관은 "우동산 스투파의 사리는 2013년 도난 사건이 해결되면서 국왕 관저로 이운되었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라의 원 봉안처라는 상징성으로 사리를 도난당한 직후에도 빼놓지 않고 우동산 자락에서 메악보체 축제를 봉행하고 있다"며 "이는 크메르인 모두가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깊은 경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스님들은 메악보체 기간 동안 불자들에게 음식이 아닌 돈을 보시 받을 수 있다.

〈Cambodian Daily〉지에 따르면 메악보체 축제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두 거대 종파인 모하니카야(Mohanikaya)와 담마유쓰(Dhammayuth)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심신을 키우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되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앞선 세대의 전통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제한 앙 쿨린(Ang Choulean · 왕립대학 미속학) 교수는 "청년들, 특히 도심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메악보체 축제는 캄보디아 특유의 불교 전통을 보여주고, 그들의 심신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로힝야족' 용어사용 문제제기

대통령실 성명서 발표 "명백히 반대"



미얀마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들은 로힝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이들을 벵골인들로 지칭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관리가 미얀마 내 박해 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명칭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비난했다.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2월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실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도관이 로힝야족을 거론한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길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락하인 주에서 로힝야족 시위대를 만나는 등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미얀마 언론 DVB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양희 특별보고관이 미얀마를 방문할 당시인 1월 16일, 불교 지도자 아신 위라투 승려는 양곤의 한 광장에서 열린 '이양희 UN인권보고관 방문 항의' 시위 현장에서 연설하며 "미얀마는 이미 인종보호법을 마련해 소수민족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년(미얀마어로 'kaungma')이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라투 승려의 이 같은 발언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인권문제에 UN이 개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불교 승려 등 라카인주 주민들은 1월 8일 이양희 보고관이 시트웨 공항에 도착하자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위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들은 로힝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이들을 벵골인들로 지칭하고 있다.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류인 불교도들로부터 최근 수 년 간 박해를 받아왔다.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은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종교적 박해와 인권침해로 인해 미얀마를 탈출하는 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때에는 하루에 900여명 꼴로 로힝야족 인구가 미얀마를 떠나기도 했다.

이번에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위라투 승려는 미얀마에서 반(反)무슬림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며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들은 그를 '반무슬림 선동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2월 3일 미얀마 의회는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로힝야족에게 국민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2월 3일 미얀마 연방 의회는 임시 신분증인 이른바 '백색 카드' 소지자들이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의회가 지난달 19일 재개돼 헌법 개정안, 이와 관련한 국민투표 등에 대해 심의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백색 카드 보유자에 대한 국민 투표권 부여에 반대했다. 백색 카드 소지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서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들이다.

로힝야족 등 백색 카드 소지자는 지난 2010년 실시된 총선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았으나 올해 10~11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도 투표권을 인정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뭇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 강 생 모 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회비가 20만원 입니다.)
▶ 형 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內) "중앙불교대학"3층 강의실)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아침예불 / 종성
❷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❸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❹ 천수바라 나비춤 (도량게 / 다게)

☆ 교육특강 ☆
▷ 오후 2시 ~ 3시 법고무 - 문곡스님
▷ 오후 3시 ~ 4시 명리 - 해각스님
▷ 오후 4시 ~ 5시 태평소(호적) - 시우스님

●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www.송강사.kr/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乙未年 새해, 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종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거듭납시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이신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1988년 창종 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일붕 존자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켜
존자님의 유훈이 세세생생 번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을미년 신년법어

을미년 양의 해는 수양 처세를 아름답게 하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爾謨不臧이면 悔之何及이며
爾見不長이면 敎之何益이리오
利心專則背道요 私意確則滅公이니라

너의 꾀함이 옳지 못하면 후회한들 어찌되며, 너의 보는 것이 뛰어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슨 이로운 바 있으리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 오로지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는 뜻이 굳으면 큰일을 다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곧아야 도모하는 일이 바르고, 그를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면 도를 해치고 자기 사사로운 뜻에 집착하면 여러 사람에게 외면 당한다. 그러므로 정도를 걸으며 사보다 공을 앞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년 양의 해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우며 살아가자.

일붕 존자님 행적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몽골, 프랑스 등 149개국 5천여 종단 및 단체에서 법왕(法王)으로 추대되었으며 존자(尊者) 추대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20여개국 634종단 및 단체에서 추대되었습니다.

尊者란 부처님 수제자에게 주는 불교 최고 영예인 성호(聖號)인데 부처님 10대 제자와 16나한 5백나한 등이 있습니다. 일붕 서경보 세계법왕은 문학박사, 철학박사, 종교학박사 등 126개 박사학위를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등 세계유명대학에서 받으셨고 불교사상교양전집을 비롯 1천 40여권의 저서와 8백여 개의 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를 세운 것은 현재까지 전 세계 불교계의 승려로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최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을미년 새해 신년사

한국불교 중추 종단으로 거듭나자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원장 경원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슬기롭게 지혜(智慧)를 발휘하시어 시련(試鍊)을 극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2년 전 겪은 내홍(內訌)으로 아직까지 종단이 안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명하신 종도들의 도움으로 눈에 뛰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종도들, 교구원장 제법스님과 홍보부장 해동스님이 주축이 되어 헌신(獻身)과 봉사(奉事)로 일붕조사의 탄생100주년 기념 제2회 교성곡 발표 음악회을 조사스님의 탄생지이자 득도(得道)하신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가르치신 육화(六和)정신으로 화합하여 각 개인은 신행(信行)의 모범으로, 종단은 타종단의 모범종단으로 거듭나기에 노력합시다.

2015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 봉행

1월 9일 / 일붕선원 대법당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9일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2015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 을 봉행했다.
종정 지공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경원스님, 원로의장 혜천스님, 원로 동봉스님, 덕봉스님, 대륜스님, 원각스님, 원각스님과 종회의장 법선스님, 포교원장 현암스님 교육원장 법해스님 등 각부 임원 및 종무원장 종단임원 5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부장 승원스님의 사회로 교육원장 법해스님의 상축이 진행됐으며 종정 지공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을미년 양의 해는 수양 처세를 아름답게 하여 정도를 행하고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우며 살아가자' 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경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을미년 새해는 종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종도교육을 위한 삼장불교대학 재추진, 전 주지 연수교육 진행, 수행풍도 진작 등 교육 지향적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할 것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 원로스님들의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한 제주교구 원장 제법스님, 홍보부장 해동스님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학산 혜천** 재단이사장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무찰. 봉암. 혜운. 원각. 동봉. 덕봉.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종회의장	법선	호계원장	법성	교구종무원장	
재단부이사장	일명	종회부의장	고봉	교육원장	법해	강원동부	보해
재단상임이사	혜광	종회의원	도혜	포교원장	현암	경기남부	대각
이 사	혜운		도정	감사원장	석성	경기북부	도허
	경담		석경	총무부원장	용운	경북교구	법경
	법도화		지연	총무부장	승원	경남교구	승원
	자비행		일명	교무부장	경담	대구교구	고봉
감 사	혜천		청호	재무부장	일명	대전교구	경담
			무착	홍보부장	해동	부산교구	령산
			혜등	총무국장	원공	울산교구	도현
			혜일	재무국장	덕운	전북교구	지명
			보은			제주교구	제법
						충남교구	호암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 작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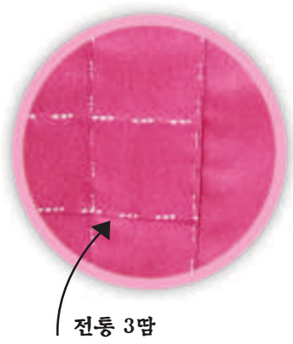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불화 속에 모던보이 등장 '눈길'

불교중앙박물관 흥천사 감로왕도 공개… 4월 12일까지 전시



1939년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낸 흥천사의 감로왕도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공개된다. 사진은 감로왕도의 부분도

1939년 당시의 모던보이, 스케이트 타는 소년 소녀, 코끼리가 등장하는 서커스단이 묘사된 감로왕도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테마전 '불화에 담긴 근대의 풍경과 사람들' 에서 흥천사 감로왕도가 특별공개 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학예연구사는 "감로왕도라는 불화의 틀에 일제강점기의 풍속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매우 재미있는 그림이다. 이는 전통 불화에 근대 풍경을 서양화 기법으로 담은 '모던 불화' 로 잘 알려져 있다.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색다른 자료"라고 설명한다.

전통 불화에 서양화 기법 사용
일제 강점기 풍속 사실적 묘사
금석문 탁본조사 성과물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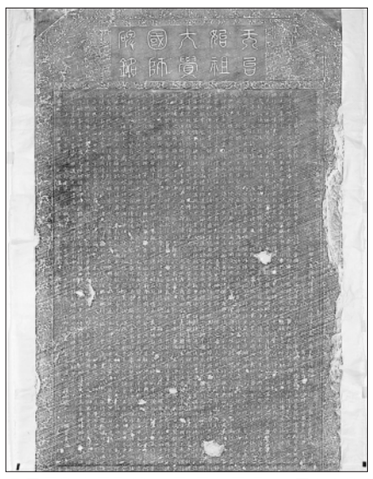
여기에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전화하는 남자, 전봇대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기술자, 산에서 떨어져 죽는 등산객, 코끼리가 등장하는 서커스, 재판 장면 등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그려져 있다. 또한 비행기와 탱크가 등장하는 전쟁 장면을 통해 중일전쟁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흥천사 감로왕도는 1939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근대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풍속화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화의 하부에 표현된 장면들은 31개의 구획을 나누고 각각 하나의 주제를 가진 화폭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장면은 서양화법을 이용해 표현했는데, 당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의 성과물을 이번 테마전에서 공개한다. 탁본 조사의 첫 해였던 작년에는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 중요 금석문 40여점을 탁본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아홉 점의 탁본을 전시한다. 국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와 비단을 이용한 탁본을 통해 우리나라 금석문의 예술성과 역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02)2011-1960

정혜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의 성과물 중 중요 탁본 9점을 공개한다. 사진 왼쪽은 대각국사비 오른쪽은 원응국사비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 총집합 한다

붓다아트페스티벌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2015붓다아트페스티벌이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올해로 2회를 맞는다. 조계종과 서울시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함께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의 총집합이라는 슬로건을 건 '2015붓다아트페스티벌' 은 전통불화부터 동시대와 소통하며 나아가는 현대불화까지 불교미술 총체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해외 작가의 참여다. 2015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독일의 짜이트 쭈 제헨 갤러리(Zeit Zu Sehen Gallery)는 불교와 선(禪)을 주제로 한 현대적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영담 스님이 운영하는 영담한지미술관 역시 우리 한지를 재료로 제작한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붓다아트페스티벌의 국제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기획전도 눈길을 끈다. △현대미술로 보는 붓다의 지혜 △아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50만원전 △서울의 장인전으로 구성 불교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불교아트페스티벌 김해다 아트디렉트는 "올해는 57개 부스, 약 80여 작가가 참여한다. 작년 대비 약 1.5배 확장된 규모"라고 설명한다. 메인 전시에는 자수공예가 이정숙 작가, 현대적 불상 조각가 서칠교 작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정숙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에게 선물한 자수보자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근엄한 보살상을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표현하면서도 전통불화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김지원 작가, 3003나한을 제작해 주목받고 있는 적산 스님 등 다양한 작가가 새롭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빛낼 예정이다.

해외 작가 참여 세계화 도모
57개 부스 · 약 80여 작가 작품
50만원展, 구매와 기부 동시에

지난해 만화전을 기획해 큰 관심을 모았던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올해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는 바로 현대미술로 보는 붓다의 지혜 '드림 리얼리티(Dreaming Reality)' 로 국내 유명작가 3명의 작품을 통해 '공(空)' 사상을 보여준다. 움직이는 조각, 영상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오감만족을 보여줄 이 코너에서는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승호, 왕지원, 김신일 작가가 참여한다.

김해다 아트디렉터는 "다양한 매체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불교의 동시대적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문학적 성찰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아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50만원展' 은 작품도 사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해 합리적 가격에 작품성 있는 불교 · 전통미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익금의 일부는 NGO단체에 기부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김해다 아트디렉트는 "본 전시에는 많은 작가들이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에 동참했다. 작품 가격을 30% 이상 낮추어 출품했으며 전통 불화, 민화, 유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불교 · 전통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작품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NGO단체에 기부, 예술을 통한 기부 효과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02)2231-201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월 스님, 천재일우 콘서트 서울 공연

판소리 · 뮤지컬 등 이색 구성
4월 8일 KBS홀에서 공연
장애우 100명 초대 '훈훈'



수월 스님이 4월 8일 KBS홀에서 판소리, 뮤지컬 등으로 구성된 천재일우 콘서트를 갖는다.

'우리말 반야심경' 에 클래식을 입힌 수월 스님의 두 번째 콘서트 '천재일우' 가 4월 8일에 서울 KBS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부산 공연에 이은 두번째 콘서트다.

수월 스님은 "지난 공연 후 현대식 불교문화를 개척했다는 평과 많은 관객들의 갈채에 힘을 얻었어요. 더 많은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조계종 광림사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엄숙한 느낌의 '예경제불가' 로 시작해, 원효 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우리말로 해석한 소리꾼 박성진 씨의 판소리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법구경 합창,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뮤지컬 '님의 침묵'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장애우 100여 명을 초대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사상구 엄궁동 백석사 주지이자 BBS부산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자인 수월 스님은 동국대 철학과 재학 시절이던 1985년에 우리말 반야심경을 발표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스님의 공연은 당시 불교 대중음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활동을 접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 해인사로 출가 대성암, 해인사, 보현암, 보덕사 등 제방선원에서 10년 동안 참선 수행했다. 지난 2013년 '물같이 바람같이' 라는 앨범을 내고 찬불 포교의 원을 세우고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02)2644-8968

정혜숙 기자

BBS라디오 상반기 개편
수행 프로그램 강화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2월 9일 상반기 라디오 개편을 한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된 경전 구절을 낭독으로 함께 하는 '붓다의 향기' (매일 밤12시) 와 화엄경, 천수경, 아미타경 등을 독경하는 '한밤의 독경' (매일 새벽 1시)을 편성해 불자들의 재가 수행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했다. 또 주말에는 도영 스님의 '한 낮의 음악여행' (토 · 일 낮 12시 10분)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 중 '마음의 샘터' 는 청취자의 성원에 힘입어 주간으로 확대 편성 매일 오후 10시에 만날 수 있다.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알려주던 '명상카페' 는 토 · 일 오전 7시로 당기고, '찬불의 노래' 를 오전 8시로 변경해 주말의 아침 새벽기도와 불전공부, 설법, 명상, 찬불로 이어지는 불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BBS-TV로 만나던 '무명을 밝히고' (매일 오후 5시 5분)의 법문도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옛 기와에 담은 佛法의 영원성

김석곤 개인전
'佛빛 6 · 기와 속에 깃든 佛'


불화가 김석곤 씨가 2월 11~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서 '기와 속에 깃든 佛' 전을 연다.

기와 위 금박으로 표현된 '佛빛'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불화가 김석곤 씨가 2월 11~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서 '기와 속에 깃든 佛' 전을 연다. 김 씨는 이번 전시에서 기와에 금니와 금박을 입힌 기법의 작품을 보여준다.

작가는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에서 기와를 기증 받아 암키와와 숫키와에 '佛빛'을 주제로 작은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해 냈다.

"흥천사에서 행사 기간 동안 기와에 불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가자들이 기와에 그림을 그리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품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김 작가는 흥천사가 보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와를 기증받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보통 감지 위에 금니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와에 금니를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터. 작가는 오랜 고민 끝에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작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전각의 지붕 위에 있던 기와로 조선시대 때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수 작업 덕분에 흥천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기와에 금니와 금박을 이용해 불보살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와의 표면을 그대로 살리고 금니를 묽게 써서 불상을 표현해 음영대비가 일어나도록

2월 11부터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흥천사 기와에 금니로 불보살 표현
"대중들의 간절한 염원 투영"


김석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와에 금니 작업으로 부처님을 표현했다.

했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반복해서 하다보니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기와 위에 부처님의 형상을 표현해 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냈다. "순금박과 금니를 사용해 금인(金人)인 부처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부처님 법의 영원성을 상징하죠. 전시가 끝난 후 기와작품은 흥천사에 기증해 흥천사 복원불사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석곤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48호 단청장 이수자이며 흥천사 불화소 화원으로 전통 불화작업과 문화재복원 보수 그리고 전통문화상품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733-444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김충현 현판글씨-서예가 건축을 만나다'

2월 25일까지 관훈동 백악미술관서



한국 서예의 대가 김충현의 현판 글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내소사 일주문 편액

전북 부안 내소사 일주문, 경기도 동두천 자재암 일주문, 고창 선운사 일주문 등의 편액을 제작한 한국 서예의 대가 일중 김충현(1921~2006)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일중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년)가 주관하는 '김충현 현판글씨-서예가 건축을 만나다' 전이 2월 25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충현은 동생인 여초(如初) 김응현(1927~2007)과 함께 한국 서예를 이끈 양대 산맥으로 불렸다.

이번 전시회는 일중 선생의 작품 중 현판 실물 28점을 비롯해 사진, 탁본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또한 궁궐, 공공건물, 서원, 지인들의 집 등에 흩어져 있던 현판 175점을 1년 6개월에 걸쳐 사진으로 찍어 도록으로 펴냈다. 도록에는 현판 글씨가 붙어 있는 건물 전경을 찍은 사진이 실려 이해를 돕는다.

전시를 주관한 일중선생기념사업회는 "이 전시는 김충현 선생이 다양한 계층에게 써 준 현판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 지성인들 간의 교유관계를 밝히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그의 현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시기별 글씨를 통해 서풍의 특징과 변화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 1부에는 지인에게 써준 작품 등 사적인 현판이 2부에서는 사찰과 유적지 등 공적인 현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건춘문(建春門)'과 '영추문(迎秋門)' 글씨 사진, 한글로 쓰인 '독립기념관' '한강대교' 탁본 등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02)734-4205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복수가 나의 것' 이라면… 모두 파멸

영화 '복수는 나의 것'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가족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집착이 빚어낸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펼친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2002)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1탄이다. 이후에 나온 '올드 보이'와 '친절한 금자씨' 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탄탄한 스토리로 박찬욱 감독 스타일의 영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작품이라 평가하고 싶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집착이 빚어낸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실고 있다.

선천성 청각 장애인 류(신하균 분)에게 누나(임지은 분)는 유일한 가족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누나를 위해 류는 장기밀매단과 접촉해 자신의 신장과 전재산 천 만원을 넘겨주고 누나를 위한 신장을 받기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나고, 그 때 병원으로부터 누나에게 적합한 신장을 찾아냈다는 전화가 걸려 온다. 수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괴로워하는 류를 보고 그의 연인 영미(배두나 분)는 아이를 유괴하자고 제안한다. "딱 필요한 돈만 받고 돌려주는 거야. 이건 착한 유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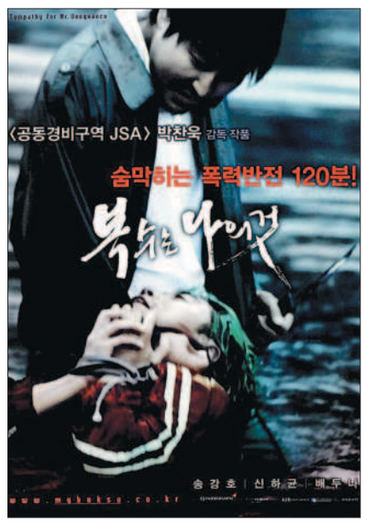
정말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순된 사회에서 부자의 아이를 잠깐 유괴하는 착한 방법을 통해 절박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이라는 영화의 카피처럼 영화의 주인공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다.

류와 영미가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체의 사장 동진(송강호 분)의 딸 유선(한보배 분)을 납치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 점점 더 잔혹해지는 복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작된 유괴는 또다른 죽음을 몰고 오고 이를 위해 복수의 윤회가 거듭된다. 영화는 잔인한 복수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망자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업이 맞물리면서 빚어지는 아비규환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교화시킨 부처님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와 "아들을 살릴 약을 달라"고 애원한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마을로 내려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겨자씨 몇 개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약을 주겠다"고 말한다.

가족 잃은 슬픔 복수 칼날 세워
꼬리에 꼬리무는 비극의 윤회
주인공 스스로 파멸의 길 자초
부처님 '아들 잃은 여인' 이야기로
'죽음' 인간사 일부임 일깨워줘



그녀는 마을곳곳을 찾아다니며 묻는다.

"혹시 당신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오래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2년 전에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인은 또다른 집을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지 물었다. 열 집, 스무 집 끝없이 돌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결국 여인은 어느 누구의 집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결국 그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화장터에 던지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이제 그 일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이제 저의 귀의를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 착하디 착한 여인이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지. 세상사 그 무엇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인은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 밝은 눈빛이 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물론 예상치 못한 죽음, 또 억울한 죽음도 있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들의 죽음은 모두가 억울하다. 어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억울한 죽음임에 분명하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상대를 향해 칼이 되어 날아갈 때 복수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복수가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복수는 또다른 업이 되어 윤회를 거듭한다. 그러니 복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의 것인 동시에 너의 것이 되어 모두를 불행에 빠트리고 만다. 결국 모두가 파멸이다.

보왕삼매론에 이런 말이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도웁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사바세계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함을 밝히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는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또다른 원망을 낳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억울함에 휩싸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 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 2의 화살, 제 3의 화살은 맞지 않아야 하므로.

정혜숙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강남 : 010-5097-08291
의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창원 : 010-8008-1110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해인사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Experience of Reality
L'Expérience de la Réalité
La Demostración de la Realidad
实证说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방거사어록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8 ~ 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3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6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스님	불광출판사
7	몰입이 시작이다	스티븐 스나이더	불광출판사
8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9	연기와 우주인드라망	이시우	종이거울
10	우리말 선문촬요집	천봉약산	통도사취운선원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연등회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고유문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축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고유문화로, 부처님 같이 마음과 세상을 밝히기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축제이다. 연등행렬을 비롯해 연등 전시, 민속행사, 공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직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펼쳐지며,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 같은 주요 행사는 주말에 치러진다.

이 책은 연등회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화보와 함께 담았다. 연등회 프로그램에 대한 길라잡이서 연등 제작법, 연등회의 역사와 의미 등에 이르기까지 연등회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는 '연등회 백과사전' 이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움직이는 등' 축제

부처님오신날 즈음이면 전국은 빛의 예술로 빠져든다. 특히 서울은 동대문서 종각사거리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빛의 물결, 이것이 바로 연등회, 빛의 축제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등을 밝히며 이어져 온 세월이 무려 1,300년,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다.

연등회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관람객이 가장 많으며, 축제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수도 가장 많다. 2014년 연등회보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30만여 명, 외국인 2만여 명이 연등회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등(燃燈)의 뜻과 유래

'연등회' 라고 하면 간혹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본 떠 만든 등을 들고 행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등(燃燈)이라고 한다. 4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회는 인간은 누구나 노력에 의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성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자, 누구라도 정진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돌이켜보는 날이다.



천년을 이어온 빛 연등회
연등회보존회 엮음
불광 펴냄
1만 7천원

종교 의식 속에 스며 있는 한국 전통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연등회는 지난 2012년 4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등재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점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다. 연등회는 불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나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일상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이어져 왔다.

연등회의 5가지 코드…세계적 축제 원동력

▲**빛**=연등회는 단순히 전통적인 볼거리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빛' 이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축제의 중심이다. 한마디로 빛의 축제다. 부처님오신날 전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에 켜둔 '거리 연등' 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외국인들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평소 익숙했던 거리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좋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흥=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 이다. 연등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에너지와 흥, 열기에 놀란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움직임마다 역동적인 힘이 느껴진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과 화려한 불빛, 행렬단의 환한 표정과 힘찬 발걸음……, 이러한 역동적인 에너지는 관람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회향한마당에서 바로 옆의 낯선 사람과 노래를 부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강강술래를 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즐긴다.

▲정성=불교경전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구걸해서 얻은 동전 몇 닢으로 정성껏 밝힌 등불이 왕이 화려하게 밝혀놓은 등불보다 밤새도록 환하게 빛났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일화가 전해진다. 등을 밝히는 일은 '정성스러움' 이 최고임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연등회에 등장하는 장엄등과 행렬등도 정성으로 만들어진다. 연등행렬 참가자들이 모두 일일이 손으로 만든다. 네댓 사람이 이끄는 장엄등의 제작 기간은 단체별로 6개월 이상이다.

▲공동체성=전통사회의 이상향은 대동사회였다.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며 서로 책임지며 배려하는 사회가 대동사회다. 인류가 꿈꾸는 차별 없는 대동사회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즐긴 것이 대동놀이다. 더불어 함께 일하고, 만들고, 즐기고, 맺힌 것을 풀어가며 통섭하는 과정이 대동놀이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축제의 원형이다.

▲자발성=연등회는 오롯이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운영되며 그 수가 천여 명에 이른다. 등을 만들고 문화체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자부심과 사람들에게 연등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긍지가 이들의 유일한 보상이다. 김주일 기자

아홉 선지식 통해 듣는 야단법석 간화선 법문



해뜨니 낮이요, 달뜨니 밤이로다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조계종 수행법의 '최상승법' 또는 '지름길 수행문(徑截門)' 이라고 하는 간화선은 화두를 참선하는 선 수행이다. 본래의 성품자리를 바로 보고 단박에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온갖 말의 향연이 끊어지고, 마음속의 갖가지 번뇌가 끊어진(言語道斷, 心行處滅) 자리서 화두라는 의심 덩어리 하나에 집중할 때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하기 때문에 온갖 주의주장과 삿된 이론들이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곧 부처이고(卽心是佛),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인 평온한 세상을 열 수 있다. 그렇기에 간화선이 21세기 문명을 이끌 대안 사상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생활 방식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참선 수행은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 즉 본래의 마음자리인 '참 나' 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자신 안의 극락을 찾아서 영원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행할 수 있기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욱 적합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복지회가 주관한 '간화선 대법회' 가 열렸다. 9일간 이어진 법석에서 진제 법원 종정예하를 비롯해 석종사 금봉선원장 금아 혜국 대선사, 용화사 회주이자 원로의원인 미룡 월탄 대종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며 원로의원인 학산 대원 대종사, 축서사 문수선원장인 금곡 무여 대선사, 덕숭총림 방장인 송원 설정 대종사,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인 두암 현기 대선사, 죽림정사 조실이며 원로의원인 불심 도문 대종사, 그리고 문수산 금봉암주이며 역시 원로의원인 은암 고우 대종사 등 우리 시대 선지식 아홉 분 스님들께서 간화선을 통해 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 책에 수록된 법문들은 간화선 대법회서 설법한 법문들을 모아 엮은 간화선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스님들께서는 설법을 통해 간화선의 역사를 비롯해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과 함께 수행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일러 준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참 나' , 바로 '주인공의 진면목을 보라' 고 말한다. 그 진면목은 돈이나 권력,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간화선을 통해 하나의 화두를 간절히 참구해 생각의 한 계가 끊어질 때 문득 생사윤회를 벗어나 진실한 본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예로 스님 자신의 수행 경험도 함께 들려주면서 설법 내용에 대해 더 쉽고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간화선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서 수행했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흔히들 어렵다, 잘되지 않는다고 하며 곤란해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홉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실천에 옮긴다면 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어렵지 않게 본래 진면목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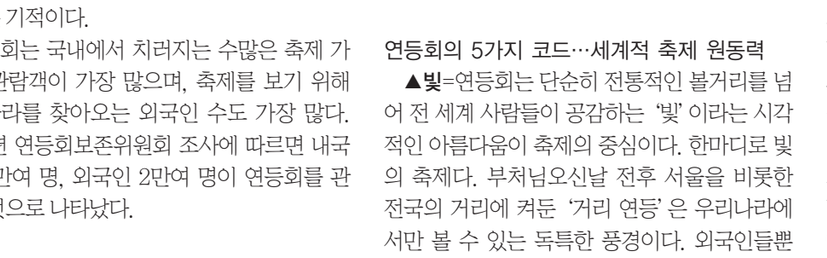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 긋기

"어디에도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명예도, 부귀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완전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참 나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참 나가 누구인가? 보고 듣는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 의문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의 본질과 근원을 찾아서 바로 그놈만 깨달으면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저 한강 다리 밑을 헤매며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해도 참 자기를 깨달으면 웃으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 건강이 아무리 풍족하게 주어진다 해도 늘 허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화선에서는 닦는 것이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부득불 마지못해서 그 문제는 네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간화선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무기로 말하자면 핵폭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기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핵폭탄, 그래서 한 번 던지면 싹 다 끝나 버립니다. 이처럼 간화선에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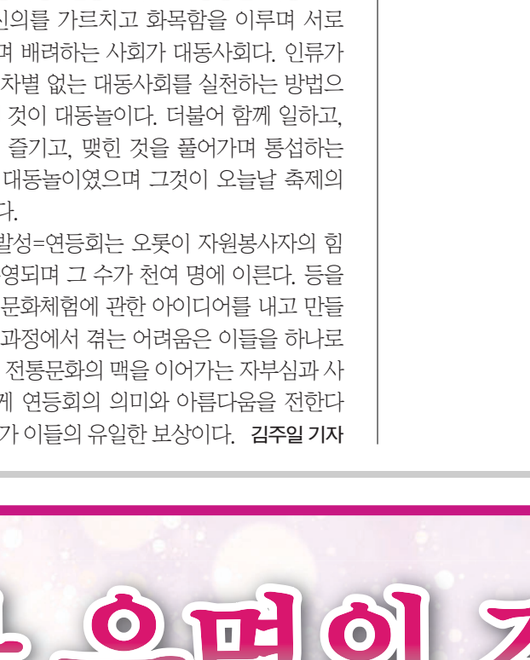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문부 • 천신통령부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링타리스만부적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 • 희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분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 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책 속의 밑줄 긋기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라고 했으니, 이렇게만 본다면 염세적 아우라가 풍기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다 포기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분명 불교는 염세주의가 맞다. 그러나 나의 현실이 괴로운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괴로운 현실을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찾아내서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문제의식이 없다면 행복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중에서

Books

"종교와 인문학은 불교라는 새의 양날개"



불교란 무엇인가
글 이일야
담앤북스 펴냄
1만2천원

불교에 씌워진 오해의 더께 걷어내기

허무주의, 염세주의, 절대적 관념론…. 인구에 회자되는 불교라는 단어에 따라 붙는 꼬리표들이다. 기복이나 미신이라는 극단적인 폄훼는 아예 접어두기로 하자. 그래도 여전히 숙명이나 사주팔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탠스는 다르지만 이런 오해는 공부깨나 했다는 학자들이나 불교계 내부에서도 왕왕 벌어진다. '참나를 찾아서'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다. '나'라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는 아트만을 전면 부정하고 무아(無我)를 전면에 내세운 불교에 '참나'는 가당치 않은 말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불교를 곡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책은 이런 양극단의 오해의 더께를 걷어내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20여 주제, 비교와 대조 통해 분명진 '불교'

이 책에는 흔히 불교에 대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혹은 혼동할 수 있는 20가지 주제들이 펼쳐져 있다. 그 주제들 하나하나는 대비나 비교를 통해서 제시된다. 우선 연기론은 이원론과 무상은 허무와 무아는 자아와 업은 숙명과 함께 나온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현실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낸다. 허무와 무상을 대조한 장을 살펴보자.

"흔히 불교는 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는 결코 불교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교는 허무주의로 오해를 받지만, 이런 오해는 무상이라는 말에 담긴 삶의 적극성과 긍정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무상이란 말에 담긴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벚꽃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거나 지나간 인연과의 이별이 덧없다하여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불교적 대안이 아니다. 삶은 무상하므로,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소중히 가꿔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 진짜 속내다. 그런 점에서 무상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벚꽃이 모두 떨어졌다 해서 삶이 덧없다고 생각하거나 벚꽃이 만발했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꽃이 지고 새롭게 피어난 연초록의 푸른 잎들에 대한 모독이자 현재를 사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과 자신을 모독하는 삶이 바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허무와 무상 같이 대비되는 주제도 있는 반면 지식이나 지혜처럼 이웃해 있는 문제들을 펼쳐놓기도 한다. 반대편과 비교해 봄으로써 오해를 없애는 방법이 한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웃해 있는 주제를 비교해 보는 건 혼동되는 주제들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작업이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주제를 더욱 넓혀서 이성과 신앙,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닫힌 종교와 열린 종교를 비교해 보기도 한다.

"불교는 인문학이다"

저자가 글을 쓰면서 내내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 내지는 논조는 바로 "불교는 인문학"이라는 명제다. "인문학은 일종의 자기 성찰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모색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불교도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왜곡된 신앙으로 흐르기 쉽다. 불교가 자신의 안위나 경제적 이익을 구하는 기복 불교로 흐르는 것은 바로 나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불교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비교해 보고 대조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자 하지만 그 분명한 이해를 통해 저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다.

믿음이 종교적 신앙이라면 이해는 인문학적 사유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바른 불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믿음만 강조되면 불교가 왜곡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 반대로 이해만 강조되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종교와 인문학은 불교라는 새의 양 날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일야는?

일야(一也)는 법명이자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전북대, 전주교육대, 송광사 승가대학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한국불교 등을 강의해 왔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나옹선의 실천체계〉〈진심(眞心)과 오수(悟修)의 구조〉 등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서 연구처장을 맡으면서 불교사상과 경전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내 행동 모두 헛발질" 깨닫게 해준 〈수능엄경〉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군 없애는 법 자세히 소개
쉬운 용어 사용, 대화체로 편집
저자, 번역하면서 수행 방편 삼아
〈불공〉과 〈반라밀제〉 번역본 비교 설명

〈능엄경〉은 밀교부에 수록돼 있으며 인도 바깥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하라는 왕의 엄명이 있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만큼 귀중한 경전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중국서 많이 가필돼 거의 중국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의 주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보리심을 얻게 되고 진정한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 것으로 봐서 중국 선가의 실천도와 근접하며, 밀교적인 색채가 짙다.

총 10권으로 구성됐는데, 부처님 제자인 아난다(阿難陀)가 마등가 여인의 주술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님 신통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 나서 선정의 힘과 백산개다라니의 공덕력을 찬양하고, 이 다라니에 의해 모든 마귀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해 여래의 진실한 경지를 얻어 생사 고뇌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임을 밝혔다.

〈능엄경〉 소개를 좀더 한다면 우리나라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참선 과정서 나타나는 갖가지 마군의 유혹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법을 자세히 밝혀 수행 길잡이로서 좋은 경전중 하나다. 특히 여래장사상을 적시하고 미혹을 벗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어 불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의 번뇌 속에 내재된 본래 청정한 여래 법신인 여래장은 번뇌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청정하며 영원히 변함 없는 깨달음의 본성이다. 따라서 중생들의 미망 그대로가 여래장을 가리우고 나타나는 현상이며, 삼세 여래가 모두 이 여래장을 구현한 이들임을 이 경은 설파한다. 그러나 미혹으로 가득한 현상을 꿰뚫고 여래장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능엄경〉 제 2권에는 이렇게 설한다.

"진실로 생멸거래(生滅去來)가, 상주하고 묘명하며 동하지 않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 본래 여래장의 성품인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여래장을 찾아야 할까? 〈능엄경〉은 이에 대한 답으로 사마타 관법을 제시한다. 우리 마음인 영대, 곧 대원경에 끼인 때, 번뇌를 지(止)의 수행으로 정화하는 것이다. 사마타 관법으로 환심(幻心)인 망념을 떨치고 참마음이며 진리로서 영원한 주체인 불성 곧 여래장을 찾아나가야 함을 설한다. 즉, 미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능엄경〉에서는 수행할 때에 나타나는 마군의 정체와 판별법, 마군을 없애는 법을 자세히 일러준다. 마군은 특별한 게 아니다. 수행하지 않는 이에겐 그 삶 자체가 마군의 세계이므로, 마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수행하고픈 발심을 내고 수행에 들면 그제야 마군의 존재를 본다. 이 마군의 세계는 그 자체로 공한 것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한 엄연히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의 세계에 얽어맨다. 마군 반대에 있는 것은 바로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다. 마장이 미혹을 만드는 어둠이라면, 여래장묘진여성은 광명 그 자체이다. 광명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여래장묘진여성을 깨닫게 되면 망상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마군의 세계는 절로 스러진다. 마군의 세계, 5음(五陰)의 마구니는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색음(色陰) 마구니는 견고한 망상이, 수음(受陰) 마구니는 허명한 망상이, 상음(想陰) 마구니는 융통(融通)한 망상, 행음(行陰) 마구니는 유은(幽隱)한 망상이, 식음(識陰) 마구니는 허무한 전도(顚倒) 망상이 빚어낸 것이다. 이 오음 마구니가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혹됨에 있다. 미혹됨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수도해 끊어야 할 견사혹, 습기에 의해 먼지나 모래처럼 많은 진사혹, 여래장묘진여성을 알지 못해 생기는 무명혹이 그것이다. 이 미혹됨이 만드는 탁(濁)한 세계가 바로 우리 현실인 것이다. 오음의 갖가지 망상이 만드는 마구니들을 모조리 퇴치해 그에게서 해방될 때, 수행자는 해탈해 대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목표임을 〈능엄경〉은 설하고 있다.

그래서 대승경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도 〈능엄경〉은 수행하는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꼭 읽어야 할 경전이다. 불교TV사장을 지낸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가 〈수능엄경〉 해설을 펴내 눈길을 끈다.

국내에 능엄경 번역본이 다수 있지만 사용한 용어 대부분이 한자라 한글세대들이 읽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점을 고려해 이수덕 대표는 가능하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대화체로 편집했다.

이 책은 뒤늦게 불교공부에 매진한 이 대표가 〈불교수행과정서 나타난 마장과 대치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열의 연장선상에서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다. 특히 이 대표는 〈능엄경〉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
이수덕 편역
시사뉴스매거진 펴냄
3만 5천원

저자인 이 대표는 머리말에서 "나이가 들면서 내 행동이 모두 헛발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어둠속에서 더듬어 온 어리석은 삶을 알게 된 것은 〈수능엄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부터다"며 "이 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본업은 플랜트 업체와 온천 등 4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에 발심한 건 불심이 두텁다고 알음알음으로 소문이 나 1999년 불교TV 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동국대 대학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이 대표는 "수행의 근간인 계율만 잘 지키면 보고 듣기에 편치 않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다 수행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한다.

저자는 〈능엄경〉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불공번역본〉과 〈반라밀제 번역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부분은 붉은 글씨로 대괄호로 표기했고, 불공본에만 있는 부분은 붉은 글씨로 중괄호로 써놓았다. 또한 불공본에는 없는데, 반라밀제본에만 있는 부분은 검정 글씨로 중괄호안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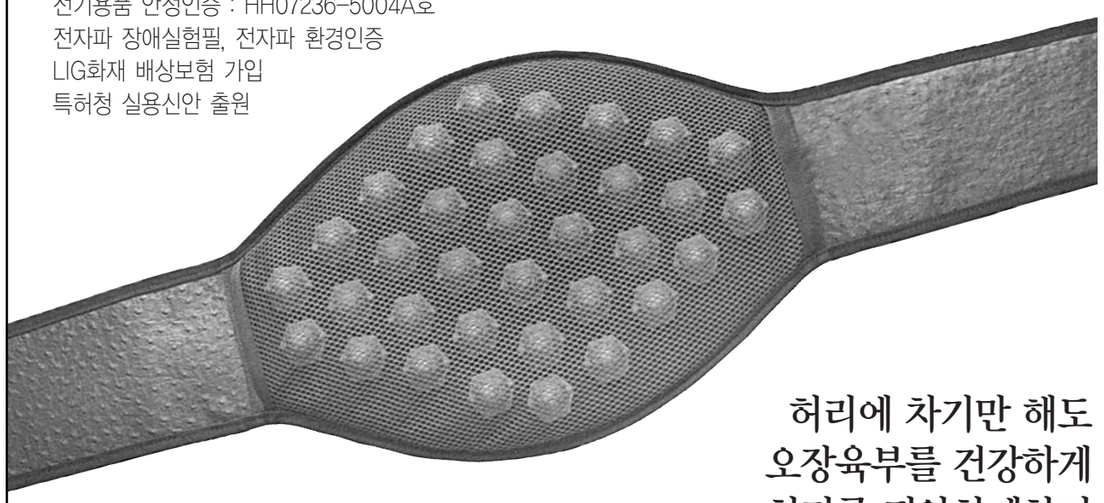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동아시아 중세 불교시의 새로운 광맥

불교로 읽는 古典

임유정의 〈백가의집〉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고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새로운 가치를 주는 책이다. 고전의 정의도 국가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높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말한다. 여기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는데 이 중 시문학에서 대표적인 문집이 바로 고려 명종 때 임유정이 남긴 〈백가의집〉이다.

사실 〈백가의집〉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필자가 〈백가의집〉을 고전으로 꼽았다면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고전에 속할 정도의 오래되고 중요할뿐더러 불교사로도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도록 한다.

하나의 책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고역에 해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행운인지 고역인지 비교적 많은 고전을 새롭게 찾아서 저술을 간행하는 기쁨이 있었다. 새로운 고전을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생에 드문 행운인데 이를 연구하여 저술을 냈다면 더욱 영광이다. 고역이란 점이 사치스런 너스레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필자는 정년을 맞이한 다음 해인 2009년 '임유정(林惟正)' 이란 고려 명종 때의 문인이 남긴 〈임제주백가의시집(林祭主百家衣詩集)〉이란 문집의 오랜 연구를 마치고 간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7년 전 이 책을 찾아 간단히 논문을 쓰고 전문을 사진으로 소개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판독하거나 전부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5년간 고역을 치르면서 판독하고 5편의 논문을 썼다.

〈백가의집〉은 당과 송 등 당시 동아시아의 문학을 모은 시집으로 집구체의 하나인 '백가의체' 로 저술한 책이다. 집구체로 쓰인 고려시대 책으로는 유일하다. 이 책에 쓰인 '집구체' (集句體)란 타인의 시구를 자신의 시구처럼 조합하여 시상을 나타내는 시의 새로운 문체를 말한다.

보통 어느 작가든지 경전이나, 기존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여 시를 쓰곤 하지만, 백가의집에 실린 집구체는 독특하다. 무제한으로 시구를 사용하는 창작이다. 그래서 바로 백가의체(百家衣體)라고 불린다. 이러한 시체는 흔히 모방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난이도의 기억과 당시의 유행한 시와 문체를 보여주는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

이 〈백가의집〉은 조선시대 '서거정' 등이 펴낸 〈동문선〉에 책의 일부가 실려 있을 뿐 전해지지 않았다. 광복 전에 이 책이 있었다는 도서목록은 있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조사결과 이 책의 판본 중 인본이 3종이 존재했다. 그 중 가장 온전히 보존된 인본은 성암박물관 조병순 관장이 소장한 판본이었다. 나머지는 모두가 앞뒤로 훼손된 결본이었다. 사본도 3종이 확인됐지만 마멸이 심한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틀린 부분이 많았다.

시승들의 문학성 만날 수 있어

〈백가의집〉에는 당 말기와 5대, 북송과 남송 시대까지 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시승(詩僧)들의 시구가 실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백가의집〉에는 제기(齊己), 지각(智覺), 지원(智圓) 등 신분을 밝힌 스님들의 작품이 실렸다. 제기 스님은 30회, 가도 스님은 23회, 지원 스님은 21회로 각각 10회 이상 수록된 30인의 시인으로 10위와 19, 20위에 올라있다. 이들 3인은 만당부터 북송의 전반을 이끌었던 대표적 시승으로 세속의 시인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무본(無本) 스님은 환속해 가도(賈島)로 이름을 남겼으나 무본으로 실린 시구는 〈백가의집〉에만 현존하고 청 건륭시대에 정리한 〈전당시(全唐詩)〉에는 실리지 않았다. 또 가도로 남긴 시는 23구 중 7구가 현존한다. 이들은 시단을 풍부하게 북돋은 당대의 대표적인 시승으로 이들을 통하여 당시 시승의 위상과 불교시문학의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僧), 또는 석(釋)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거나 이름조차 애매하게 수록한 이들의 작품이 많다. 이들의 시구는 일부가 현존하고 있어 쉽게 스님으로 확인 된다. 작가가 확인되지 않는 시구는 시의 내용과 이름을 대조해, 이미 알려진 고승으로 유추하는데 교연(皎然), 찬령(贊寧), 혜홍(惠洪) 스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당송시대 詩 모은 〈백가의집〉
적지 않은 詩僧 작품들 실려
중국에 전해지지 않은 시 다수
고려가 東亞 교류 중심임 증명

이밖에도 시의 내용과 이름이 법명으로 추정되는 것도 적지 않다. 무측(無則)과 법진(法振) 스님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이름은 〈전당시〉에 실려 있어 당의 시승으로 짐작된다. 법진 스님은 당의 대력과 정원 연간에 활동한 고승이며, 무측 스님은 활동연대가 불확실하다. 이밖에도 스님으로 추정되는 작가명이 많다.

〈백가의집〉에 실린 시승들은 대부분 양자강 유역에서 활동하였고, 황하 유역에서의 활동기록은 드물다. 대부분이 선승이며 특히 오대의 선승은 남쪽의 10국에 머문 사실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들의 시구는 29% 수준으로 이는 당시 시인들의 시구가 현재 전해지는 비율과 다르지 않다. 주로 난세에 살았던 시승(詩僧)의 시와 북송 신법당에 속한 인물의 시가 구법당보다 전해지는 비율이 낮다. 이를 보면 고승끼리 교류가 속인보다 훨씬 활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백가의집〉에 보이는 고려의 위상

〈백가의집〉은 세속의 시는 물론이고 당과 송의 불교시를 연구하는 새로운 금광과 같다. 〈백가의집〉을 보면 오늘날 중국에 전해지지 않는 시들이 고려에서 보존되었음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역할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당시나 전송시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시구가 다수가 발견되고 있어 당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조선 화가 윤두서가 그린 '노승도(老僧圖)' . 옛날 중국과 한반도에 시를 짓는 능력은 곧 수준 높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였다. 당송 시대 시구를 모은 〈백가의집〉에는 시승의 시들도 대거 실려 있다. 스님들 역시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오래 전부터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사의 난' 이후 당 현종이 촉으로 몽진한 이래 황하유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의 지위를 상실했다. 동아시아 중세의 시작인 남북조시대에 중국본토는 문명의 위기를 겪었다. 양자강유역으로 경제는 물론 문화의 중심이 바뀌고 한반도의 신라와 고려로 이동하여 계승되었다.

8세기 중반 '안사의 난' (755년)과 당 무종의 폐불(844년)과 오대의 혼란은 사상계에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해상을 통해 양자강유역으로 이동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유산을 충실하게 흡수하고 활용했다. 〈조당집(祖堂集)〉이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보면 당과 송의 선승들은 "불법이 해동으로 떠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고려에서는 특히 당송시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의 불교유산을 이룩해 나갔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고 유학이나 토속신앙도 모두 불교의 그늘에 있었다. 고려사를 자세하게 파헤치면 그것이 곧 불교사였다.

예를 들자면 고려의 중요한 명절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되었으며 그 날의 중요한 행사는 불교식으로 진행됐다. 국왕부터 일개 국민까지, 또 부모의 제사부터 국가적인 축제에 까지 중요한 부분은 불교식으로 수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적이나 유물은 불교와 관련됐다. 서양의 중세시대, 가톨릭을 제외하고 연구한다면 이 연구결과가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이듯 고려시대는 불교를 제외하면 영혼이 없는 저술이라 불릴 정도다.

새로운 문명의 보고로 자리해

1981년 필자는 고려의 과거제도에서 출제된 과학기술에 대해 밝히며 고려는 동아시아의 고전을 잘 보전할 뿐만 아니라 활용했다는 내용도 확인한 바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 고대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운데 시를 이용해 다시 동아시아 시문학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나갔다. 〈백가의집〉에 인용된 새롭게 발견된 시구가 이를 증명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황하유역보다 안정된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였다. 황하유역인 중원에서 없어진 고대 동아시아 유산을 축적하고 보존해 중세에는 고려가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다만 불행하게도 고려말기 왜구와 조선중기 임진왜란, 그리고 근대의 화이사상에 찌든 일부 지식인에 의해 고려의 유산이 평가 절하됐다.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중 특히 불교문화유산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소중함을 알지 못해 파괴되고, 혹은 일본으로 옮겨졌다. 고려의 화불과 사경(寫經)의 경우 8할 이상이 일본에만 있는 이유가 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의 이동은 마치 사하라와 아라비아 사막의 확장으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지듯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었다.

고려에는 고려뿐 아니라 당과 송과 몽골제국의 시문과 저술이 참으로 많이 전해졌고, 지금도 전하는 사례가 많다. 남송말기부터 몽골제국의 전반기까지 생존했던 '몽산덕이' (蒙山德異)의 저술은 물론 그가 불교의 관점에서 도교의 중심경전인 〈직주도덕경〉(直註道德經)을 풀이한 문헌이 한국에만 전해지고 있다. 몽산덕이의 간화선은 조선시대의 불교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 함허기화의 저술에도 그대로 답습된 사실이 확연하다. 그 후 몽산덕이의 저술이 다시 임진왜란 중에 강남의 종군자에 의하여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 명말 네 분의 고승(明末四大師)의 저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백가의집〉에 실린 시구는 향후 연구과제가 된다. 작가 하나하나의 작품이 충분한 논문거리다. 아직 국내외 학계는 극히 일부, 〈동문선〉에 실린 작품에 의존한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십초시와 함께 전당시와 전송시에 빠진 다른 자료를 종합하고 일본에서 정리한 〈천재가구(千載佳句)〉등과도 비교할 과제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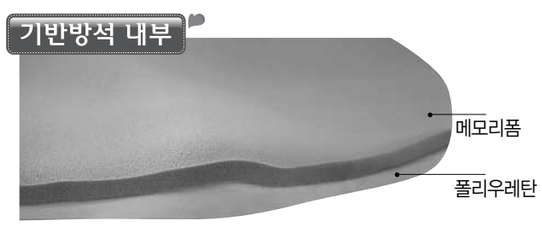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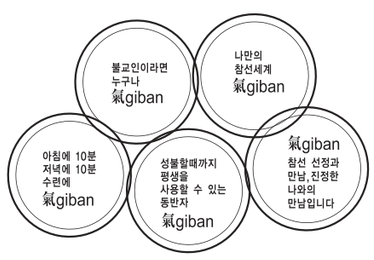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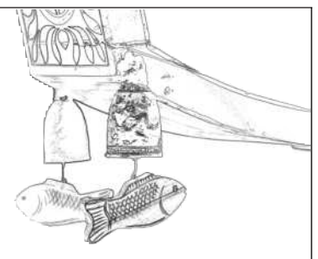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 음 범 패 대 학

대한전통불교범음범패대학
작법,천수바라,법고
(송주북,정근북,태징)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번지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010-8741-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손도사 쿤스님의 생불 生佛

10년 산속토굴기도 '독성생불' 이야기
이야기천기누설로 가르쳐는 불도력
손도사 쿤스님의 生佛 생불
太山國師堂 손도사 著
선물과 재탈을 독성으로 이루고 선분과 종파를 초월하여 대자유인으로 사는 도승의 가르침!
'세상은 아는만큼 보인다'
인터넷 "손도사" 검색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지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 010-4593-2918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4540-0061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517-5623

무보수로 산사에서 가족처럼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공양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창녕)
010-3753-7844

정월 한달만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김해 장유 신도시지역)
* 일웅스님을 찾습니다
010-3499-372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치유상담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스님 010-7321-0404. 010-4034-5829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구 천 사
- 법명 : 상원 - 속명 : 박만길
- 승려번호 : 04-037
- 사찰주소 :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산 8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한국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법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 시내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 전망
- 총부지 : 5,000여평
- 주거지역 800여평
- 자연녹지 4200여평
- 좋은 조망권 드넓은 사찰부지
- 가액 : 15억원(은행 3억원 포함)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
※전국사찰 30년 역사※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암 자 양 도

- 위치 : 김천시내
- 1층 건물 약 60㎡, 깨끗한 인법당
- 토지300㎡, 주차가능
- 양도금액 : 1억 1천만
- 융자가능. 앞은 마을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50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매가 : 11억 5천 ◎ 매가 : 8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부근 익산 사찰 양도
* 법당50㎡, 요사채 80㎡, 건물 2동
* 토자800㎡ 남향으로좋은사찰
* 양도가 : 1억 2천만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강남 중심지 법당, 포교당임대

- 위치 : 논현역, 신논현역중심가.더블 역세권 지역
- 지하철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구간 3월개통
- 교통편 좋고 유동 인구 많음
- 단독주택, 솟대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마당, 아담한 토굴법당
- 주택내부 올수리(수리비내역서있슴)
- 지상 1층,반지하1층(내부계단있어 편리)
- 법당2/스님방1/거실2/주방2/상담실/산신각/다용도창고/화장실2
- 스님들 행사문제없음. 포교원으로 시작하기 좋은자리
- 가액: 6,500만원, 월세 180만원(주변시세보다 저렴)

010-5913-7239
010-3145-8626(종무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마산시내 중심 포교원

- 위치 : 마산
- 별도의 수리없이 바로 법회 가능
- 법당 50평, 삼존불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9325-7286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10-9235-751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농협 : 구포지점 ↔ 신협)
- 2층 50평 건물(법당 올수리, 옥상단독 사용)
- 시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칠성단, 소불 200불
- 친견실1, 객실2, 공양간 식당
- 즉시법회 몸만오세요! 민원없음!!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5348-2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을,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잘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145평
- 구조 : 법당 삼존불,
-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천만원

010-5914-57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 대지 1,019평 대웅전(木)20평. 종각(木)4평
- 산신각, 용왕각, 종무소, 요사채 3동
- 가액: 4억(절충가능)

010-3517-222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산자락에 있는 인법당
- 법당, 방3, 마당, 텃밭 주차장
- 가액 : 1억 3천만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5

051)861-223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개원 8개월)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0-4541-1140
051)532-114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117.13㎡
(2) 2층 건물-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 지하수, 난방 : 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 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 전원주택 최고 조건

연락처 : 010-3131-21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
- 평수 : 60평
- 법당, 친견실, 공양간 등 예쁘게 꾸며져 있슴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
- 초대형 극장식 간판, 미니 실내정원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전세로 조절 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조용한사찰
- 가액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가능함 (중계보조원)

010-5534-7239

토굴(암자)급 안내

해외 이주 관계로!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사 조용한곳
- 대지 약300평 법당.주차장넓음
- 요사채.방 4개 거실. 화장실
- 범패 제 할 수 있는곳.
- 관세음보살(칠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특수후불.칠성. 감로탱화. 시설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010-9945-2030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 전 46,384㎡(14,030평) (올 계획관리)
- 얼음골과 관정이 있고 계곡이 있음
- 펑창, 인제, 정선 개발촉진지구 구역임
- 가액: 평당 8만원(조절가능) 주인직
- 전에 절에서 연락이 옴

010-3186-6890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7·끝〉 내게 돌아오는 길

"진정한 변화 원한다면… 바르게 보세요"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핵심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내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통 회피 또는 활용하는 것 뿐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 뚫고 나오는 것
사성제와 마음챙김은 고통직면 수행

트라우마에 파괴당하지 않으면
관계맺기 · 타인의 고통 공감 확대

붓다가 해낸 것

붓다의 영적 여행에는 그가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코 알아내지 못한 어머니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발달' 또는 '관계'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 초기의 몇 년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형성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푸근하고 편안한 부모와 아기의 건강한 애착관계는 정서적인 편안함을 북돋움으로써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 무난한 삶과 인간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초기 몇 년간 부모와 서로 잘 맞지 않아 트라우마의 자국이 남으면, 이후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맞기도 한다. 우리처럼 붓다도 이런 트라우마의 흔적을 경험하고 행동화했다. 아내와 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

붓다의 영적 여행은 적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원적인 고통의 한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다. 원초적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기원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준다. 또 우리 모르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처를 행동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붓다의 인생 이야기는 이 주제에 딱 맞아떨어진다. 붓다 인생의 핵심부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트라우마, 바로 어머니의 상실이 존재한다. 그 어머니는 인생의 첫 주에 아이의 탄생에 기쁨을 느꼈을 뿐이다.

이 상실이 붓다의 암묵 기억 속에 잠재하면서, 붓다가 느끼기는 하지만 알아차리지는 못하게 붓다의 체험을 물들이며 '자기 증오' 와 불만족의 감정을 부추겼다. 신경과학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조지프 르두는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후, 정서 기억은 영원히 지속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서 기억에 깊은 상실이 각인되어 있는 붓다는 가장 근원적인 일상의 트라우마,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든 처리했어야 했다. 그리고 붓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작업을 마쳐야 했다.

붓다는 분명하게 말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사성제와 네 가지 마음챙김을 가르쳤다. 숨에서 시작해 몸, 느낌, 마음, 의식 그 자체로 마음챙김을 점차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마음을 여는 데 트라우마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태로운 경험을 더는 해리하지 않을 때, 피하고 싶은 인생의 요소들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붓다는 어릴 적 잠부나무 아래서 만끽한 기쁨을 기억해냈을 때 이 안식을 맛봤다. 일상적인 자기비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고서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했을 때, 붓다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상호협동적인 소통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붓다는 자기 어머니가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던 기쁨을 재생산해냈다. 동시에, 아기와 엄마를 좀먹는 공포와 접촉했다. 그에 이어 자신의 방법을 재구성하는 중에, 붓다는 감정이 자신을 주눅 들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원초적 고통의 불쾌한 감정도 충분한 연습을 통하면 능히 관찰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비극일 뿐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모두 어떤 형태로 내재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는 나의 힘

붓다의 가장 근본적인 발견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트라우마를 처리 하는 데 필요한 관계의 고향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적대적인 우주에서 표류하는 고립된 개별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붓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망상이라고 보았다.

붓다는 가르치길, 우리가 비록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건 전체 그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얽혀 있는 존재다. 우리의 마음은 생애 초기에 상호작용하던 패턴들을 반영할 뿐이다. 습관적인 두려움 없이 혼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끝을 알 수 없는 존재를 실감하고서 놀라게 될 것이다.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며 생겨난 관계에 대한 암묵지는 우리 각각의 마음에 회로화되어 있다.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사로잡힘,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원초적 고통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무한한 의식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계속 새로워지는 원천으로서, 일상의 트라우마를 해치고 그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획득 가능한 것이다.

좋은 치료사는 환자가 이 사실을 대인 관계 속에서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좋은 치료사는 위니컷이 엄마와 아기 역동이라고 말한 푸근하고 편안한 환경을 반복 재현해, 환자가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힘든 감정을 인식하게 해주는 맥락을 창조한다. 붓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붓다 이야기는 관계의 고향이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정신치료가 별 의미가 없다거나, 위니컷이나 카와 같은 정신치료사가 할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료적 개입 역시 본질적으로 붓다가 밝혀낸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어린 시기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붓다는 존재의 한가운데 깔려 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확인했다.

깨달음을 향한 붓다의 여행을 이런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꽤 타당하지 않지만, 나는 붓다의 여정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붓다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상황에 적용되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붓다가 명확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고통은 보편적인 진리다. 우리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항상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마음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관계 맺기 능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붓다는 변화의 의학을 발견했다.

트라우마에 파괴당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트라우마를 통해 자신의 관계 맺기 능력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일깨울 수 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더 배려하는 사람으로,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를 티베트 불교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18세기 몽골의 승려 장캬 롤웨이 도르제는 깨닫고 난 뒤 곧바로 시를 지었다. 그 시는 그의 마음을 각성시킨 트라우마의 역할과 그가 겪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내용이었다. 시를 통해 그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본 원리를 앞당겨 보여줬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할 것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그의 시는, 정신분석의자에 누워 있는 환자를 위한 노랫말처럼 들린다. 그는 사실 자신의 만트라를 쓰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늙은 엄마를 잃어버린 미친 아이와 같았다. 엄마는 그 아이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롤웨이 도르제의 시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깨어난 마음에서 되살아난 관계에 대한 암묵지와 완전히 일치시킨다.

시에서 표현한 대로, 그는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버림받았다는 감정과 싸웠다. 그는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이룬 대단한 라마승이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떼를 쓰는 외로운 아이였다. 가면을 벗어버린 롤웨이 도르제는 자기만의 둑카를 인정하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다. 마치 깨달음의 전주곡을 쓰는 것 같았다. 그의 트라우마는 이제 해리되지도, 암묵 기억에 달라붙지도 않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트라우마를 마음챙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에서 좀 더 완결되고 자기 방어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자아의 틀을 확장하면서, 롤웨이 도르제는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미친 감정을 멀리 밀어내는 일을 멈추었다. '자기 판단' 이라는 통상적인 여과 장치 없이 자신을 체험하게 된 롤웨이 도르제는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냈다. 구체적인 형상 속에서 찾던 엄마가 그의 마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는 계속된다. "이제 나는 그런 늙은 엄마를 막 발견할 참이다. 연기의 법칙이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내게 단서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 그래!' 그러고선 '아니, 아니!' 그다음엔 '정말로 그럴까!' 이런 다양한 주체와 객체 들이 내 엄마의 웃는 얼굴이다! 이런 탄생, 죽음, 변화는 엄마의 거짓말이다! 내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나를 속여왔다!" 연기 법칙에 대한 그의 깨달음, 그가 찾던 엄마의 본질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가 찾던 고향은 이미 내면에 존재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자, 고향은 항상 그와 함께했다. 롤웨이 도르제의 시는 〈봄의 노래〉라고 불린다. 이 제목은 붓다의 팔정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기시킨다.

붓다는 사성제를 가르치며 팔정도를 처음으로 설명했다. 팔정도는 도성제, 즉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팔정도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붓다가 강조한 '바른 견해' 의 중요성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바른 마음챙김과 바른 집중으로 이름 붙여진 명상은 뒤에서 나온다. 바른 견해는 존재와 고통, 즉 일상의 트라우마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다. 명상을 하기 전에 바르게 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팔정도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 몽골 라마승의 시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바르게 볼 수 있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Business

찻잎처럼 맑게 우러나던 스님의 음성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응 스님 ㊤

어느 날 한학자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전화가 왔다.

"김 화백, 진짜배기 스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불법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 중에 스님이에요. 무엇이 자비로운지 어떻게 사는게 자유로운지 스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늦기 전에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어요?"

나는 청명 선생의 성격을 잘 알기에 무작정 스님을 만나 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체없이 중암을 찾았다.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직지사 중암은 적요했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작은 소리조차도 비밀이 없을 정도였다. 암자 주변엔 연꽃, 수련, 수국 등 온갖 꽃들이 지천이었다. 정성스럽게 절집 안팎을 보살핀다는 생각이 들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난을 돌려놓는 스님의 손길에서도 자상함이 읽혀졌다. 수행자라는 느낌보다 어진 이웃 할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먼저 다가왔다. 스님은 잘생긴 외모에 맑고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반겨 주셨다. 스님과 차를 마시는 동안 느낀 그분의 순한 기운은 첫 만남의 어색함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낮고 조용조용한 스님의 음성이 찻잎처럼 우러났다.

나의 두 아이들이 절집 주변을 이리저리 뛰놀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자 풀숲에서 청개구리가 놀라 튀어나왔다. 스님께서는 그 광경에 웃으시며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어린 시간으로 추억한다.

분위기가 편안해 질 즈음, 스님께 개인전 화집을 전해 드렸다. 스님께서는 한 작품 한 작품을 정성스럽게 보시더니 '우리 딸 하운이'와 '어때! 시원하지'라는 작품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다. 이 두 작품을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띠셨다.

스님은 '우리딸 하운이'란 작품을 두고 "어린 아이가 변기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변을 보는 모습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며 "아이가 변비가 심한 모양"이라고 하셨다.

"아이의 표정을 좀 봐요.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표정에 잘 나타납니다. 얼굴빛이 어둡고 이는 꽉 깨물고 있어. 얼굴 표정이 문제가 아니네, 온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 목도 숙인채로 한 곳에 힘을 집중하고 있고. 손도 힘을 주고 있지만 발가락 끝을 오므려 굵은 변이 나올락 말락 한 그 순간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스님은 "화가의 관찰력이 특출하다"며 "이 그림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다. 절실함이 있으면 해결책도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딸 아이와 아이 귀지를 파내는 엄마 모습을 담은 '어때! 시원하지'란 작품에 대해선 "어머니는 하나라도 더 파서 깨끗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아이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표정"이라며 "어머니와 딸아이를 통해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품에 대한 스님의 평가는 생활에 대한 통찰력이 실려 있었다. 대화 말미에 "생활이 예술이 되고 평범함이 특별하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스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고마웠다. 그날 밤 내 작품에 대한 스님의 품평에 느낀바가 있어 자신을 경책하는 내용을 작업 노트에 적어 두었다.

"형상에 드리워지는 빛은 하나가 환영일 뿐이다. 일광(一光)은 일의(一意)가 아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의 외형일 뿐 명암이 저절로 뜻을 얻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 특히 인물화에서 대상의 명암을 제거하고 입체를 평면으로 압착해 가는 과정은 대상과 주체의 '시간성'과 '거리 지우기'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일방향의 '바라보기'와 '감흥하기'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말하고 바라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면성의 비밀이다. 평면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대척하고 있다기보다 껴안고 있으며 이야기한다. 나는 이 평면성을 작품을 통해 끝없이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방문은 아버지를 모시고 놀러오라는 스님의 호의로 이루어졌다. 스님과 아버지는 대화가 참 잘 통하셨다. 대부분 이야기 주제는 '유학'으로, 스님의 박식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에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몸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스님과의 만남이 계속 될수록 스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미지는 갈수록 맑고 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해 겨울, 스님의 안부 전화에 다시 중암을 찾았다. 스님께서는 나를 사랑스런 손자처럼 참 따뜻이 대해주셨고 다소 무례한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셨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닌, 스님의 또 다른 움직임을 보고 싶어 붓글씨를 부탁 드린 것이다. 스님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의미가 다른 여러 글귀를 써 주셨다. 하지만 당시 시자스님에게 들은 바로는 스님께서 휘호나 붓글씨 등을 남기시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다며 자신도 스님께서 글 쓰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무례한 부탁 덕분에 몇 십 점의 스님 필적이 중암에 남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식함 · 혜안 속 깃든 따뜻함
마치 어진 이웃할아버지 같아
통찰력 담긴 스님의 작품평
"평범이 특별해지면 '힘' 생긴다"

그날 저녁 스님께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별채로 오셨다. 늦은 밤 군고구마를 가지고 오셔서는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곤충과 새 등 동물에 대한 이야기다. 내 지식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이야기였으나 스님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동물 생태학을 꿰뚫고 계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으며 세상만물에 대한 스님의 애정 어린 시선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만남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 됐다. 만남은 주로 스님께서 거주하시는 요사채와 인근 정자에서 이루어졌다. 정자는 직지사 가람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대구 팔공산의 산자락도 한눈에 잡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방이 확 트인 공간에서 나는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스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스님이 지닌 인간애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스님의 삶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계속〉



우리 딸 하운이, 76x52cm, 종이에 수묵 채색, 1992년, 작가 소장. 관응 스님은 화집속의 '우리 딸 하운이'에 관심을 보이며 "절실함이 있으면 해결책도 생기지 않겠냐"는 법문을 주셨다.



선-기억의 저편, 138x118cm, 종이에 수묵, 1997년, 작가소장. 선하고 따뜻했던 관응 스님의 삶을 보고 화폭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대행 스님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

밝은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려면

질문 한 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물질적인 유혹과 감정적인 일렁임에도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을 세워서 살아가리라 발원했는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 이리저리 눈이 돌아가고 귀가 쏠리는 것이 작년과 별다르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안의 근본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밝은 깨어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에 가면 싱그럽고 물이 좋죠? 그러니 물은 말없이 날더러 물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에 꽃도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진 풀뿌리를 봤을 때도 나를 보고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나같이 살라 하니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에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빠서 못 온다. 뭐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내 집 아이가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데 왜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는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그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은 해도 괜찮건만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안에다 물을 줘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벌써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도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둘로 보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어도 옳은 거는 옳게 안으로 놓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 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은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그 점을 아시고 생활 속에서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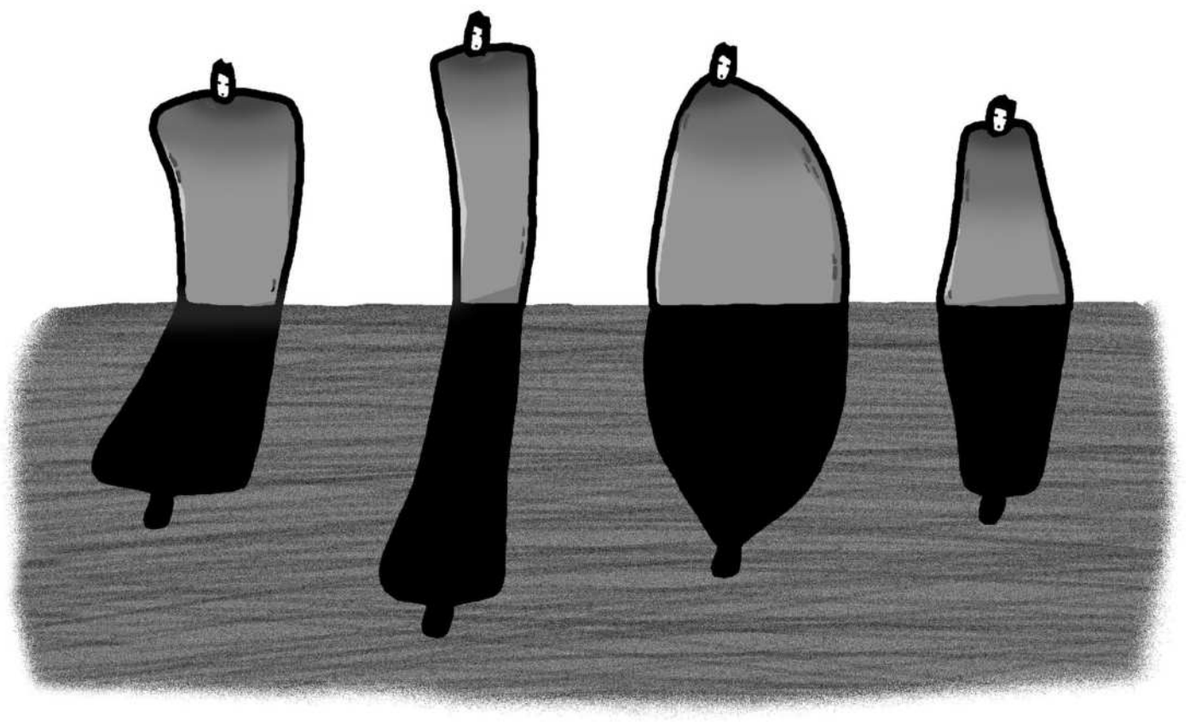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통 밖에 나와서 통을 굴리려면

질문 스님께서는 법문하시는 중에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량적으로는 그 말씀이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참의 경우에선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며 통 밖은 무엇인지,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려지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 통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몸뚱이 속에서, '내가 나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뭐를 줬지.' 하며 나라는 걸 세우고, 모든 것을 나라는 고집으로써 상대해서 거기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어디고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벗어나야만이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벗어나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요, 그러면 진짜 어떠한 게 벗어나는 길인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 속에서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속에서 마음 이전의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 속의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그때에 진짜 정말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내가 둘이 아니게 서로 상응 상조하는 작용을 한다면 바로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진짜 벗어나는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내가 공한 줄 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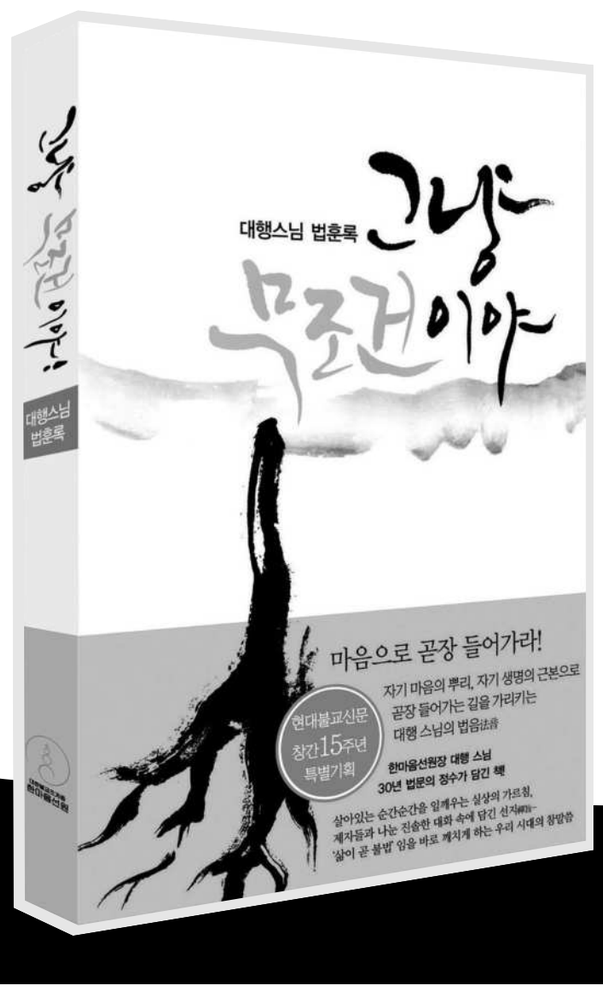
질문 마음을 보려면 먼저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공해서 없는 경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공한 줄 알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물론 우리가 부처님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空)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만 알았지 뜻을 모를 때는 안 것 그 자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작해서 한번 침착하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줬다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삼차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이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좌선을 해도 이것을 꼭 가지고 '뭣고 뭣고 뭣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써 공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항상 뿌리가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은 뭐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거를 나쁘다 좋다 해 왔고, 여러분이 다 움죽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 못하고 남한테 이끌려 가는 것도 바로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이 준 화두, 바로 이것을 꽉 쥐고 굴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가 돌아가고 머물렀다 돌아가고 이것이 한정 없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국한된 게 없이 전부 변천해 돌아가고 부서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나는 만날 때마다 변하고 또 말할 때마다 딴 말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딴 사람 만나서 딴 사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갖가지로 소소영영하게 가지고 소소영영하게 하면서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항상 그릇은 비어 있다는 얘긴데,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 가지고,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 큰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쥐고서는 그거를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외려 자기 마음이 자기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참선이라는 거, 예전의 스님네들이 참선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제일등으로 쳤죠. 그러면은 참선이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제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야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내 몸뚱이 속에 실려 있는 그 그림자, 그 의식들, 그 모습들은 다 내가 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의에서 오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타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언짢은 것이나, 좋은 것이라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일임하고, 또 잘 안되는 것은 그 모든 과거로부터 그림자처럼 그 컴퓨터에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에다 다시 맡겨 놓는 것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당신만이 모든 거를 다 간파할 수 있어.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병고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고, 그러고 지켜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참선입니다. 무조건 틀고 앉았다고 그래서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모든 일체, 앉으나 서나 또는 자나 깨나 일하나 어떠한 거든지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알지 못하나 내 주인공이 전체를, 전체 동서남북 상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자, 믿어지고 바로 거기에 어떤 여건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상응한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전부 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이것도 해결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즉시 그것이 반영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성냥불을 탁 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체 한생각에 나도 건질 수 있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바로 샘솟듯 한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로써 양식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감로로써 양식을 삼는다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중생이든지 남의 중생이든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와 조상이 둘이 아닌 이유

질문 스님께서는 법문 중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 따로 숭배하고, 조상 따로 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왜 조상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부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골바가지들을 보고 정례를 올리신 겁니다. 내가 법문 중에 몇 번 얘기를 했죠? 공동묘지엘 가니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늙었더라고. 이런 걸 보면 아이도 조상이고 또 조상도 자기 자손이에요. 이런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왜 해골을 가지고 가르치셨을까요? 해골과 조상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례를 올리고 "이것이 전에 내 부모였느니라. 내 형제였느니라. 내 친구였느니라. 내 할머니였느니라. 내 할아버지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죽었으면 누구든 자기 조상 아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쳐서 거품 같은 물방울이 수만 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라앉으면 다 바닷물인 것입니다. 이 경우 물방울은 육신을 가진 중생이고 바다는 근본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물방울 하나가 가라앉는 것밖에 안 되는데, 누구라 가릴 것 없이 몸을 벗었다 하면 바다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땐 모두가 다 내 조상이다 이 소리죠. 일단 바닷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바닷물의 어느 것이 내 조상인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물 전체가 다 내 조상인 거죠.

생명의 근본은 그렇게 크고 넓으면서 하나예요. 그 생명의 바다에 잔잔한 물로 그대로 한자리하고 있다가 그냥 방편으로 적게도 크게도 나투면서 한 물방울이 되어 나와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니라. 바다를 봐라. 수만 개의 물방울이 흩어졌다가 바람이 자니 다시 가라앉아 지금은 그대로 다 바다이니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치로 그 해골바가지와 뼈다귀들도 그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가라앉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조상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내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올린다는 게 없는 법이죠. 모든 것은 본래 한자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밖으로 가질 않고 안으로 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곧 조상에게 하는 예배이면서 부처님께 하는 예배인 것이고, 또 동시에 나에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일체가 더불어서 함께 하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는 자기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조상님에게 했다고 해도 맞지 않으며, 부처님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예컨대 돈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물건을 사오지만 거기엔 오고 감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 올 뿐이지 '돈을 저 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연일 뿐이지. 그와 같이 법이란 오고 감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도 내 마음의 떡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그 마음의 떡 하나에 인등이 있고, 향이 있고, 청수가 있는데 일일이 떡을 들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려니 그게 얼마나 구차해요? 그건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그건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하되 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질 않고 거죽으로만 조상님을 공양한다면 안 되죠. 그런다면 조상님의 중생적 모습만을 보고, 조상님의 참 근본인 진실한 부처의 모습, 모습 아닌 그 모습은 못 보는 셈이지요. 그런 사람은 참된 수행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뜻으로 본다면 조상과 부처가 함께 한 그 근본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몸이 춥지도 않은 그 법 안에는 법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자리엔 언제나 충만하게 물도 있고 향도 있고 등도 있고, 일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참뜻으로부터 잘 정돈된다면 조상님들도 다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진짜 중이 한 사람만 나온다면 자손의 십 대뿐만 아니라 이십 대까지도 그 복덕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질문 해년마다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삼형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촛불재를 모실 때 어떤 한 분만이, 예를 들어서 큰형만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중이나 개별적으로 재를 모시는 등 여러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어떤 형제가 대표로 하는가, 아니면 한 번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 듣고자 합니다.

답변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구가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그 한 마음으로써 대신하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둘이나 되나요? 단 하난데, 그냥 공부를 그렇게 해도 남을 따라설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재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 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리가 터져 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들 촛불재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진실하게 행하고 무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그 점을 아시고
생활 속에서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불자 세상보기

홈플러스의 뻔뻔스러운 민낯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사은경품 추첨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응모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되팔아 231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의 신상정보를 빼내 돈으로 맞바꾸는 도둑질을 해온 것이다.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이나 자녀수까지 요구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명목상 고객감사 이벤트를 표방한 경품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품당첨자에게 연락을 해주기는커녕 약속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던 것이다.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홈플러스가 대대적으로 광고한 경품 가운데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고급 외제차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내부직원 또는 그들의 지인이었다고 하니 홈플러스의 기업윤리는 엉망진창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홈플러스는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유통업계의 보편적 마케팅 관행이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목적에 이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단순히 '홈플러스 경품조작사건' 이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개인정보 판매사업'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든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글로벌 유통기업 테스코의 자회사라는 명성을 배경으로 승승장구해왔으나 이번 일로 말미암아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말해 홈플러스는 동네 주민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생필품을 팔던 악덕기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홈플러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은품을 증정하겠으니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라고 해놓고 이를 1건당 1980원에 팔아먹고 말았으니 말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1980원짜리 딱지 정도의 취급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인격체의 값어치가 그런 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인 "홈플러스는 큰 기업보다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공개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가증스럽게도 너새니 호손의 소설 '큰 바위 얼굴' 의 상징성을 기업이미지로 선택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원래 큰 바위 얼굴의 함축적 의미는 부(富)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내면적이고 질적인 자기성찰을 강조하는 가치관이지 않던가.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이용해온 홈플러스는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된 홈플러스의 전, 현직 임원들과 보험사 직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서 보여준 솜방망이 처벌은 정보화 사회의 상호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혜로운 불자라면 홈플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내지는 가치경영의 철학을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일부기업들이 사악한 이윤추구의 발톱을 윤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그럴듯한 기업이미지 혹은 경영전략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기업의 위선과 횡포에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홈플러스의 진정성 있는 참회를 요구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입법계품' 과 '사부대중 대중공사'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1월 28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 는 출범식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8대의제' 를 선정했다. 8대 의제는 (1)종단 인재양성과 포교프로그램 개발 (2)사찰 재정 투명화 (3)종단 신뢰구축 (4)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 (5)승가공동체 회복 (6)사회적 의제 실천 (7)지역사회 사찰의 위상과 역할 강화 (8)교구중심의 지방분권화 강화다. 여기서 잠시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량없는 누각이 있었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서로 장애되지도 않고 어지럽게 섞이지도 않았다. 선재가 한 곳에서 모든 곳을 보듯이, 모든 곳에서도 다 이와 같이 보았다. 선재동자는 비로자나장엄장 누각이 이처럼 가지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고 아주 기뻐했으며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서 모든 의혹이 사라졌다.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은 것은 기억하며 생각이 어지럽지 않아 걸림 없는 해탈문에 들어갔다. 〈출처:민족사 간행 〈화엄경〉〉

이는 필경 우리가 구현해야하는 종단과 세상의 풍경이다. 조계종의 구조와 조직이 위 이야기 속의 선재동자가 들어간 누각 안의 광경처럼 각각이 독립적이되 유기적인 관계여야 하며, 구성원들은 '자유자재한 경계' 로 종단을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이 '해탈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혹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자재한 경계' 라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 중 제일 덕목인 무소유와 청정함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즉, 총무원과 본사 등 각 종헌기구는 이러한 정신과 환경의 토대 위에서 장엄한 모습이 형성되고 종도와 각 사찰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투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족이지만, 현대사회의 국가나 기업에서의 조직구성과 관리, 경영이론을 입법계품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다나와 있다. 타종교나 사례를 예로하거나 차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동안 주체들이 종단 운영에 있어서 무명업장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창조적 사유가 부재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거론된 각 분과(모둠)의 '선정 주제' 를 보면 어딘지 100년 대계를 위한 근원적인 유신을 위한 내용이라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선정된 각 의제를 달성하려면 결국 사람, 의식, 재정, 관리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지속해서 거론된 승가 구성원의 불교에 대한 이해 등 내부 철학의 문제, 기득권 포기, 파벌문제, 종헌종법에 대한 원칙적 집행과 일대 개정과 같은 과제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어디까지 얼마나 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재동자가 누각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내었듯, 진정한 백년대계를 세울 자세가 돼 있다면 일 년이나 그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을 스스로 떠올려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성공의 담보조건이기도 하다. 종단이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조건인 구태악습의 철폐는 마치 "선재가 기뻐하며 들어가니 문은 곧 닫혔다"와 같이 일순에 단절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묻어서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장 내달 열리는 법규위원회 등 종단의 최고 판단기관에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어찌 처결되는지에 따라 진정성과 의지가 가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여간 종단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라는 명칭으로 조계종의 모든(문제) 것을 진단, 대 해부해서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온갖 불신 속에서도 또다시 종단 운영의 직간접 주체들 스스로가 종단조직과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해부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미륵보살이 누각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니 문이 곧 열리고 경이로운 세상이 전개 되었듯이 몇 개월 후 종단은 우리에게 유신된 새로운 모습을 전개해 보일까. 향후 기대해 볼 일이다.

社說

새로운 설 문화 템플스테이로 만들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날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 설 연휴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 이상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벌써 적지 않은 국민들은 해외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본지 1029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찰에서는 설 합동차례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찰 관계자 역시 "차례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설 명절은 한국의 미풍양속이고 이를 통해 가족 친지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단순히 먹고 쉬는 날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이왕 떠나야 하는 자리라면 흥청망청 시류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가봤으면 한다.

올해도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은 산문을 열고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명상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부터 가족과 연인이 함께 민속놀이와 불교문화 등을 체험하고 일년 소원과 희망을 그려보는 체험형 템플스테이, 지친 심신을 쉬어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까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불교 역시 변화하고 있는 설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3년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 ·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설 문화로 템플스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가와 재가, 가족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새로운 명절 신행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차례와 함께 통알과 성불도 놀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선우 청년회에 거는 기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음은 이제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 결혼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불교를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화제다. 바로 우리는선우 청년회다.

독실한 불자 부부인 우리는선우 이사장 유필화 교수와 한성대 불교동아리를 지도하는 이기향 교수의 발심에 의해서 탄생됐다. 두 교수의 제자들 청년 20여명이 주축이다. 월 1회씩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1월 31일 대방동 창립식에 모인 회원들의 연령대는 25세부터 40세까지 였다. 직업도 대학생, 미술학도, 뮤지션, 보석디자이너, 광고기획자, 회사원 등 각기 다양했다. 회원들은 불교가 좋지만 불교를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또래가 없거나, 혹은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신행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로 청년회 발족에 대한 기대가 컸다. 사실 노령화된 불교계서 불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신행단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갈증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이 모인 것이니 만큼 앞으로 첫 단추는 무거운 불교이야기 보다는 청년들이 일상서 겪는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교유하길 바란다.

사실 우리는선우 청년회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청년회를 창립해 기도와 교리공부 위주의 단순 신행서 벗어나 사회봉사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우리는선우 청년회는 청년들의 불교 관심 부재로 잠시 침체기를 맞으며 활동을 임시 중단했다. 그런 아픔도 겪었으니 이제는 더욱더 견고해 지고 사명감도 투철해질 것이라 믿는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바로 이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www.hyunbulshop.com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괘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최고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직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마하연 겨울 출발 상품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각국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호텔, 식사 등)

– 대만 "공승제" 6일 • 출발일 : 9월 3일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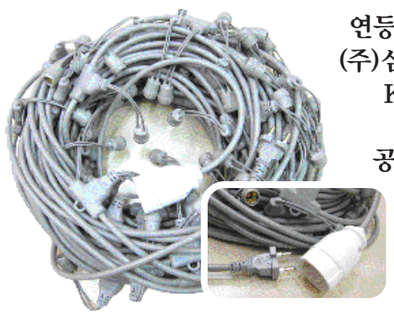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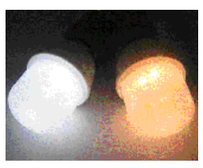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지)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